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목 차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3
III.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6
IV. 문항 분석 및 평가	14
V.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90
VI. 부록 : 고사별 문항 카드	98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구분	입학전형	모집 계열 (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 X)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 구술 고사	실기· 실험 고사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기타	
수시	논술전형	인문 계열	○	○					○
	논술전형	사회 계열	○	○					○
	논술전형	자연 계열	○	○					○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	전체	○		○				X
	재외국민전형**	전체	○		○				X

*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의 경우, 교과 교육과정과는 관련 없는 학생부 기반 면접 실시

** 재외국민전형의 경우 전교육과정, 북한이탈주민에 한해, 면접영상 업로드 실시(고교생활 관련 질문)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이행사항 체크리스트 점검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법령 이행	교칙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	○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
	결과 공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 > '수시' 메뉴 > '공지사항' 메뉴)	○
영향평가 시행 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
결과 분석	분석 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

나.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 (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 정 관련 여부 (○, ×)	영향 평가 실시 결과
				논술 등 필답 고사	면접· 구술 고사	실기· 실험 고사	교직 적성· 인성 검사	기타		
수시	논술전형	인문계열	○	○					○	준수
	논술전형	사회계열	○	○					○	준수
	논술전형	자연계열	○	○					○	준수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	전체	○		○				X	해당 없음
	재외국민전형	전체	○		○				X	해당 없음

다. 대학별고사에 사용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

평가 대상	입학 전형	모집 계열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계열 및 교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 과학	지구 과학	
논술 등 필답 고사	논술 전형	인문 계열	통합 교과형으로 고교 교육과정 내	T1	1	○	○							
					2	○	○							
					3	○								○
		사회 계열		T2	1	○	○							
					2	○								
					3	○								
		인문 계열		T3	1	○	○							
					2	○								
					3	○	○							○
		사회 계열		T4 (사회)	1	○	○							
					2	○	○							
					3	○	○							
		자연 계열	수학 I , 수학 II	T4 (자연)	1				○					
					2				○					
					3				○					
					4				○					
					5				○					
					6				○					
					7				○					

Ⅱ.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1.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대학의 자체 규정

가. 규정명 : 학칙(규정번호 : 4-1-97)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규정

나. 제정일 : 2015.2.13.(2022.7.13.개정)

다. 주요 내용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선행학습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란 법에 따라 대학입학전형에서 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적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2조에 따른 본교의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 또는 평가하는지 여부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요인은 없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입학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선행학습영향평가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위원은 7명 이내, 외부위원은 3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③ 내부위원은 입학부처장, 입학총괄팀장, 입학연구팀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전임교원 및 교내 전문가 중에서,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서무처리를 위해 입학처 직원 중 2인 이내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조(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선행학습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내용,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2.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한 사항
- 3.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방지 방안에 관한 사항
- 4. 선행학습영향평가 결과의 차년도 입학전형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이의신청 및 기타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소위원회)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둘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경비 지급) ①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선행학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조사 및 연구 등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에게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영향평가의 시기) 선행학습영향평가는 해당 대학별고사가 종료된 이후부터 결과공개 시일 이전까지 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모집시기(수시 및 정시)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결과의 공시 및 반영) ① 법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입학전형에의 반영 계획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한다.

② 영향평가 결과는 시행령에 따라 차년도 입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선행학습영향평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

2.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가. 조직명 :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나. 구성 : 입학처장 및 교육과정 전공교수, 수학 전공교수, 현직 교사 등 당연직 및 임명직 위원 총 8명으로 구성

1) 내부위원

- 입학처 : 정○○(입학처장), 이○○(입학팀장)
- 교수위원 : 김○○(소위원회 위원장, 사범대학: 교육과정전공), 박○○(수학교육전공)

2) 외부위원 : 김○○(국어교사, 충북산업과학고등학교), 임○○(사회교사, 경기도교육청 남부연수원), 이○○(수학교사,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

3) 간사 : 맹○○(입학사정관)

3. 대학별고사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절차

가. 2026학년도 대학별고사 일정

일정	입학전형	내용
2025. 7. 14.(월) ~ 16.(수)	재외국민전형	초·중·고 전 교육과정 이수자 및 북한이탈주민 대상 면접 영상 업로드(고교생활 관련 질문)
2025. 11. 15.(토) ~ 16.(일)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형)	면접고사(제출서류 기반 면접)
2025. 11. 22.(토) ~ 23.(일)	논술전형	논술고사

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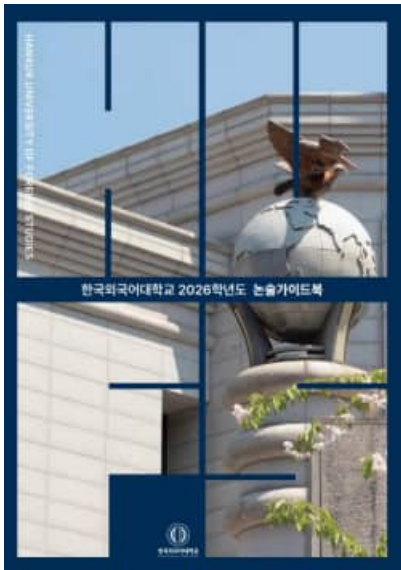
일정	내용	비고
2025. 12. 24.(수)	위원회 구성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구성
2026. 1. 5.(월)	전체 회의(1차)	•위원회 위원 위촉 및 계획 수립/보고서 작성 기준 및 방법 논의
2026. 1. 9.(금)	전체 회의(2차)	•분과별 보고서 작성 세부기준 논의 및 작성 방법 공유
2026. 1. 16.(금)	전체 회의(3차)	•분과별 보고서 작성 세부기준 확정 및 보고서 초안 내용 공유
2026. 1. 17.(토) ~ 1. 23.(금)	소위원회 보고서(초안) 집필 및 제출	•검토의견 및 분석 결과 취합
2026. 1. 26.(월) ~ 2. 13.(금)	최종 편집 및 점검	
2026. 2. 20.(금)	최종 보고서 확정 및 결재	
2026. 3. 31.(월)	보고서 제출 및 홈페이지 공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출

다. 절차: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임명직 위원(내부/외부) 선정 →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개최 → 소위원회 구성 의결 → 보고서 작성(소위원회) → 위원회 개최(보고서에 대한 심의/의결) → 홈페이지 공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송부, 대학입학전형 지원시스템(ASSIST) 등록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전형 및 모집계열별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교수 위원	교사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논술전형 (인문계열, 사회계열)	출제위원	8명	6명	2명 (2명)
	검토위원	1명	1명	0명 (0명)
논술전형 (자연계열)	출제위원	3명	2명	1명 (1명)
	검토위원	1명	0명	1명 (1명)

1. 출제 전

전형	내용	세부사항
논술전형	고교 교육과정 분석	- 출제본부 입소 전 논술문항 출제위원에게 교과서 및 교육과정해설서 등 관련 자료를 제공 - 출제본부 입소 전 논술문항 출제위원에게 과년도 기출문제와 해당 문제 출제 시 작성 하였던 문항카드 및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자료를 제공
	사전 교육	- 출제본부 입소 전 사전회의를 통해 출제·감수위원에게 고교교육과정 및 출제 범위에 대한 안내와 교육을 진행 - 제시문 발췌 뿐 아니라 문항 작성 시 핵심어(핵심 개념)를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발췌 하도록 교육
	논술가이드북 제작 및 배포	- 전년도 실제 논술 기출문제, 당해연도 모의 논술 문제, 문항카드 등을 포함한 논술가이드북 제작 - 논술전형 주요사항 및 전형결과, 전형특징 등을 안내 - 고등학교 및 수험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정보 제공  

2. 출제과정

번호	내용	세부사항
1	고교 교원 참여비율	• 논술전형 논술고사: 출제위원 11명 중 고교 교원 3명 참여(27%)
2	고교 교원의 출제·검토 과정에서의 권한 강화	• 2015학년도부터 매년 고교 교원을 출제위원으로 선정 • 고교 교원이 출제 사전회의, 출제과정, 출제 후 문항카드 작성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출제된 문제는 고교 교원이 검토 • 고교 교원이 출제본부 입소 전후로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
3	출제·검토 과정에서의 보완을 위한 절차 수립 및 개선 노력	• 출제본부 운영 시 내부 출제위원 외 별도의 관리직원을 두어 입학부서에서도 출제과정을 상시 관찰하고, 추가로 필요한 교과서 등 고교 교육과정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출제본부 운영 시 출제위원의 요청자료 목록을 검토하여 고교 교육과정 외 자료의 경우 출제본부 제공을 제한함 • 특정 교과서 선택으로 인한 유불리가 나타나지 않도록 복수의 교과서에서 언급된 내용인지에 대한 확인 •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난이도 수준인지 재점검 • 교육과정 범위 밖 출제나 고난이도 문제의 경우 수정 의견 제시, 수정 문제 재검증 • 일반선택 과목 교과서만 제공

3. 출제 후

가. 출제위원 의견 수렴과정

- 1) 출제·평가 협의회: 평가 중 및 사전, 사후 평가 협의회를 진행하여 출제과정 전반에 관한 의견을 수렴함
 - 가) 사전회의: 해당 고사의 출제 방향과 출제 원칙 확정, 고교교육과정에 대한 교육 등 진행
 - 나) 출제 중: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제시문, 문항 및 핵심개념 작성/발췌 여부 검토
 - 다) 출제 및 평가 후: 최종검토 및 평가 후 가채점을 통한 답안의 출제의도 부합 여부 검토
 - 라) 기타 사항: 출제업무의 효율성 확보, 보안관련 사항, 인력구성 등에 관한 의견 수렴
- 2) 출제위원 대상 설문조사: 출제 및 평가 과정 전반에 관하여 개선이 필요한 점이나 기타 건의사항(과목별 교과서 권종 추가 확보에 대한 의견, 참여 고교 교사 확충에 대한 의견, 사무기기 및 회의실 환경 개선에 관한 의견 등)을 수렴함

나. 출제 및 검토의 내실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

1) 논술고사 출제 참여 교교 교원 비율

학년도	인원	비율
2015	14명 중 4명	28.6%
2016	14명 중 4명	28.6%
2017	14명 중 4명	28.6%
2018	12명 중 4명	33.3%
2019	12명 중 4명	33.3%
2020	12명 중 4명	33.3%
2021	12명 중 3명	25.0%
2022	11명 중 3명	27.3%
2023	11명 중 3명	27.3%
2024	11명 중 3명	27.3%
2025	11명 중 3명	27.3%
2026	11명 중 3명	27.3%

2) HUFs 교사간담회

- 기간 : 2025년 4월 ~ 8월
- 참여인원 : 본교 방문형(17개교) / 고교방문형(124개교)
- 내용
 - 본교 방문 교사간담회 및 고교방문설명회 후 진학담당 교사와의 간담회 진행
 - 2025학년도 입시결과 분석 및 2026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 안내
 - 2025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안내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실제적인 모습을 통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설명

3) HUFs 교사자문위원회

- 기간 : 2025년 12월 ~ 2026년 1월
- 참여인원 : 총 40명 위촉
- 내용
 - 2025학년도 입시결과 분석 및 2026학년도 대입전형 주요사항 안내
 - 2028 대학입시개편에 따른 대입전형 개발 및 개선 관련 자문
 - 논술전형 주요사항 안내 및 결과 분석

4) HUFS 교사컨퍼런스

연번	지역	일시	장소
1	충청권 (대전/세종/충북/충남)	2025. 5. 23.(금)	호텔 인터시티
2	전라권 (광주/전북/전남)	2025. 6. 13.(금)	홀리데이인 광주
3	경남권 (부산/울산/경남)	2025. 6. 20.(금)	라발스 호텔
4	강원권	2025. 6. 27.(금)	라카이샌드리조트
5	제주권 (제주/서귀포)	2025. 7. 4.(금)	썬호텔
6	경북권 (대구/경북)	2025. 7. 11.(금)	대구메리어트호텔
7	수도권(1차) (서울/경기/인천)	2025. 8. 1.(금)	그래비티서울판교
8	수도권(2차) (서울/경기/인천)	2025. 8. 8.(금)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대학원

- 참여인원 : 총 383명
- 내용
 - 논술전형에 대한 이해 도모
 -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 대한 이해 도모
 - 본교에 대한 전형결과 자료 제공 및 2026학년도 전형계획 안내
 - 교사들의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통해 고교교육 내실화에 기여

5) HUFS 고교방문설명회

- 기간 : 2025년 5월 ~ 7월
- 참여인원 : 전국 251개교
- 내용
 - 전년도 논술전형 안내 및 입시결과 분석
 - 2026학년도 논술전형을 포함한 대입전형 주요사항 안내
 -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와 준비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 지역고교-대학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HUFS 대입상담박람회

- 기간 : 2025년 5월 ~ 12월
- 참여인원 : 수험생, 학부모 약 4,761명(전국 시도 교육청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관 35회 박람회 참여)
- 내용
 - 논술가이드북 등의 입시자료 배포와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한 대입정보의 접근성 확대
 -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7) HUFS 지원전략 설명회

연번	지역	일시	장소
1	충청권 (대전/세종/충북/충남)	2025. 5. 24.(토)	호텔 인터시티
2	전라권 (광주/전북/전남)	2025. 6. 14.(토)	홀리데이인 광주
3	경남권 (부산/울산/경남)	2025. 6. 21.(토)	라발스 호텔
4	강원권	2025. 6. 28.(토)	라카이샌드리조트
5	제주권 (제주/서귀포)	2025. 7. 5.(토)	썬호텔
6	경북권 (대구/경북)	2025. 7. 12.(토)	대구메리어트호텔
7	수도권(1차) (서울/경기/인천)	2025. 8. 2.(토)	그래비티서울관광
8	수도권(2차) (서울/경기/인천)	2025. 8. 9.(토)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사이버관 대강당

- 참여인원 : 약 800명
- 내용
 - 논술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등 대입전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수험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 본교에 대한 전형결과 자료 제공 및 2026학년도 전형계획 안내
 - 대입전형에 대한 맞춤식 지원전략 수립을 도움으로써 입시 준비 부담 완화

8) HUFs 입학상담

- 기간 : 2025년 8월 ~ 12월
- 참여인원 : 수험생, 학부모 491팀
- 내용
 -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온라인 입시상담 제공함으로써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 및 편의성 제고
 - 수요자 중심의 1:1 입시 상담을 통해 논술전형을 포함한 본교 대입전형 궁금증 해소 및 진학 설계에 도움
 - 2026학년도 본교 전형계획 및 주요 변경사항 안내
 - 전년도 입시결과, 경쟁률, 지원가능 점수 등 입시정보 제공

9) HUFs 멘토단

- 기간 : 2025년 5월 ~ 2026년 1월
- 멘토단 활동 인원 : 본교 재학생 9명
- 내용
 - 논술전형, 학생부전형 준비 방법 안내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멘토링
 - 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입학 정보 제공
 - 실제 논술전형 합격사례(준비방법 등) 논술가이드북 탑재

10) 진로진학 포럼

- 기간 : 2025. 1월
- 참여인원 : 고교교사 및 교육청관계자, 대학입시관계자 약 300명
- 내용
 - 교육청 2028학년도 대입개편안 관련 준비사항 공유를 통해 대학입시관계자들의 고교현장에 대한 이해
 - 수도권 주요 6개 대학의 학교장추천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등의 평가방법 및 전형결과를 공유하여 대입전형에 대한 고교교사의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

4. 문항 분석 및 평가

가. 학생부종합전형

- 1) 학생부종합전형(면접형)에 한해 면접평가 실시
- 2) 공통 질문은 없으며, 제출서류(학교생활기록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활동보고서)를 기반으로 학업역량, 진로역량, 공동체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면접평가 실시
- 3) 면접문항 예시

- 동아리 활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나요? 본인의 역할에 만족하나요?
- 고교 3년간 가장 의미 있었던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 재외국민특별전형

- 1) 전교육과정, 북한이탈주민에 한해, 면접고사(온라인 면접영상 업로드) 실시
- 2) 2026학년도 면접 문항

- 고교생활 중 본인의 학업성취도 향상과 진로 탐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각각 설명해주세요.
- 고교생활 중 동료들과 협업을 한 경험이나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었는지 말씀해주세요.

다. 논술전형

1) 'IV.문항 분석 및 평가' 참조

2) 논술전형 금년도 개선 사항 요약

- 전형방법 변경
 - 2025학년도 :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따른 감점 미반영
 - 2026학년도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각 호수에 따라 전형 총점의 1%부터 전형 총점의 100%(과락, 사정 제외)까지 감점 처리
- 수험생이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논술전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논술고사 기출문제 및 해설을 공개
- 논술전형 응시를 원하는 수험생에게 논술가이드북 개별 우편 발송
- 논술전형 지원자 상위 고교(340개)에 논술가이드북 발송

IV. 문항 분석 및 평가

<표 IV-1> 문항 요약표

평가 대상	입학 전형	계열	문항 번호	하위 문항 번호	교과별 교육과정 과목명	교육과정 준수 여부	문항불임 번호
논술 등 필답 고사	논술 전형	인문	T1	1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경제,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미술	○	문항카드 1
				2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한국사	○	
				3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영어 I	○	
		사회	T2	1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문학, 통합사회, 미술	○	문항카드 2
				2	국어, 독서	○	
				3	국어, 독서	○	
		인문	T3	1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문학, 경제, 미술	○	문항카드 3
				2	국어, 독서, 문학, 미술	○	
				3	국어, 독서,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사회·문화	○	
		사회	T4	1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통합사회, 경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문항카드 4
				2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통합사회, 경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3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통합사회, 경제	○	
		자연	T4	1	수학 I	○	문항카드 5
				2	수학 II	○	
				3	수학 I	○	
				4	수학 I	○	
				5	수학 II	○	
				6	수학 I	○	
				7	수학 II	○	

본 위원회는 문항 분석 및 평가를 위해 출제된 문항에 적용된 교과와 과목명 및 과목별 성취기준을 분석함으로써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일부 인문 사회 문항과 관련된 교과 교육과정의 경우, 성취기준에서 일반적이거나 다소 추상적인 진술문을 포함하고 있어, 문항에 적용된 과목별 성취기준을 분석하는 것만으로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에 본 위원회는 교육과정 전공 교수, 수학과 교수, 국어, 사회, 수학과 교사, 연구사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을 조직하였으며, 연구 절차에 따른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검토하였다.

위원회가 설정한 과업은 다음과 같다.

1. 분석 범위 및 기준 설정

위원회는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우선 분석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과 해당 문항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문항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성취기준이 다소 추상적으로 서술된 경우에도 문항이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도록 보완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각 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항 출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 소재가 명료하게 제시되는 교과서 등 문항과 관련된 내용 직접 수집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일부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내용적 요소는 성취기준을 통해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수준의 경우 성취기준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철저한 검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서 및 문항의 내용과 유사한 고등학교 교수·학습 자료를 수집하여 선행학습 유발 정도를 추정하는 방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를 수행하였다.

3. 전문가 숙의 과정

위원회는 교육과정 전공 교수, 수학과 교수, 국어·사회·수학 교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을 조직하여 교육과정 준수 여부에 대한 숙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문항이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성취기준과의 연계성이 명확한지 등을 논의하였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내렸다.

4. 문항 외 채점기준에서의 선행학습 요소 검토

위원회는 문항의 풀이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검토하기 위해 문항뿐만 아니라 채점 기준도 함께 분석하였다. 특히, 채점 요소와 기준이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채점 과정이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한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절차를 거쳐 본 위원회는 문항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보다 정교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객관성 및 구체성 확보를 위한 성취기준 관련 사항 활용

2015 개정 교육과정 각론 문서는 ‘성취기준 해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등 성취기준과 관련된 부가적인 사항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항과 성취기준의 연관성 검토만으로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의 근거로써 활용하여 객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림 IV-2] 객관성 및 구체성 확보를 위한 문항카드 분석 사례(한국교육과정평가원)

[illegible]

다. 고난도 문항 여부 판단을 위한 기준 설정

소위 ‘킬러 문항’이 선행학습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문항의 고난도로 인해 특정 집단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정상적인 교육과정 내 학습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이는 선행학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위원회는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난도가 높은 문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명확히 식별하는 것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위원회는 교육부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수능 및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의 고난도 문항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교육부는 ‘수학’, ‘국어’, ‘영어’, ‘과학’ 네 개 교과에서 선별된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본 위원회는 그중 ‘수학’, ‘국어’, ‘영어’ 교과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문항이 성취기준과 부합하는지, 일반적인 학습 과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지, 특정 유형의 선행학습을 받은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고난도 문항이 평가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수학

교육부에서 제시한 ‘수학’ 고난도 문항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필요하게 명제의 개념을 도입하여 수험생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음
- 3가지 이상의 수학적 개념이 결합되어 문제해결 과정이 복잡하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접근방식을 요구하며, 일반적인 공교육 학습만으로 이러한 풀이 방법을 생각해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을 응시한 수험생은 해당 문항의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방법 외 미적분에서 학습한 ‘변곡점’의 개념과 성질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른 학생보다 유리할 수 있음
- 문제해결 과정에서 경우를 나누는 상황이 과도하여 풀이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며, 수험생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음
- 삼각함수, 사인법칙 및 함수의 극한이 결합된 형태의 문항으로 공교육에서 다루는 수준보다 다소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다루고 있어 수험생의 심리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음
- 미적분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테일러 정리’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 이상으로 심화학습을 한 학생은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별 유불리 및 과도한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음
- 기하 문항으로 출제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배우는 ‘벡터의 외적’ 개념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도 있음.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 이상으로 심화학습을 한 학생은 출제자가 기대하는 풀이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학생별 유불리 및 과도한 심화학습과 선행학습을 유발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논술문항이 고난도 문항의 성격을 포함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학’ 고난도 문항 판단 준거를 설정하여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위원회가 활용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V-2> ‘수학’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수학’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1	너무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문제 풀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공교육을 통한 학습만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접근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2	지나치게 많은 경우로 나누어지는 등 과도하게 긴 풀이 과정으로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거나 심리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경우
3	출제 범위 밖의 과정의 수학 지식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

이에 더하여 위원회 논의 결과, 수학은 비교적 위계성이 뚜렷한 과목으로, 선행학습 여부가 문항별 풀이 과정에 세부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수학 분석 기준을 더욱 엄밀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서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추가 분석 기준은 수학 분석 결과와 함께 제시하였다.

2) 국어

교육부에서 제시한 ‘국어’ 고난도 문항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낮은 현대 철학 분야의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여 지문 이해가 매우 어렵고, 문제의 선택지로 제시된 문장 역시 추상적이어서 지문과 답지의 개념 연결이 쉽지 않음
- 제한된 감상 정보(‘선생님’의 해석)에 의지하여 각 선택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작품 내에서 찾아 연결해 가며 해석해야 풀 수 있는 문항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의미 해석을 위한 높은 수준의 추론이 필요함
- 과학 및 수학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어려운 지문을 제시하여 국어 독해력보다는 ‘기초 대수량, 상용로그, 비례를 나타내는 그래프, 최소 제곱법, 대사 체중, 클라이버의 법칙’ 등에 대한 배경지식의 차이와 수학적 이해 능력이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문단의 내용이 분절적으로 제시되어 있어 각 문단의 내용을 연결해서 이해해야만 하는 과도한 추론이 요구되며, 내용 이해 및 문제 풀이를 위해 짧은 시간 내에 지속적으로 지문을 다시 읽으며 문단 간 내용을 연결하여 이해하는 수준의 높은 독해력이 요구됨
- 다양한 개념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의 의미를 지문에서 찾아가며 <보기>의 내용을 적용하여 이해해야 하므로 추론해야 할 정보량이 과다함
- 지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문에서 단절적으로 제시된 내용 요소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사한 정보의 위치를 확인하여 답을 찾아야 하므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에게 유리한 문항임
- 교과 수업에서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수준보다 높은 경제 영역의 배경지식이 요구됨. 전문 용어가 빈번히 사용되고 있으며,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지문에서 제공하지 않아 고난도의 추론이 요구됨. 또한 선택지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학생들에게 유리함
- 지문 분량은 적지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추론의 난도가 높음. 선택지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지문의 내용을 계속 확인해야 하므로 문제풀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음

이를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논술문항이 고난도 문항의 성격을 포함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준거를 설정하여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위원회가 활용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V-3>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1	낮은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ex)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ex) 철학, 과학, 수학, 경제

3) 영어

교육부에서 제시한 ‘영어’ 고난도 문항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글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며, 문항을 풀기 위해서는 “과학자와 예술가의 현실을 추구하는 방법 차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가의 현실 추구 방법을 추론해야 함
- “감각적 인식과 이성적 지식의 차이”라는 **생소한 서양 철학의 추상적 개념과 내용**을 이해하여야 빈칸 추론이 가능함
- 빈칸을 포함한 문장이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어려운 문장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체감 난도가 높은 문항임
- ‘시간 흐름에 대한 이해’라는 **추상적인 개념**과 ‘기후 변화’라는 **일반적 소재**를 동시에 활용하여 학생들이 구문을 해석하더라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변호사 수임료 체계’라는 **생소한 소재**가 사용되어, **공교육에서 학습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법률 분야에 적합한 의미로 어휘를 파악**해야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음
- 문항을 풀기 위해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들이 부족함**
- ‘과학자에 대한 맹목적 신뢰는 지양하되 어느 정도의 신뢰는 필요하다’는 **추상적**이고 학생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난해한 내용**이며, **공교육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수준보다 복잡한 문장구조**로 되어 있음
- 문장 내 단서로 문제를 풀 수는 있으나, **문장 간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않고 단절**이 다소 있어 글의 논리적 관계 및 흐름을 파악하여 정답을 찾는 데 영향을 줌
- 의미 및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보다 단어 등 **단서를 활용한 풀이법** 등 ‘기술’을 활용할 경우, 더 쉽게 풀릴 수 있는 문항으로 보임

이를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논술문항이 고난도 문항의 성격을 포함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어’ 고난도 문항 판단 준거를 설정하여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위원회가 활용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IV-4> ‘영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영어’ 고난도 문항 기준	
1	글 내용의 추상성과 생소한 소재 사용 예) ‘감각적 인식과 이성적 지식의 차이’라는 생소한 서양 철학의 추상적 개념과 내용의 난해한 글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한 경우, 문장 간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않고 단절이 있는 경우 등
3	어휘 수준 및 언어 형식의 복잡성 예) 공교육에서 학습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법률 분야에 적합한 의미로 어휘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정답 도출을 위해 의미 파악이 가장 중요한 밑줄 친 부분을 포함한 문장의 길이가 길고, 이중 부정문(without, not knowing)이 포함된 복잡한 문장구조의 사용.

2. 소재가 명료하게 제시되는 교과서 등 문항과 관련된 내용 직접 수집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일부 인문·사회 계열의 경우, 내용적 요소는 성취기준을 통해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난이도와 학습 수준에 대한 평가는 성취기준만으로 충분히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보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 보완적 분석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교과서 및 문항의 내용과 유사한 고등학교 교수·학습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문항이 선행학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문의 경우 먼저 해당 자료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된 것인지 검토하였으며, 교과서 내에서도 기본 학습 내용에서 제시된 것인지, 혹은 ‘심화’, ‘더 알아보기’와 같은 추가 학습 요소로 제공된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교과서 외의 자료가 제시문으로 활용된 경우, 해당 지문의 개념과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평가 문항이 교육과정 내 학습을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지, 또는 별도의 선행학습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였다.

[그림 IV-3] 문항 소재와 관련된 교과서 분석을 통한 교육과정 준수 분석 예시(한국외국어대학교)

자료 속으로 ▶ 사례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성과급 제도는 자본가가 노동자를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성과급을 준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임금 총액이 변하는 법이 없다. 다만 자본가의 이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본가에게 유리한 성과급 보상 가운데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뿐이다. 결국 직원들이 노력하는 것은 자본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만 낳는다. 또한 성과급 제도가 시행되면 개인적 노력과 능력에 상관없이 자본가의 의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성과가 좋은 부서에 발령을 받아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과를 낼 수 없는 부서에 발령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자본가의 의도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노동자는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것이다. 성과급 제도는 회사 불평등을 심화하게 만들 수도 있다. 경쟁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유대 관계보다 지나친 경쟁과 갈등 관계가 형성되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 ▶ 결론 좋은 사람은 어떤 관점으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알게 보자. 135	비상교육의 사회·문화 교과서 135쪽에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해당 이유에 대해서 갈등론적 관점으로 전개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제시문 (가)에서도 의사의 성과급 제도를 부정적인 입장에서 서술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	--

3. 채점기준 분석 및 예시 답안 분석

위원회는 문항의 풀이 과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문항 자체뿐만 아니라 채점 기준도 함께 분석하였다. 특히, 채점 요소와 기준이 특정 유형의 선행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채점 기준이 공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평가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채점 과정이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적절한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채점 기준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 연구로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

[그림 IV-4] 채점 기준의 구체성 분석 사례(한국교육과정평가원)

3) ○○대_문항카드4_문제2
: 채점 기준의 주상성
'낮은 점수' 의 의미 불명확

역선택 문제	- 역선택 문제: 연금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자신의 기대 수명에 대해 판매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데서 발생함. 만일 판매자가 구매자의 기대수명의 평균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기대수명이 평균보다 짧은 사람들은 손실이 발생하여 연금상품을 구매할 유인을 상실한다. 이에 연금상품 판매자는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연금상품을 판매하는 자보다 구입하는 자가 자신의 기대 수명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 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명시적으로 기술하지 않으면 <u>낮은 점수를 부여.</u> ※ 기대수명이 평균보다 짧은 사람들은 연금상품을 구매할 유인이 낮아짐을 설명하지 않으면 <u>낮은 점수를 부여.</u>	15
--------	---	----

다음으로 채점기준과 예시 답안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IV-5]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의 연계성 분석 사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 ○○대_문항카드3_문제3

: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의 연계성 부족

【제시문 (나)와 (라)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그 문제 상황에 대해 (마)의 ㉠ 사회적 상황과 (바)의 ㉡ 인성통찰을 활용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함】

3-2

- 제시문 (나)와 (라)의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가?
- 제시문 (마)의 ㉠ 사회적 상황과 (바)의 ㉡ 인성통찰을 활용하여, 제시문 (나)와 (라)의 문제 상황에 대해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정해진 분량에 맞추어 정확한 문장으로 서술하였는가?

20

~ 핵심어 및 핵심 개념: 원초적 혐오, 투사적 혐오, 이주노동자, 사회적 상황론, 조속한 법적 지원, 문화적 자각, 인권통찰, 무시, 인성관계, 자기 행동, 자기 존중, 자기 가치 부여, 정체성, 존엄성

~ 제시 답안 참조

3-2 (나)는 유대인, 도축업자, 동성애자와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투사적 혐오를 고취·산동하여 배제, 차별, 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 상황이다. (라)는 이주 노동자를 배제하고 차별하여 폭력을 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죽음의 이유마저 무시하는 것이 문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사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권익인 (마)의 ㉠ 사회적 상황론과, 누군가 무시를 당했을 때 모두가 존엄성을 가진 존재로 상호인정하는 상태를 재건하려는 것이 정당하다는 (바)의 ㉡ 인정투쟁을 통해 누구도 무시나 혐오를 당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350자)

채점 기준에 제시된 핵심어 및 핵심 개념인 원초적 혐오, 법적 지원, 문화적 자각, 자기 믿음, 자기 존중, 자기 가치 부여, 정체성 등 다수의 개념이 예시 답안에 표현되지 않음

이를 바탕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논술 문항이 선행학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채점 요소와 예시 답안 분석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IV-5> 채점 요소와 예시 답안 분석 기준

채점 요소 분석 기준	
1	채점 요소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부합하는지
2	채점 요소가 고등학생이 수행 가능한 분석 방법 및 논리 수준에 부합하게 설정되었는지 ex)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나는 논증 방식(예: 고급 철학적 논의, 복잡한 학문적 연구 논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
3	문항을 해석하고 답안을 구상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요구되는 답안 분량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예시 답안 분석 기준	
1	예시 답안과 채점 요소의 연계성이 확보되었는지 ex) 채점 요소에 제시된 핵심어 및 핵심 개념이 예시 답안에 제시되어 있는지
2	예시 답안이 제한된 시간과 분량 내에서 구성 가능한 수준인지 ex) 채점 요소에서 요구하는 개념과 논리 구조가 해당 글자 수 내에서 효과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지

4. 문항 분석 결과

위 절차를 바탕으로 각 문항에 대한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인문 T1 결과

1. 문항의 선행학습유발 여부 분석 결과

가. 문항별 출제의도 및 평가요소 파악

문항	출제 의도	평가 요소 (자체 분석)
[문제 1]	[문제 1]에서는 (가)~(바)를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으로 분류 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 (라), (마)는 ‘긍정적 모방’으로, (나), (다), (바)는 ‘부정적 모방’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키워드를 바탕으로 6개의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고자 했다.	분류·요약 능력 요지 파악 능력
[문제 2]	[문제 2]에서는 ‘법고창신’에 관한 지문(보기 1)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와 AI 이미지에 관한 지문(보기 2)을 비교 하도록 했다. (가)의 리히텐슈타인은 <알제의 여인들>을 토대로 피카소의 도전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법고창신에 부합하지만, AI가 만든 지브리 풍 이미지는 외형적 모방에만 머무르고 지브리스튜디오가 추구한 가치를 계승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고창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제 2]에서는 이러한 차이 를 파악 하고 조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대조·평가 능력 요지 파악 능력
[문제 3]	[문제 3]에서는 오마주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케이팝데몬헌터스>를 다룬 제시문 (사)를 오마주라는 키워드로 적용·해석 하도록 했다. <보기 3>에서 제시된 오마주의 요건, 즉 의도성, 변형, 존경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사)에서 찾아낸 후 케데헌이 오마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추론 하도록 했다.	요약 능력 적용·추론 능력 요지 파악 능력

나. 문항별 성취기준 파악

1) [문제1]의 근거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분류·요약 능력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요지 파악 능력

2) [문제2]의 근거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대조·평가 능력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요지 파악 능력

3) [문제3]의 근거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요약 능력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적용·추론 능력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요지 파악 능력

2. 제시문 및 <보기>의 성취기준 및 교과서 연계 분석

1) 제시문 (가)

제시문 (가)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그러나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와 주제는 기존 예술 작품을 단순히 모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창의적 재해석의 태도에 관한 것이다. 이는 예술 창작에서 변형과 확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가)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미술과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 요소를 활용했다. 관련된 성취기준은 국어과의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와 미술과의 '[12미02-02]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이다. 이는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해석과 표현을 시도한 리히텐슈타인의 창작 태도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다음으로, 위원회가 설정한 고난도 문항 기준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해석과 표현을 시도한 창작 태도와 관련한 내용은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는 내용적 측면에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시문 (가)는 특정 전공 영역의 전문 용어나 고도의 미술사 지식을 요구하지 않고, 제시된 정보만으로도 핵심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가)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제시문 (나)

제시문 (나)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그러나 다루고 있는 핵심 주제는 SNS와 인플루언서의 영향 아래에서 나타나는 ‘디토 소비’가 개인의 소비 선택을 타인의 소비 패턴에 종속시키고, 그 결과 소비 문화와 시장 전반에 파급 효과를 낳는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가 단순한 구매를 넘어 사회적 영향과 책임의 문제로 확장된다’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

정에서 중요한 학습 요소로 활용된다. 관련 성취기준은 사회·문화의 ‘[12사문03-03]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와 ‘[12사문03-04]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탐구하고 문화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를 들 수 있으며, 이는 디토 소비가 확산되는 사회적 배경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데 밀접하게 연관된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핵심 주제는 SNS와 인플루언서를 매개로 타인의 소비 선택을 모방하는 ‘디토 소비’와 그로 인해 나타나는 소비 문화의 변화이다. 이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대중매체의 영향, 현대 소비 행태의 특징, 시장에서의 수요 변화와 관련하여 충분히 다루어진다. 또한 제시문에 등장하는 디토 소비는 새로운 용어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의미는 또래 집단이나 유명인의 영향으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교육과정 안에서 학습해 온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제시문 (나)는 내용적 측면에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제시문 (나)는 복잡한 경제 이론이나 수치 분석을 요구하지 않고, 제시된 설명을 바탕으로 현상의 성격과 문제점을 파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나)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제시문 (다)

제시문 (다)는 교과서 자료를 재구성한 자료이다.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와 주제는 타인의 행동이나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모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주체성 상실에 대한 성찰이다. 이는 개인의 사회화 과정 속에서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와 관련된 문제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학습 요소로 활용된다.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의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가 있다. 이는 맹목적 모방의 부작용과 문화 수용 태도의 중요성을 다룬 (다)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제시문 관련 고등학교 학습 내용 예시 자료>

제시문(다)는 미래엔 <사회·문화> 교과서 101쪽에 나오는 탐구활동 자료2를 재구성한 자료이다. 이는 문화 사대주의를 설명하여, 제시문(다)의 주제의식과 연계된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다)의 소재인 맹목적 모방과 그로 인한 주체성 상실의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관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제시문을 독해할 수 있으며, 이는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시문 (다)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고사(故事)를 소재로 활용하고 있고, 사건의 전개와 결론이 인과적으로 연결되어 본문 자체의 논리적 관계가 유기적이다. 따라서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다)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제시문 (라)

제시문 (라)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그러나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와 주제는 자연의 구조와 원리를 모방하여 기술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보다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에 대한 이해이다. 이는 기술 발전이 인간의 생활 방식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라)는 특히 기술 선택과

활용이 윤리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교육과정에서의 중요한 학습 요소들을 활용했다. 관련 성취기준은 생활과 윤리의 ‘[12생윤05-02]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윤리적 소비 실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를 들 수 있다. 이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방식을 추구하는 생체모방기술의 취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라)의 소재인 생체모방기술은 자연의 구조와 기능을 관찰하여 기술에 적용하는 발상으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 지속 가능한 발전의 필요성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미 접해 온 내용이다. 따라서 관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독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시문 (라)는 비행기, 거북선, 드론 등 구체적이고 친숙한 사례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연 관찰 → 기술 적용 → 사회적 가치라는 전개가 명확하여 본문 자체의 논리적 관계가 유기적이다. 따라서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라)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제시문 (마)

제시문 (마)는 교과서를 재구성한 자료이다. 핵심 소재는 기존 시의 형식과 표현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모방시의 창작 방식이다. 이는 문학 작품을 단순히 모방하거나 모사하는 데서 나아가, 원작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해석과 주제를 형성하는 창작 태도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마)는 특히 문학 작품의 상호 텍스트성과 변형을 통한 의미 생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자료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 요소들을 활용했다. 또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와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는 기존 작품의 형식과 구조를 차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 모방시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시문 관련 고등학교 학습 내용 예시 자료>

비상교육의 국어과 문학 교과서 85쪽에 문학 작품의 재구성 방법과 창작 방법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시를 제시문 (마)의 예시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비상교육의 국어과 문학 교과서 85쪽에 문학 작품의 재구성 방법과 창작 방법을 다루고 있다. 또한, 교과서에 제시된 시를 제시문 (마)의 예시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마)의 소재인 모방시는 기존 시의 형식과 표현을 활용하여 새로운 내용을 창작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상호 텍스트성, 패러디, 변용의 개념과 함께 이미 학습한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관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독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시문 (마)는 교과서에 제시된 작품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원작과 변형 작품의 대응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본문 자체의 논리적인 관계가 유기적이다. 따라서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마)는 고난도 문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6) 제시문 (바)

제시문 (바)는 교과서를 재구성한 자료이다. 핵심 소재는 양무운동이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외형적 모방에 머물러 근본적인 제도 개혁으로 나아가지 못한 한계이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과 새로운 문물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바)는 특히 근대화 운동의 성격과 한계를 이해하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자료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학습 요소를 활용했다. 관련 성취기준으로, ‘[12동사04-03] 동아시아 각국에서 서양 문물의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사상적 변화 사례를 비교한다.’가 있다. 이는 외형적 모방에 그친 양무운동의 성격과 그 한계를 이해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제시문 관련 학습 내용 예시 자료>

청과 일본, 근대화를 추진하다 개혁 과정에서 서구 열강의 강력한 군사력을 경험한 청은 양무운동을 추진하였다. 양무운동은 중세사상을 바탕으로 근대적 군수 산업과 서양식 군대를 키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체제 개혁 없이 서양의 기술만을 받아들였고, 지방 관료들이 독자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 효율성이 떨어졌다. 결국 청·일 전쟁에서 청이 일본에 패배하면서 양무운동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후 일부 청의 지식인들이 합헌 군주제 실시, 의회 설치 등 체제 개혁을 목표로 변법자강 운동을 추진하였다(1898). 그러나 이는 보수 세력의 반발로 실패하였고, 변법자강 운동을 주도한 세력은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동아출판 한국사1 교과서 107쪽에 동아시아의 개혁의 예시로 양무운동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이는 제시문 (바)와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
--	--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바)의 소재인 양무운동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근대화 운동의 사례로 이미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관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독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시문 (바)는 서양 문물의 수용이라는 친숙한 역사적 흐름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원인과 결과, 성과와 한계가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본문 자체의 논리적인 관계가 유기적이다. 따라서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바)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7) 제시문 (사)

제시문 (사)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그러나 핵심 소재와 주제는 과거 문화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한 재해석과 변형, 즉 오마주라는 문화적 창작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는 문화가 단절되지 않고 계승과 변용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중요한 학습 요소로 활용된다. 관련 성취기준은 사회·문화의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12사문03-03]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이다. 이는 과거 대중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오마주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사)의 소재인 대중문화의 계승과 변용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대중문화의 형성과 변화 양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관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독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시문 (사)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대중문화 사례를 활용하고 있으며, 과거 문화 요소와 현재 문화의 관계가 비교 방식으로 제시되어 본문 자체의 논리적인 관계가 유기적이다. 따라서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사)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8) <보기 1>

<보기 1>은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그러나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와 주제는 전통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거나 새로움만을 추구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전통과 변화를 통합적으로 수용하는 문화 인식 방식에 관한 것이다. 이는 문화가 단절이나 단순 모방이 아니라 계승과 변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보기 1>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 요소를 활용했다. 관련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의 '[12사문03-04]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탐구하고 문화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이다. 이는 전통과 새로움의 관계를 다루는 범고창신의 관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보기 1>의 소재인 범고창신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문화 변동과 문화 수용 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루지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관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독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기 1>은 두 입장의 문제점을 제시한 뒤 이를 통합하는 관점을 제안하고, 그 조건을 항목화하여 제시하고 있어 본문 자체의 논리적인 관계가 유기적이다. 그리고 따라서 <보기 1>은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9) <보기 2>

<보기 2>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그러나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와 주제는 외형적 모방과 본질적 가치의 차이, 그리고 창작에서 철학과 세계관이 지니는 의미에 관한 것이다. 이는 문화가 단순한 형식의 재현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를 포함한 산물이라는 점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보기 2>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문화 과목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 요소를 활용했다. 관련 성취기준은 사회·문화의 '[12사문03-03]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이다. 생성형 AI 이미지가 대중문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한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한 <보기 2>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보기 2>의 소재인 생성형 AI의 예술 모방 문제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대중매체와 기술 변화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관련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독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기 2>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외형적 모방과 본질적 가치의 차이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문제 제기와 근거 제시, 평가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어 본문 자체의 논리적인 관계가 유기적이다. 따라서 <보기 2>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10) <보기 3>

<보기 3>은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그러나 핵심 소재와 주제는 예술 창작에서의 ‘오마주(hommage)’ 개념과 그 성립 조건이다. 기존 작품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과, 존중과 변형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작 행위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이는 문화가 과거의 산물을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 계승과 변용을 통해 발전해 나간다는 점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보기 3>은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 요소를 활용했다. 관련된 성취기준은 사회·문화의 ‘[12사문03-04]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탐구하고 문화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이다. 이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새로운 맥락에서 재해석하는 오마주의 성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보기 3>은 영어로 제시된 설명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핵심 정보를 구조적으로 파악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영어I ‘[12영 I 03-02]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와 ‘[12영 I 03-03]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와도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글 내용의 추상성과 생소한 소재 사용 예) ‘감각적 인식과 이성적 지식의 차이’라는 생소한 서양 철학의 추상적 개념과 내용의 난해한 글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한 경우, 문장 간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않고 단절이 있는 경우 등			○	
3	어휘 수준 및 언어 형식의 복잡성 예) 공교육에서 학습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법률 분야에 적합한 의미로 어휘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정답 도출을 위해 의미 파악이 가장 중요한 밑줄 친 부분을 포함한 문장의 길이가 길고, 이중 부정문(without, not knowing)이 포함된 복잡한 문장구조의 사용.			○	

<보기 3>의 소재인 오마주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문화의 계승과 변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개념이다. 따라서 관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독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기 3>은 오마주의 성립 조건을 의도성, 변형, 존중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어, 내용 전개의 흐름이 명확하고 본문 자체의 논리적인 관계가 유기적이다. 따라서 <보기 3>은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3. 채점 요소와 예시답안 분석

1) 채점 요소 분석

문항	채점 요소	배점
문제 1	- 여섯 개의 제시문을 읽고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여섯 개의 제시문이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냐에 따라 (가), (라), (마)는 긍정적 모방으로, (나), (다), (바)는 부정적 모방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함 -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함	280
문제 2	- <보기 1>에 드러난 연암 박지원의 ‘법고창신’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토대로 (가)의 리히텐슈타인과 <보기 2>의 AI가 만든 지브리 풍 이미지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가)의 리히텐슈타인이 피카소의 작품을 재현하면서도 도전 정신을 계승하고 창의적 해석을 덧붙인 것에 반해, AI가 만든 지브리 풍 이미지는 지브리스튜디오가 추구해 온 가치 구현 없이 외형적 모방에 그쳤음을 이해해야 함 - 따라서 (가)의 리히텐슈타인은 법고창신의 정신에 부합하는 반면, <보기 2>의 AI 이미지는 법고창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 기술할 수 있어야 함	320
문제 3	- <보기 3>의 영어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가 어떤 측면에서 ‘오마주’에 해당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함 - <보기 3>에서 제시한 ‘오마주’의 세 가지 요건(의도성, 변형, 존중)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 <보기 3>을 제시문 (사)에 적용하여, 케데헌이 오마주에 해당하는 세 가지 근거를 모두 찾아내야 함 - 이를 토대로 제시문 (사)가 오마주의 사례임을 추론해야 함	400

본 문항의 채점 요소는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과 사고 과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생의 이해 수준과 사고 능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문제 1]에서는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이라는 두 개의 핵심 키워드를 정확히 도출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후 각 제시문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해당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하도록 한다. 이는 복수의 제시문에서 공통 기준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분류·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독서 영역에서 다루는 분류·요약 및 요지 파악 능력에 부합한다.

[문제 2]에서는 <보기 1>에 제시된 연암 박지원의 ‘법고창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지를 평가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리히텐슈타인 작품과 <보기 2>의 AI가 만든 지브리 풍 이미지가 각각 어떤 점에서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도록 요구한다. 특히 제시문 (가)가 기존 작품을 재현하면서도 도전 정신과 창의적 해석을 계승한 사례인 반면, <보기 2>의 AI 이미지는 지브리스튜디오가 추구해 온 가치와 철학을 구현하지 못한 외형적 모방에 해당함을 비교·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하나의 개념을 기준으로 두 사례를 대조·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수준에서 요구되는 비교·평가 능력에 해당한다.

[문제 3]에서는 <보기 3>에 제시된 영어 지문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사)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오마주에 해당하는지를 추론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위해 오마주의 세 가지 요건인 의도성, 변형, 존중을 정확히 이해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문 (사)에 모두 적용하여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는 제시된 개념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해 판단하는 사고 과정을 요구하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적용·추론 능력과 요지 파악 능력에 부합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각 문항의 채점 요소는 분류·요약, 비교·분석, 적용·추론이라는 단계적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예시답안 분석

[문제 1] (400자 내외)

제시문 중 (가), (라), (마)는 긍정적 모방으로, (나), (다), (바)는 부정적 모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는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리히텐슈타인의 창작 사례를 제시한다. (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생체모방기술을 설명하고, (마)는 원작의 의미·정서·구조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모방시를 소개한다. 한편, (나)는 유통 채널 전반에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디토 소비를 다루고 있으며, (다)는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맹목적으로 따라 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한다. (바)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서구의 외형만을 모방하여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양무운동의 역사를 소개한다. (395자)

[문제 2] (450자 내외)

<보기 1>에서 언급된 연암의 ‘법고창신’은 옛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 줄 알아야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두 제시문에 적용해 보면, (가)의 리히텐슈타인은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기존 작품에 팝아트적인 해석을 새롭게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조건 1을 충족한다. 또한 피카소가 지녔던 도전 정신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조건 2도 만족한다. 한편 <보기 2>의 AI는 창의적인 요소를 더하지 않고 지브리의 화풍 등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점에서 조건 1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지브리의 외형적 특징만을 재현할 뿐, 지브리가 추구해 온 자연과 인간의 조화, 내면적 성장과 같은 근본적 가치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건 2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히텐슈타인은 법고창신을 실천한 데 반해, AI는 법고창신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443자)

[문제 3] (500자 내외)

<보기 3>의 오마주란 예술가 혹은 예술 작품에 대한 의식적 찬사를 의미한다. 어떤 대상이 진정한 오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오마주는 작가가 의도한 것 이어야 한다. 둘째, 오마주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창조적 변형을 수반한다. 셋째, 오마주는 기존 작품에 대한 존경을 토대로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케데헌>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사)에 따르면 <케데헌>의 제작진은 저고리 시스터즈와 김 시스터즈와 같은 실제 걸그룹을 치밀한 고증을 통해 의도적으로 등장시켰다. 그러면서도 과거 걸그룹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현대적 감각과 판타지적 스토리를 더해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 또한 감독이 밝혔듯이 <케데헌>에는 K팝의 뿌리였던 과거 걸그룹과 오늘날의 케이팝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해 볼 때 <케데헌>은 <보기 3>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오마주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495자)

예시답안은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채점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문제 1]의 예시답안은 여섯 개의 제시문을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이라는 기준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고 있다. 제시문 (가), (라), (마)를 긍정적 모방으로, 제시문 (나), (다), (바)를 부정적 모방으로 구분한 뒤, 각 제시문이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이유를 핵심 내용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각 제시문을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재해석’, ‘삶을 윤곽하게 함’, ‘의미·정서의 확장’, ‘문제점 초래’, ‘맹목적 추종’, ‘외형적 모방’과 같은 핵심 표현을 사용해 분류 기준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어 채점 요소에서 요구하는 분류·요약 능력이 효과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문제 2]의 예시답안은 <보기 1>에 제시된 ‘범고창신’의 두 가지 조건을 정확히 제시한 뒤, 이를 분석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시문 (가)의 리히텐슈타인이 기존 작품에 새로운 해석을 더했다는 점에서 조건 1을, 도전 정신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조건 2를 충족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보기 2>의 AI 이미지에 대해서는 창의적 요소의 부재와 근본적 가치의 결여를 근거로 두 조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지적한다. 두 사례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대조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채점 요소에서 요구한 비교·분석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문제 3]의 예시답안은 <보기 3>에서 제시된 오마주의 개념과 세 가지 조건을 정확히 정리한 뒤, 이를 제시문 (사)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제작진의 의도적 차용을 통해 ‘의도성’을, 현대적 재해석과 판타지적 요소 추가를 통해 ‘변형’을, 과거 걸그룹과 케이팝에 대한 존중과 애정을 통해 ‘존중’을 각각 근거로 제시한다. 이후 세 조건을 종합해 제시문 (사)가 오마주의 사례에 해당함을 결론짓고 있어, 개념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해 판단하는 적용·추론 능력이 충실히 구현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예시답안은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분류·비교·적용하는 논리 구조를 갖추고 있다. 또한, 제시된 분량 내에서 핵심 근거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제한된 시간 내에 고등학생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사회 T2 결과

1. 문항의 선행학습유발 여부 분석 결과

가. 문항별 출제의도 및 평가요소 파악

문항	출제 의도	평가 요소 (자체 분석)
[문제 1]	[문제 1]에서는 ‘능동’과 ‘수동’, 두 제시어에 기초해 (가)~(바)를 분류 하고 각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 하도록 했다.	분류·요약 능력 요지 파악 능력
[문제 2]	[문제 2]에서는 <보기>에서 ‘핵심 학습 역량’의 구성요소를 파악한 후, 이를 (가)와 <보기 2>의 학습자에 적용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고 두 학습자의 학습 역량을 비교·평가 하는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비교·평가 능력 요지 파악 능력
[문제 3]	[문제 3]에서는 제시문 (나)와 <표>·<그림>을 기초로 제시된 두 요인인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과 ‘직원 연봉’ 중 어떤 것이 더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론 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자료 해석 능력 적용·추론 능력 요지 파악 능력

나. 문항별 성취기준 파악

1) [문제 1]의 근거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분류·요약 능력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12미03-01] 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미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요지 파악 능력

2) [문제 2]의 근거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비교·평가 능력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요지 파악 능력

3) [문제 3]의 근거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자료 해석 능력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적용·추론 능력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요지 파악 능력

2. 제시문 및 <보기>의 성취기준 및 교과서 연계 분석

1) 제시문 (가)

제시문 (가)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제시문이다. 그러나 핵심 소재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모델인 ‘질문하는 학교’이며, 주제는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과 상호 토론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고, 협력을 통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이는 디지털 기반의 정보 환경에서 자료의 정확성을 능동적으로 검증하고 논리적으로 소통하는 능력과 관련된 내용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가 있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가)의 소재인 ‘질문하는 학교’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역량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강조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및 비판적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뉴스나 교육 관련 매체를 통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친숙한 내용이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AI 기반 질문 중심 학습 모델’, ‘협력적 문제 해결 역량’ 등의 용어는 본문 내에서 그 의미가 충분히 설명되어 있어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시문 (가)는 교육 계획의 목표와 기대 효과를 논리적이고 명료한 문장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보 간의 관계가 직관적이고 전개

방식이 사실적이어서 본문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도 핵심 주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난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심화된 과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교육적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다루는 글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으므로,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제시문 (가)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제시문 (나)

제시문 (나)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제시문이다. 핵심 소재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실험을 통해 도출된 ‘학습된 무기력’이며, 주제는 반복적인 실패나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경험이 누적될 경우 새로운 시도나 환경 개선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사회적 관계나 조직 내에서 겪는 경험이 행동 양식과 자아 형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내용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 ‘[12독서 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 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가 있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나)의 소재인 ‘학습된 무기력’은 고등학교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자아 형성 및 심리적 요인을 다룰 때 자주 언급되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본문에서 셀리그먼의 실험 과정을 통해 해당 용어의 정의와 도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시문 (나)는 실험의 결과로부터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기업 조직 등의 사회 현상에 적용하는 논리적 흐름이 매우 선명하다. 복잡한 심리학적 배경지식이나 고도의 추론 과정 없이도 제시된 정보 간의 인과관계만으로 충분히 주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나)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제시문 (다)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재구성한 제시문이다. 핵심 소재는 ‘윤리적 소비’이며, 주제는 소비자가 주체성을 바탕으로 환경, 노동, 인권, 동물 보호 등의 가치를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고 시장의 흐름을 주도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와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환경 보호를 위한 능동적 실천과 관련된 내용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및 사회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는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가 있다.

<제시문 관련 고등학교 학습 내용 예시 자료>

	신사고 고등학교 독서 교과서 28~29쪽에서 ‘윤리적 소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 (다)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천재교육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과서 155쪽에서 ‘윤리적 소비’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제시문 (다)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0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0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0	

제시문 (다)의 소재인 ‘윤리적 소비’와 그로 인한 시장 변화의 문제는 고등학교 『통합사회』 교육과정에서 소비자의 역할과 권리 및 책임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관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수월하게 지문을 독해할 수 있으며, 이는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시문 (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한 평이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복잡한 경제학적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다)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제시문 (라)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김수영의 시를 활용한 문학 제시문이다. 핵심 소재는 ‘소시민적 자아의 비겁함에 대한 성찰’이며, 주제는 거대한 사회적 부조리나 권력에는 침묵하면서 일상적인 사소한 일에만 분개하는 자신의 수동적이고 편협한 태도를 비판하고 성찰하는 것이다. 이는 문학을 통한 인간 삶의 성찰 및 사회·문화적 배경과 문학의 관계를 다루고 있어,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는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가 있다.

<제시문 관련 고등학교 학습 내용 예시 자료>

	지학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222~223쪽에 제시문 (라)의 시가 수록되어 있다.
---	---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대표적인 현대시로, 소시민의 자아 성찰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룬다. 작품에 사용된 용어들은 일상적이며, ‘왕궁’과 ‘50원짜리 갈비’의 대비 등 시적 상황이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어 **낮선 전문 용어 사용이나 고난도 추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학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자아 성찰’과 ‘사회·문화적 배경의 이해’라는 성취기준 내에서 충분히 해석 가능하므로, **타 분야의 특수한 배경지식이 필요한 문항이 아니다**. 따라서 제시문 (라)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제시문 (마)

제시문 (마)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제시문이다. 핵심 소재는 ‘지리적 특성’이며, 주제는 인류의 역사, 정치, 사회적 발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의 지리적 요건에 의해 제약받고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리적 환경과 인간 삶의 상관관계를 탐구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는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며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가 있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마)는 지리적 요인이 인류 문명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으나, 전문적인 지리학 이론 대신 강, 산, 사막 등 친숙한 지리 요소를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 『독서』의 사실적·추론적 읽기 성취기준과 부합하며, 지문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제공되므로 **낮선 용어나 고난도 추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통합사회 등에서 배우는 지리적 환경에 대한 기본 이해만으로 독해가 가능하여 **타 분야 배경지식의 영향력이 낮으므로**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제시문 (바)

제시문 (바)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제시문이다. 핵심 소재는 ‘이중섭의 소’이며, 주제는 고난과 역경을 견뎌낸 민중의 초상이자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능동적 의지를 소의 형상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미술 작품이 생성된 맥락을 이해하고 텍스트의 정보를 파악하는 내용

을 담고 있어, 고등학교 국어과 및 미술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는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미03-01] 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미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가 있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바)의 소재인 ‘이중섭의 소’는 한국 근현대 미술의 상징적인 작품으로, 고등학교 『미술』 교육과정에서 미술 작품이 생성된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접하게 되는 친숙한 소재이다. 제시문에 사용된 용어들은 인내, 끈기, 희망 등 일상적이고 평이한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어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글은 이중섭의 삶과 작품의 특징, 그리고 소의 형상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인과관계에 따라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추가적인 미술사적 지식 없이도 지문 내에 제공된 정보만으로 핵심 주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텍스트의 구조가 유기적이고 논리적이어서 고등학교 수준의 독해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복잡한 단계의 추론 없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제시문 (바)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7) <보기 1>

<보기 1>의 출처는 교과서 외부 자료이나,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와 그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학습 역량’을 소재로 다룬 글이다. 주제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해진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타인과의 협업이라는 세 가지 핵심 역량의 구체적인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성취기준 중,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보기 1>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타인과의 협업이라는 ‘핵심 학습 역량’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소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강조하는 핵심 역량이며,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상시적으로 접하고 실천하는 보편적인 개념이다. 제시문에 등장하는 각 역량의 정의가 명확하고 평이하게 서술되어 있어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세 가지 역량의 필요성과 구체적 정의를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본문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므로,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난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교육학적 심화 지식이 없더라도 국어 독해력만으로 충분히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보기 1>은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보기 2>

<보기 2>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글이다. 핵심 소재는 ‘AI 의존에 따른 인지적 오프로딩(cognitive offloading)’이며, 주제는 AI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비판적 사고 능력을 저하시키고 스스로 해답을 탐구하지 않는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유발한다는 경고를 담고 있다. 이는 현대 기술 환경 속에서 정보 수용의 주체성을 유지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해야 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성취기준 중,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보기 2>는 AI 의존에 따른 ‘인지적 오프로딩(cognitive offloading)’ 현상을 소재로 삼고 있다. 용어 자체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으나, 지문 내에서 ‘외부 도구에 사고를 맡기려는 경향’이라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AI 사용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다루는 내용은 고등학교 『독서』의 비판적 읽기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학생들에게 친숙한 주제이다. AI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비판적 사고가 감소하고 수동적인 학습 태도를 갖게 된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정보 기술이나 뇌과학에 관한 특수한 배경지식 없이도 지문 속에 제시된 논리적 흐름만으로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보기 2>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8) <표>, <그림 1> ~ <그림 2>

<표> 및 <그림 1>, <그림 2>는 두 기업(A기업, B기업)의 지표 비교를 통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 요인’을 다룬 자료이다. 주제는 높은 연봉보다 직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가 장기적인 매출 성장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도표와 그래프에 나타난 정보를 해석하고 사회적 경제 주체의 역할을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등학교 국어과 및 사회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는 ‘[12독서 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가 있다.

<표> 및 <그림 1>, <그림 2>는 두 기업의 지표 비교를 통해 기업의 성장 요인을 분석하는 자료이다. ‘아이디어 채택률’, ‘평균 연봉’, ‘매출액’ 등 일상적이고 경제생활의 기초적인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어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고등학교 『통합사회』에서 기업가의 역할과 혁신을 다루는 교육과정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도표와 그래프는 수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아이디어 채택률이 높을수록(혁신적일수록) 장기적인 매출 성장이가파르다’는 결론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복잡한 경제학적 수식이나 고도의 데이터 분석 능력이 아닌 기초적인 자료 해석 능력만으로 파악 가능하므로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경제 분야의 심화 배경지식 없이도 자료에 나타난 대비적 특징을 통해 주제를 도출할 수 있으므로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 자료들은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점 요소와 예시답안 분석

1) 채점 요소 분석

문항	채점 요소	배점
문제1	- 제시문 (가), (다), (바)는 ‘능동’으로, (나), (라), (마)는 ‘수동’으로 분리해야 함 - 각 제시문의 핵심내용이 ‘능동’ 또는 ‘수동’을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80
문제2	- <보기 1>의 핵심 학습 역량이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타인과의 협업임을 도출해야 함 - 위 세 조건을 제시문 (가)와 <보기 2>에 적용하여 (가)의 경우 학습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능동적이며,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협력한다는 점에서 핵심 학습 역량에 부합한다는 점을 기술해야 함 - 그리고 <보기 2>의 경우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며,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핵심 학습 역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해야 함	320
문제3	- <표>와 (나)에 기초해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과 제시문 (나)를 연결하여 ‘학습된 무기력’의 발생 과정을 파악하고 이것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기술해야 함 - <표>, (나), <그림 1>에 기초해,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 측면에서는 B기업이, 직원 연봉 측면에서는 A기업이 더 우월함을 파악해야 함 - 상기 영향 요인들과 <그림 2>의 매출액 결과를 연결하여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이 연봉보다 매출액 증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침을 추론해야 함	400

[문제 1]은 6개의 다양한 제시문을 ‘능동’과 ‘수동’이라는 대립적 핵심 키워드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논지를 해당 키워드 중심으로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 (가) ‘질문하는 학교’, 제시문 (다) ‘윤리적 소비’, 제시문 (바) ‘이중섭의 소’를 ‘능동’의 범주로, 제시문 (나) ‘학습된 무기력’, 제시문 (라) ‘소시민적 성찰’, 제시문 (마) ‘지리의 제약’을 ‘수동’의 범주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분류된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키워드와 연결하여 체계적으로 요약 기술해야 한다. 이는 고등학교 국어과 성취기준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에 부합한다.

[문제 2]는 <보기 1>에서 정의한 미래 사회의 핵심 학습 역량을 제시문 (가)와 <보기 2>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하는 역량을 평가한다. <보기 1>의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협업이라는 역량이 제시문 (가)의 질문 중심 학습 모델에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서술해야 한다. 반대로 <보기 2>의 AI 의존 상황이 왜 이러한 역량에 부합하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이 문항은 국어과 교육과정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와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는 성취기준을 충실히 반영한다.

[문제 3]은 제시문 (나)의 심리학적 개념을 <표>와 <그림 1>, <그림 2>의 기업 지표에 연결하여, 혁신 요인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 아이디어 채택률이 낮은 A기업의 사례를 제시문 (나)의 ‘학습된 무기력’ 발생 과정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B기업의 높은 아이디어 채택률이 <그림 2>에서 나타나는 매출액 증가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추론해야 한다. 이는 국어과 성취기준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및 사회과 성취기준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

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각 문항의 채점 요소는 분류·요약, 비교·분석, 적용·추론이라는 단계적 사고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예시답안 분석

[문제 1] (400자 내외)

제시문 (가), (다), (바)는 ‘능동’으로, (나), (라), (마)는 ‘수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능동’을 살펴보면, (가)의 질문하는 학교는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학교이고, (다)의 윤리적 소비는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며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능동적 소비이며, (바)에서 그림의 소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한편 ‘수동’을 살펴보면 (나)의 학습된 무기력은 상황 개선을 시도하지 않는 수동적 태도이고, (라)의 ‘나’는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켜서 있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마)는 지리적 특성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지배적 요소이고, 인간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402자)

[문제 2] (450자 내외)

<보기 1>에서 제시한 핵심 학습 역량은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타인과의 협업이다. 이를 제시문 (가)에 적용해 보면, 질문하는 학교의 학습자는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며, AI가 제공하는 답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확성을 검증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높이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협력한다는 점에서 핵심 학습 역량에 부합하는 학습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보기 2>의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학습자는,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며,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없이 AI에게만 묻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핵심 학습 역량에 부합하는 학습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449자)

[문제 3] (500자 내외)

<표>에 따르면, B기업의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이 A기업보다 월등히 높다. 이를 (나)에 적용해 볼 때, A기업은 직원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업무 의욕을 잃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매출액 증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그림 1>을 보면, A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이 B기업보다 상당히 높다. 정리하면,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 측면에서는 B기업이, 직원 연봉 측면에서는 A기업이 더 우월하다. 한편 <그림 2>를 보면, A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거의 증가하지 못했지만, B기업의 경우 매출액에 큰 증가가 있었다. 이는 A기업의 경우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기업 성과가 안 좋았던 반면, B기업의 경우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높은 업무 의욕으로 인해 기업 성과가 좋았음을 시사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이 연봉보다 매출액 증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504자)

예시답안은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채점 요소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먼저 [문제 1]의 예시답안은 채점 기준에서 요구한 이분법적 분류 체계를 완벽하게 이행하고 있다. 예시답안은 제시문 (가), (다), (바)를 ‘능동’으로, 제시문 (나), (라), (마)를 ‘수동’으로 범주화하였으며, 각 제시문이 해당 범주에 속하는 이유를 본문의 핵심 논지와 연결하여 서술하고 있다. 특히 능동적 주체로서의 학생과 소비자, 그리고 강인한 의지를 지닌 자아의 모습을 ‘스스로’, ‘능동적’, ‘의지’ 등의 키워드로 정리하고, 이에 대비되는 수동적 태도와 소극적 대응, 환경적 제약을 적절한 어휘로 요약하여 분류의 선명성을 높였다. 이는 국어과의 사실적 읽기 역량을 적절하게 평가하고 있다.

[문제 2]의 예시답안은 추상적인 핵심 역량을 구체적인 사례에 대조하여 분석하는 역량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예시답안은 <보기 1>의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타인과의 협업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명확히 도출하였으며, 이를 제시문 (가)의 질문 중심 학습 모델과 <보기 2>의 인공지능 의존 상황에 정교하게 대입하였다. 특히 제시문 (가)의 학습자가 보여주는 질문 던지기와 답변 검증 과정을 핵심 역량과 논리적으로 연결한 반면, <보기 2>의 상황을 수동적 대응과 무비판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대조 분석의 명확성을 확보하였다. 이는 국어과 성취기준에서 강조하는 비판적 사고 및 정보 전달 역량 평가에 부합하는 답안이다.

[문제 3]의 예시답안은 텍스트 정보와 통계 자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타당한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있다. 예시답안은 제시문 (나)의 ‘학습된 무기력’ 개념을 A기업의 낮은 아이디어 채택률 상황에 적용하여, 조직 내 심리적 기제가 경제적 성과 정체로 이어지는 과정을 인과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표>와 <그림 1>, <그림 2>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A기업의 높은 연봉보다 B기업의 높은 아이디어 채택률이 매출 성장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명확히 도출하였다. 이는 국어과 및 사회과의 자료 해석 및 추론 능력을 변별력 있게 평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예시답안은 채점 요소의 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있으며, 각 문항이 의도한 사고의 단계와 논리적 구조를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또한, 제시된 분량 내에서 핵심 근거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서술되어 있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모범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인문 T3 결과

1. 문항의 선행학습유발 여부 분석 결과

가. 문항별 출제의도 및 평가요소 파악

문항	출제 의도	평가 요소 (자체 분석)
[문제 1]	[문제 1]에서는 (가)~(바)를 핵심어인 ‘단일’과 ‘다중’으로 분류하고 각각을 요약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나), (다), (마)는 ‘단일’로 (가), (라), (바)는 ‘다중’으로 분류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핵심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요약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분류·요약 능력 요지 파악 능력
[문제 2]	[문제 2]에서는 (다)의 단일 시점과 (바)의 다시점을 구분하여 비교·평가 하도록 했다. 두 가지 측면의 비교·평가 기준은 <보기> 내용에 기초하여 찾도록 했으며, 시점 유형별로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에 따라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남을 파악 하도록 했다. (다)와 (바)의 차이점은 제시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서술하도록 했다. 이 둘을 시점 유형별로 두 가지 측면에서 분류하여, 첫째, 표현 방식에 따라 (다)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분적으로 드러내고 (바)는 전체적으로 조망함을 구별하도록 했다. 둘째, 미적 효과에 따라 (다)는 보는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몰입감을 제공하고 (바)는 보는 사람의 시선을 확장하게 함으로써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됨을 구별하도록 했다.	대조·평가 능력 요지 파악 능력
[문제 3]	[문제 3]에서는 SF소설의 특징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추론 하도록 했다. <보기 1>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마)와 <보기 2>에서 제시된 인재상 중 누가 더 SF 장르에 적합한지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기 1>에서는 SF소설의 두 가지 특징을 제시했으며, 이를 (마)와 <보기 2>의 인물에 각각 적용하여 <보기 2>의 다빈치가 SF 소설 작가에 더 적합한 인재임을 도출 하도록 했다.	요지 파악 능력 적용·추론 능력

나. 문항별 성취기준 파악

1) [문제1]의 근거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분류·요약 능력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요지 파악 능력

2) [문제2]의 근거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대조·평가 능력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요지 파악 능력

3) [문제3]의 근거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요지 파악 능력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적용·추론 능력

2. 제시문 및 <보기>의 성취기준 및 교과서 연계 분석

1) 제시문 (가)

제시문 (가)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자료이다.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와 주제는 여러 인공지능이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소통·협력하여 복잡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의 작동 방식과 그 효과이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기술 발달이 만들어 내는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의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가 있다. 이는 협업 구조를 갖춘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현상을 그 특성과 관점에 따라 파악·설명하도록 하는 (가)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가)의 소재인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과 인공지능 협업 구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이해하는 맥락에서 접근 가능한 내용이다. 따라서 관련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시문 (가)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의 특징을 ‘역할 분담, 경험 공유, 교차 검증’ 등으로 설명하며, 제시문 자체의 정보만으로 핵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시문 (가)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가)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제시문 (나)

제시문 (나)는 교과서 자료를 재구성한 자료이다.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와 주제는 시장에 공급자가 하나만 존재하는 독점 시장의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격 결정 방식 및 소비자 후생의 저하이다. 이는 경쟁이 제한된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현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나)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중 경제 과목의 중요한 학습 요소를 활용했다.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경제의 ‘[12 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가 있다. 이는 독점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가격과 생산량을 조절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고,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과정을 설명한 제시문 (나)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제시문 관련 고등학교 학습 내용 예시 자료>

> 불완전한 경쟁 시장 경제 체제는 자유로운 경쟁을 바탕으로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쟁하기보다 독점이나 과점 등과 같은 불완전한 경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통해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만큼의 재화나 서비스를 충분히 소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소수인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들이 부당한 공동 행위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기능이 왜곡되기도 한다. 과점 시장의 기업이 담합하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기업이 거래 상대방 차별, 경쟁 사업자 배제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이 제한되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수 있다.	비상교육의 경제 교과서 79쪽에 시장실패와 불완전한 경쟁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다. 제시문 (나)에서 독점 시장이라는 동일한 소재가 사용되고 있다.
--	--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나)의 소재인 독점 시장은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경제 교과서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지고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관련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독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시문 (나)는 독점 시장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후생 저하를 정의와 설명, 사례 제시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문 자체의 논리적인 관계가 유기적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나)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제시문 (다)

제시문 (다)는 교과서를 재구성한 자료이다. 작품의 주제는 타인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모방한 결과 개인이 신체적 자유와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성찰이다. 이는 문학 작품을 통해 인간의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성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

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다)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학 영역의 중요한 학습 요소를 활용했다.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국어의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가 있다. 이는 인물의 행동 변화와 그로 인한 결과가 서사 구조 속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제시된 제시문 (다)의 내용과 연관된다.

<제시문 관련 고등학교 학습 내용 예시 자료>



지학사의 문학 교과서 254쪽에 오상원의 유예 작품 일부가 실려 있다. 제시문 (다)와 동일한 작품으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소재이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다)의 소재인 맹목적 모방과 그로 인한 주체성 상실은 고등학교 국어과 문학 교육과정에서 작품 속 인물의 행동과 결과를 통해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시문 (다)는 인물의 행동과 그 결과가 서사적으로 제시

되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분명하며, 작품 내부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제시문 (다)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다)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4) 제시문 (라)

제시문 (라)는 교과서를 재구성한 자료이다. 핵심 소재와 주제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의 관점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 학문적 관점을 넘나들며 사고하는 통섭의 필요성과 그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는 설명문을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정의하고, 사례와 논지를 통해 의미를 확장해 나가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라)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독서 영역의 중요한 학습 요소를 활용했다.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국어의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가 있다. 이는 통섭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 사례와 논지를 제시한 제시문 (라)의 내용을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제시문 관련 고등학교 학습 내용 예시 자료>

자료 속으로 사례 통섭형 인재의 시대! 14~16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는 이를 그대로 재생과 부활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문학과 사상, 미술, 건축, 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문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활약한 인물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독 두드러진다. 미술가로서는 물론이고 과학자, 기술자, 사상가로서 상당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21세기형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목받고 있다. 인문학과 공학 지식을 두루 갖춘 '통섭형 인재'에 눈길이 쏠리는 것이다. 통섭(統攝)이란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라는 뜻으로, 인문학·사회 과학·자연 과학을 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연구이다. 기존의 인문학만 탐구도 학문 간 소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통섭에 가까운 접근이지만, 본과 학문 사이의 경계를 뛰어넘는 영역 간의 '융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통섭은 인문학만 탐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통합 학문적 개념이다. 통섭형 인재는 한 우물을 파는 '전문가'와 구분된다. 인문학과 자연 과학, 사회 과학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통섭형 인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는 혁신 정보 기술(IT)의 선두에 서 있었지만 언제나 인문학을 강조하였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 철학은 우리 회사의 유전자(DNA)에 내재해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결과를 내는 것은 인문학과 결합한 기술인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의 명언으로 남아 있다. 통섭형 인재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살펴 보고, 오늘날 통섭형 인재가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미래엔의 사회문화 교과서 14쪽에 통섭형 인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는 제시문 (라)에서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통섭'을 국어 교과뿐만 아니라 여러 교과에서 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라)의 소재인 통섭과 다각적 사고는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설명문의 주제와 전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시문 (라)는 통섭의 필요성 제시 → 사례 설명 → 통섭의 의미 재정의라는 구조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어, 본문 자체의 논리적인 관계가 유기적이다. 따라서 제시문 (라)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라)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5) 제시문 (마)

(마)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자료이다.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와 주제는 한 교수가 자가 포식 (autophagy)이라는 하나의 연구 주제에 오랜 기간 꾸준히 매진하여 학문적 성과를 이루어 낸 과정과 그 의미이다. 제시문은 자가 포식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한 뒤, 오스미 교수가 수십 년에 걸쳐 단일 연구를 지속하며 관찰과 실험을 통해 연구를 심화해 온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설명문을 통해 한 인물의 연구 과정과 성과를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마)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독서 영역에서 중요한 학습 요소로 활용된다.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국어의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가 있다. 이는 과학 연구 성과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개념 설명과 인물의 연구 과정을 서술한 (마)의 내용을 이해하고, 글의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읽기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마)의 소재인 과학자의 연구 과정과 성과는 고등학교 국어과 독서 교육과정에서 설명문과 기사문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마)는 자가 포식의 개념 설명과 연구 경과가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되어 있어 정보 간의 관계가 명확하며, 본문 자체의 논리적인 관계가 유기적이다. 따라서 (마)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 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6) 제시문 (바)

제시문 (바)는 교과서를 재구성한 자료이다.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와 주제는 20세기 초 서양미술 사조인 입체파의 표현 방식과, 이를 통해 대상을 단일한 시점이 아닌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관점이다. 이는 설명문을 통해 예술 사조의 특징과 의미를 파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바)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독서 영역의 중요한 학습 요소를 활용했다.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독서의 ‘[12독서 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가 있다. 이는 입체파의 표현 방식과 그 의미를 설명한 제시문 (바)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글에 제시된 핵심 정보를 바탕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읽기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제시문 관련 고등학교 학습 내용 예시 자료>

 ▲ 작품명 피카소, 『알아 있는 사람』, 1899~1902년 작 고 기하학적인 요소들을 결합하려 했다면, 입체파는 감각적인 면보다 기하학적인 화면 구성을 더 강조한 것이다. 피카소의 작품 『알아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그림 속 인물이 형태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석·해체되어 있어, 마치 기하학적 형태들로 만든 사람 모형처럼 보인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형태들을 뒤죽박죽으로 섞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입체파 그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화면의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달라진다. 이것은 관찰하는 대상을 완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쥘루와우 등의 모든 시점에서 본 형태와 색채들을 종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에서만 대상을 파악한 1점 원근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원근법의 방식과 다르게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한다. 우리의 눈은 쥘루와우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물체와 공간을 파악하고, 그 전체의 모습을 구성해 낸다. 입체파의 방식은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점으로 물체를 나타내고 공간을 구성하려 한 것이다. 세잔과 입체파의 작품들은 기존과 다른,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다. 우리도 이들과 그림을 새로운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가령 지금까지 『무엇』을 그렸는가의 관점에서 주로 그림을 감상해 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 내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그림을 감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관점을 지니면 전혀 다른 미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책신사고의 독서 교과서 130쪽에 ‘입체파 그림의 특징’에 대한 글이 제시된다. 이는 제시문 (바)와 유사한 소재이다.
---	---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바)의 소재인 입체과 미술의 표현 방식은 고등학교 국어과 독서 교육과정에서 설명문의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제시문 (바)는 입체과의 특징을 작품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관찰 방식의 변화가 인식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논지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본문 자체의 논리적인 관계가 유기적이다. 따라서 제시문 (바)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제시문 (바)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7) <보기>

<보기>는 교과서 외부 자료이다. 하지만 핵심 소재와 주제는 관찰자의 위치 설정에 따라 작품의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며, 이를 단일 시점과 다시점의 대비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예술 작품의 표현 방식이 감상의 방향과 의미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보기>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학 영역의 중요한 학습 요소를 활용했다.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국어의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가 있다. 이는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표현 방식과 그로 인한 미적 효과를 이해하고 감상하도록 한 <보기>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보기>의 소재인 시점에 따른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의 차이는 고등학교 국어과 문학 교육과정에서 작품 감상의 관점으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기>는 시점의 정의를 제시한 뒤 단일 시점과 다시점의 특징과 효과를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어, 본문 자체의 논리적인 관계가 유기적이다. 따라서 <보기>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8) <보기 1>

<보기 1>은 과학소설(science fiction)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한 영어 설명문이다.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와 주제는 현재의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를 상상하고, 그 속에서 인간의 삶과 존재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과학소설의 문학적 성격이다. 제시문은 과학소설이 과학과 인문학을 결합하여 현실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과, 현재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한다는 점에서 다른 장르와 구별됨을 설명한다. 또한, 김초엽 작가의 작품을 사례로 들어 과학적 연구와 인간에 대한 고찰이 문학적 상상력과 결합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영어로 제시된 설명문을 읽고 핵심 개념과 세부 정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보기 1>은 2015 개정 영어과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 요소를 활용했다.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영어Ⅱ의 ‘[12영Ⅱ03-02]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가 있다. 이는 과학소설의 정의와 두 가지 핵심 특징, 그리고 작가 사례를 중심으로 전개된 <보기 1>의 내용을 읽고 글의 주제와 요지를 파악하는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글 내용의 추상성과 생소한 소재 사용 예) ‘감각적 인식과 이성적 지식의 차이’라는 생소한 서양 철학의 추상적 개념과 내용의 난해한 글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글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한 경우, 문장 간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치밀하지 않고 단절이 있는 경우 등			○	
3	어휘 수준 및 언어 형식의 복잡성 예) 공교육에서 학습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닌 법률 분야에 적합한 의미로 어휘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정답 도출을 위해 의미 파악이 가장 중요한 밑줄 친 부분을 포함한 문장의 길이가 길고, 이중 부정문(without, not knowing)이 포함된 복잡한 문장구조의 사용.			○	

<보기 1>의 소재인 과학소설의 개념과 특징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에서 다양한 주제의 설명문을 읽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

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기 1>은 과학소설의 정의 제시 → 장르적 특징 설명 → 작가 사례 제시의 구조로 전개되어 글의 논리적 흐름이 분명하다. 따라서 <보기 1>은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9) <보기 2>

<보기 2>는 교과서를 재구성한 자료이다. 다루고 있는 핵심 소재와 주제는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적 특징과, 그 속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여 준 학문 간 통합적 사고와 혁신적 성취이다. 이는 특정 시대의 문화 현상과 대표적 인물을 통해 사회·문화적 변화와 인간의 사고 방식을 이해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보기 2>는 2015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중요한 학습 요소를 활용했다.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사회·문화의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가 있다. 이는 르네상스라는 시대적 배경 속의 문화 현상을 다빈치라는 인물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도록 하는 <보기 2>의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제시문 관련 고등학교 학습 내용 예시 자료>

자료 속으로 ■ 사례 **통섭형 인재의 시대로!**



14~16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는 이를 그대로 재생과 부활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문학과 사상, 미술, 건축, 과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 걸친 문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활약한 인물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독 두드러진다. 미술가로서는 물론이고 과학자, 기술자, 사상가로서 상당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21세기형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목받고 있다. 인문학과 공학 지식을 두루 갖춘 '통섭형 인재'에 눈길이 쏠리는 것이다. 통섭(統攝)이란 '서로 다른 것을 한데 묶어 새로운 것을 잡는다.'라는 뜻으로, 인문학·사회 과학·자연 과학을 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연구이다. 기존의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영역 간의 '융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통섭은 간학문적 탐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통섭 학문적 개념이다.

통섭형 인재는 '한 우물을 파는' 전문가와 구분된다. 인문학과 자연 과학, 사회 과학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스티브 잡스는 통섭형 인재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는 최신 정보 기술(IT)의 선두에 서 있었지만 언제나 인문학을 강조하였다.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 철학은 우리 회사의 유전자(DNA)에 내재해 있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결과를 내는 것은 인문학과 결합한 기술임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의 명언으로 남아 있다.

① 통섭형 인재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말해 보고, 오늘날 통섭형 인재가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미래엔의 사회문화 교과서 14쪽에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소개하고 있다. 이는 <보기2>의 내용과 유사하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보기 2>의 소재인 르네상스 시대의 문화적 특징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통합적 사고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낮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보기 2>는 시대적 배경 제시 → 인물의 활동과 업적 설명 → 그 의미 확장의 구조로 전개되어 정보 간의 관계가 명확하며, 본문 자체의 논리적인 관계가 유기적이다. 따라서 <보기 2>는 고등학교 수준의 학습 과정을 벗어나는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3. 채점 요소와 예시답안 분석

1) 채점 요소 분석

문항	채점 요소	배점
문제1	- 두 가지 상반된 핵심어인 ‘단일’과 ‘다중’이 언급되어야 함 - 여섯 개의 제시문이 ‘단일’과 ‘다중’이라는 기준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80
문제2	- 시점의 구분과 관련해 두 가지 유형이 언급되어야 함. (다)에서는 ‘단일 시점’이, (바)에서는 ‘다시점’이 언급되어야 함 - 시점 유형에 따라 차이점이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가 언급되어야 함 - 표현 방식의 측면과 관련해, (다)에서는 ‘부분’이, (바)에서는 ‘전체’가 언급되어야 함 - 미적 효과의 측면과 관련해, (다)에서는 ‘시선의 집중’과 ‘몰입’이, (바)에서는 ‘시선의 확장’과 ‘새롭게 보기’가 언급되어야 함	320
문제3	- SF 소설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언급해야 함. 하나는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것의 “창조”임 - 두 인물 중 SF 소설을 쓰기에 더 적합한 인물로 다빈치를 언급해야 함 - <보기 1>에서 제시한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의 기준이 (마)의 오스미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오랜 기간 ‘단일한 분야의 연구에만 몰두’하고 ‘심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보기 2>의 다빈치의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성찰이 어우러진 사고’를 했고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야 함 - <보기 1>에서 제시한 ‘새로운 것의 창조’의 기준이 (마)의 오스미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인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가능하게 했으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 <보기 2>의 다빈치의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한 혁신가’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야 함	400

[문제 1]에서는 여섯 개의 제시문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핵심 개념인 ‘단일’과 ‘다중’을 추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제시문을 분류하고, 각 제시문의 요지를 해당 개념을 중심으로 요약하는 능력이 강조된다. 이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핵심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용을 구조화하는 활동으로서 국어과 교육과정의 독서 영역에서 다루는 **개념 정리 및 요지 파악 능력**과 부합한다.

[문제 2]에서는 제시문 (다)와 (바)에 제시된 시점 유형을 각각 ‘단일 시점’과 ‘다시점’으로 구분하고, 시점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를 비교·대조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특히 표현 방식의 측면에서는 부분과 전체의 대비를, 미적 효과의 측면에서는 시선의 집중과 몰입, 시선의 확장과 새롭게 보기의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는 동일한 대상이라도 관점과 표현 방식에 따라 의미와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능력으로, 국어과 독서 및 문학 교육에서 강조하는 **비교·대조 및 감상 능력**과 부합한다.

[문제 3]에서는 <보기 1>에서 제시된 SF 소설의 두 가지 특징인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과 ‘새로운 것의 창조’를 모두 이해하고, 이를 기준으로 SF 소설을 쓰기에 더 적합한 인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 <보기 1>의 기준에 비추어 제시문 (마)의 오스미가 ‘단일한 분야의 연구에만 몰두하고 심화된 전문성’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음을 근거로 들어야 하며, <보기 2>의 다빈치는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을 바탕으로 독특한 관점’을 지니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의 창조한 혁신가’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 적합하다고 판단해야 한다. 이는 제시된 기준을 새로운 사례에 적용하여 타당한 근거로 결론을 도출하는 **적용·추론 능력**과 부합한다.

[문제 1]에서는 280자 내외의 분량을, [문제 2]에서는 320자 내외의 분량을, [문제 3]에서는 400자 내외의 분량을 서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해당 분량은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사고 과정과 논리 전개를 고려할 때, 주어진 고사 시간 내에 고등학생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다.

2) 예시답안 분석

[문제 1] (400자 내외)

제시문을 ‘단일’과 ‘다중’이라는 두 핵심어로 분류하면, ‘단일’은 (나), (다), (마)이며, 다중은 (가), (라), (바)이다. ‘단일’을 나타내는 (나)는 공급자가 하나만 있는 시장인 독점 시장에 관한 내용이며, (다)는 오상원의 소설 「유예」에 나타난 일인칭 시점이다. (마)는 자가 포식 현상에 대한 단일 연구에 꾸준히 매진해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의 사례이다. 한편, ‘다중’을 나타내는 (가)는 복수의 인공지능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작동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소개하며, (라)는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는 통섭형 연구와 통섭형 인재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바)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표현 방식을 적용한 입체파 화가 후안 그리스의 작품 <피카소 초상>에 관한 내용이다. (402자)

[문제 2] (450자 내외)

<보기>를 토대로 (다)와 (바)의 시점을 구분하면, (다)는 오상원의 소설 <유예>에 등장하는 단일 시점이고, (바)는 입체파 화가 후안 그리스의 작품 <피카소의 초상>에 제시된 다시점 표현 기법이다. 이를 기준으로 (다)와 (바)를 <보기>에 제시된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평가하면, 첫째, 표현 방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다)의 경우 ‘나’가 고정된 위치의 단일 시점에서 서술한 이야기가 펼쳐지므로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데 반해, (바)의 경우에는 위치를 바꾸어가며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둘째, 미적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는 (다)의 경우 부분적인 면에 시선을 집중하여 대상을 포착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몰입감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바)는 여러 각도에서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시선의 확장을 통해 감상자로 하여금 대상을 새롭게 보게 한다. (457자)

[문제 3] (500자 내외)

SF 소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문학과 과학을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한다. 둘째,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두 인물에 적용하면 <보기 2>의 다빈치가 SF 소설 작가에 더 적합한 인재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라)의 오스미는 오랫동안 한 분야의 연구에만 몰두해 그 분야에서 탁월하고 심화된 전문성을 보인 반면, 다빈치는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성찰이 동시에 어우러진 독특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또한 오스미는 세포의 자가 포식 현상을 통해 인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했으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은 아닌 반면, 다빈치는 과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SF 작가에 더 적합한 인재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94자)

예시 답안은 채점 요소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과 논리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문제 1]에서는 ‘단일’과 ‘다중’이라는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여섯 개의 제시문을 분류하는 것이 주요 채점 요소로 설정되어 있다. 예시 답안에서는 제시문 (나), (다), (마)를 ‘단일’로, 제시문 (가), (라), (바)를 ‘다중’으로 정확히 분류하고 있으며, 각 제시문의 요지를 해당 개념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어 채점 요소와의 연계성이 명확하다.

[문제 2]에서는 <보기>를 바탕으로 제시문 (다)와 (바)의 시점을 각각 ‘단일 시점’과 ‘다시점’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의 차이를 비교·대조하는 능력이 평가된다. 예시 답안에서는 제시문 (다)가 단일 시점에 해당함을 밝히며 ‘부분’ 중심의 표현 방식과 ‘시선의 집중과 몰입’이라는 미적 효과를 정확히 도출하였다. 반면 제시문 (바)는 다시점에 해당함을 밝히고, ‘전체’를 조망하는 표현 방식과 ‘시선의 확장’과 ‘새롭게 보기’라는 미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채점 요소에서 요구한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의 두 측면을 모두 충족하며, 기준에 따른 비교·대조가 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채점 요소와의 연계성이 높다.

[문제 3]에서는 <보기 1>에서 제시된 SF 소설의 두 가지 핵심 기준인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과 ‘새로운 것의 창조’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SF 작가로서 더 적합한 인물을 판단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예시 답안에서는 오스미가 한 분야의 연구에 깊이 매진한 과학자라는 점에서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 측면이 충분하지 않으며, 기존 연구의 심화에 해당해 ‘새로운 것의 창조’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보기 2>의 다빈치는 과학과 인문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독창적인 발상을 실현하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는 제시된 기준을 인물 사례에 정확히 적용하여 판단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채점 요소와의 연계성이 분명하다.

예시 답안은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분량 내에서 논리적으로 정돈된 형태로 작성되었으며, 제한된 시간 내에 고등학생이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 [문제 1]의 경우 400자 내외에서 여섯 개의 제시문을 ‘단일’과 ‘다중’ 개념에 따라 분류하고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2]의 경우 450자 내외에서 <보기>를 기준으로 두 제시문의 시점과 그에 따른 표현 방식 및 미적 효과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대조하고 있다. [문제 3]의 경우 500자 내외에서 <보기 1>의 기준을 중심으로 두 인물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판단의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제한된 시간 내에 서술하기에 적절한 분량과 난이도로 판단된다.

사회 T4 결과

1. 문항의 선행학습유발 여부 분석 결과

가. 문항별 출제의도 및 평가요소 파악

문항	출제 의도	평가 요소 (자체 분석)
[문제 1]	[문제 1]에서는 장기 혹은 단기와 관련된 여섯 개의 제시문을 읽은 후, 그 내용을 ‘장기’와 ‘단기’라는 두 핵심어를 기준으로 분류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섯 개의 제시문을 요약 하게 함으로써,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분류·요약 능력 요지 파악 능력
[문제 2]	[문제 2]에서는 [문제 1]에서 제시된 ‘장기’, ‘단기’라는 키워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간을 초월한 세대 간 공리주의의 개념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즉, 세대 간 공리주의의 개념을 이해한 후, (바)와 (사)를 비교 평가 하도록 하였다.	비교·평가 능력 요지 파악 능력
[문제 3]	[문제 3]에서는 적용 능력과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갑이 장기적 전략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원인을 추론하게 하였다. <그림 1>의 자료에서 갑과 을의 시장점유율을 추이를 파악하고, <그림 2>와 <그림 3>의 상황을 토대로 갑이 왜 장기적 전략을 선택했는지를 추론하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했다.	자료 해석 능력 적용·추론 능력 요지 파악 능력

나. 문항별 성취기준 파악

1) [문제 1]의 근거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12윤사01-01]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수 있다. [12생윤01-02] 현대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분류·요약 능력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요지 파악 능력

2) [문제 2]의 근거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0통사02-0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12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12윤사01-02] 우리의 도덕적 삶에서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하는 역할에 대해 실제적인 사례들을 탐구하고,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를 토론할 수 있다.	요지 파악 능력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비교·평가 능력

3) [문제 3]의 근거 성취기준은 다음과 같다.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자료 해석 능력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적용·추론 능력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12경제02-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요지 파악 능력

2. 제시문 및 <보기>의 성취기준 및 교과서 연계 분석

1) 제시문 (가)

제시문 (가)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제시문이다. 핵심 소재는 ‘폴 세잔의 샘트 빅투아르 산 연작’이며, 주제는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사물의 본질적인 형태와 구조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미세한 차이를 포착하려는 예술가적 태도와 노력이다. 이는 예술가의 작품 활동에 담긴 가치와 태도를 파악하고 글의 정보를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는 ‘[12독서 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관계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가 있다.

<제시문 관련 고등학교 학습 내용 예시 자료>

	지학사의 문학 교과서 66페이지에 모네의 연작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제시문 (가)의 내용과 간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	--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가)의 소재인 ‘폴 세잔’과 ‘후기 인상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예술 분야에서 상징적인 인물과 사조로 다루어지며, 학생들이 교과서나 일반적인 독서 활동을 통해 접해본 경험이 있는 친숙한 소재이다. 제시문에 사용된 ‘풍경화’, ‘연작’, ‘실루엣’, ‘본질적 형태’ 등의 용어는 교육과정 내에서 충분히 이해 가능한 수준의 어휘들로 구성되어 있어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화가가 같은 대상을 장기간 반복하여 그리며 ‘산의 논리’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별도의 심화된 미술사적 지식 없이도 지문에서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핵심 주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다**. 글의 전개 방식이 직관적이고 정보 간의 유기적 연결이 명확하여 고등학교 수준의 독해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복잡한 단계의 추론 없이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러한 검토를 종합해 볼 때, 제시문 (가)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제시문 (나)

제시문 (나)는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한 제시문이다. 핵심 소재는 공자의 명언인 ‘인무원려, 필유근우’이며, 주제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쫓는 태도를 비판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대비하는 자세의 중요성이다. 이는 고전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지혜를 성찰하고 글의 정보를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등학교 국어과 및 사회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는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윤사01-01]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수 있다.’가 있다.

<제시문 관련 고등학교 학습 내용 예시 자료>

 공자는 인(仁)과 의(義)를 강조하였다. 인(仁)은 내면적 도덕성이라면, 의(義)는 외면적 규범을 의미한다. 공자는 당시의 세가 지나치게 형식화되었다고 보고, 인(仁)을 바탕으로 개인적 사욕을 극복하고 온정한 세를 회복할 정(正)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 세를 바탕으로 덕을 갖춘 도덕적 인간을 군자(君子)라고 칭하였다. 또한 인의 실천과 세를 바탕으로 한 세의 회복은 무엇보다 개인적 후(後)에 실현으로부터 출발하는 실천을 강조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미래엔의 윤리와 사상 교과서 40페이지에 공자의 사상이 제시된다. 제시문 (나)의 내용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	--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나)에서 다루는 공자의 사상과 명언은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등 공교육 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매우 친숙한 소재이다. 지문에 등장하는 한자 명언의 의미를 현대어로 명확하게 풀이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여 독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단기적 이익을 쫓는 통치자의 행태와 장기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사람의 태도를 선명하게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어 텍스트의 논리 구조가 단순하고 명료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의 독해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복잡한 추론 과정 없이도 글의 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고난도 추론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유교 사상에 대한 심화된 배경지식이 없더라도 제시문 내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설명만으로 충분히 이해와 분석이 가능하므로,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아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할 때, 제시문 (나)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제시문 (다)

제시문 (다)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제시문이다. 핵심 소재는 '최소기능제품(MVP)'이며, 주제는 자원이 한정된 스타트업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필수 기능만을 담은 제품을 출시하여 사용자의 피드백을 얻는 전략의 유용성이다. 이는 경제 주체인 기업의 의사 결정 과정과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을 다루고 있어 고등학교 국어과 및 경제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는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문화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0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가 있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다)의 'MVP' 개념은 지문 내에서 정의와 배경이 상세히 설명되어 **낮선 전문 용어에 따른 독해 어려움이 없다**. 기존 방식과 스타트업 방식의 차이를 논리적으로 대조하여 서술하고 있으므로, 고교 수준의 독해력만으로도 전략적 핵심을 파악할 수 있어 **고난도 추론이 불필요하다**. 별도의 경영학 지식 없이 지문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 **배경지식 의존도가 낮으므로**,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제시문 (라)

제시문 (라)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제시문이다. 핵심 소재는 ‘일본의 기초과학 연구와 노벨상 수상 비결’이며, 주제는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과 세대를 넘는 연구 전승 시스템이 기초과학의 발전과 노벨상 수상의 핵심 토대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과학 기술 발전의 사회적 맥락과 가치를 이해하고 글의 정보를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등학교 국어과 및 사회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는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문화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가 있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라)는 일본의 노벨상 수상 사례를 통해 기초과학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이화학연구소(RIKEN)’나 ‘연구 대물림’ 등의 핵심 개념을 지문 내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낮선 전문 용어에 따른 독해의 어려움이 없다**. 정부의 장기적인 지원과 장인정신이 학문적 성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어, 고교 수준의 독해력만으로도 수상의 비결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으므로 **고난도 추론이 불필요하다**. 노벨상이나 기초과학 연구 시스템에 대한 심화 지식이 없더라도 지문에 제시된 역사적 사례와 논리적 흐름만으로 분석이 가능하여 **배경지식 의존도가 낮으므로**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제시문 (마)

제시문 (마)는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한 제시문이다. 핵심 소재는 에피쿠로스 학파와 ‘올로족’의 행복 추구 방식이며, 주제는 현재의 즐거움을 최우선하는 ‘올로’ 문화와 장기적인 평온 및 절제를 강조하는 에피쿠로스 철학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성찰하는 것이다. 이는 다양한 삶의 태도를 윤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글의 정보를 사실적으로 파악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등학교 국어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는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생윤01-01]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12생윤01-02] 현대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가 있다.

<제시문 관련 고등학교 학습 내용 예시 자료>

에피쿠로스는 우리의 욕구를 구분한다. 몇 번째 유형은 자연적이며 필수적인 것으로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는 욕구이다. 음식에 대한 욕구는 충족되지 않으면 고통을 느끼고 생존할 수 없는 것이 그 예이다. 두 번째 욕구는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이다. 생존을 위한 음식에 대한 욕구는 자연적이지만,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 길버란 음식에 대한 욕구는 필수적이지 않은 것이 그 예이다. 세 번째는 자연적이지도 필수적이지도 않은 욕구이다. 욕구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습에서 생겨난 것으로 금지되는 비자연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생문·명예에 대한 욕구가 그 예이다. 우리는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근거 없는 비자연적인 욕구에서 벗어나야 한다. 권조하게 식사하고 절제하게 옷을 입고 또 세상에 있어 벗어나 조용한 개인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심지어 에피쿠로스는 고통을 막기하는 모든 것을 배워야 한다. 이와 함께 때문에, 기존의 교육이나 공적인 활동까지 거부하였다. 이처럼 에피쿠로스학파는 욕망의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행복의 쾌락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쾌락은 절제와 미덕을 강조했으며 어떤 면에서는 군 유착이게까지 했다. 그것이 생각하는 원인 쾌락은 고통과 불안에서 벗어나 영혼의 평온에 도달하는 ‘아타락시아’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교학사의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이 소개된다. 이는 제시문 (마)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	---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마)는 대중적인 ‘올로’ 문화와 교과서의 핵심 개념인 에피쿠로스 철학을 다루어 소재의 친숙도가 매우 높다. ‘아타락시아’와 같은 생소할 수 있는 용어의 의미를 본문에서 직접 풀이해주므로 전문 용어에 따른 독해 장벽이 없다. 두 입장의 차이를 선명하게 대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고교 수준의 독해력으로 복잡한 추론 없이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 윤리학에 대한 심화 지식 없이도 지문 내 정보만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어 배경지식 의존도가 낮으므로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제시문 (바)

제시문 (바)는 외부 자료를 재구성한 제시문이다. 핵심 소재는 ‘금어기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며, 주제는 현재 세대의 경제적 이익과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환경 보호 사이의 대립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이다. 이는 환경 문제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을 윤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등학교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는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0통사02-03]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12생윤01-01]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다루는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가 있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바)는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 보전이라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갈등 사례를 다루고 있어 소재의 친숙도가 높다. ‘비가역적’, ‘임계점’ 등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은 괄호를 통해 그 의미를 친절하게 풀이해 주었으므로 전문 용어로 인한 독해의 어려움이 없다. 현재 세대의 단기적 이익과 미래 세대의 장기적 생계 기반을 명확하게 대조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어, 고교 수준의 독해력만으로도 복잡한 추론 없이 쟁점 파악이 가능하다. 환경 윤리나 경제학에 대한 심화 지식 없이 지문의 정보와 논리적 흐름만으로 충분히 분석할 수 있어 배경지식 의존도가 낮으므로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제시문 (사)

제시문 (사)는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한 제시문이다. 핵심 소재는 ‘B국의 연금 개혁’이며, 주제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막대한 부담 전가를 방지하기 위한 신속한 개혁의 필요성이다. 이는 사회 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세대 간 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고등학교 국어과 및 사회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는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문화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10통사08-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가 있다.

<제시문 관련 고등학교 학습 내용 예시 자료>

복지 제도의 한계와 발전 방향

(주요 사회 보험 기금 변동)

사회 보험	제정 연도	고정
국민연금	1945년	1986년
건강 보험	1965년	2015년
신체 보험	2015년	2015년

1.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 보험 기금 변동에 대한 대안 중 하나인 '보험료 다 내고 혜택 덜 받기' 정책 추진에 대해 찬성과 반대 주장과 근거 제시하기

2. '보험료 다 내고 혜택 덜 받기' 정책 추진에 대한 찬성 주장에 근거를 대고 대안 제시하기

3. '보험료 다 내고 혜택 덜 받기' 정책 추진에 대한 찬성 주장에 대한 반박 주장 제시하기

4. '보험료 다 내고 혜택 덜 받기' 정책 추진에 대한 찬성 주장에 근거를 대고 대안 제시하기

5. '보험료 다 내고 혜택 덜 받기' 정책 추진에 대한 찬성 주장에 근거를 대고 대안 제시하기

지학사의 사회·문화 교과서에 복지 제도의 한계와 발전 방향 토론 내용이 소개되고 있다. 제시문 (사)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제시문 (사)의 소재인 연금 개혁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적 논의 대상으로, 학생들이 언론이나 교과 과정을 통해 빈번하게 접하는 친숙한 소재이다. ‘지속 가능성’, ‘재정 건전성’ 등 사회 분야의 기초 어휘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문 내 맥락을 통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전문 용어에 따른 독해 장벽이 없다**.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의 재정적 위험과 개혁을 통한 미래 세대의 신뢰 회복 과정을 논리적이고 인과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고교 수준의 독해력만으로도 **복잡한 추론 없이 쟁점 파악이 가능하다**. 별도의 심화된 경제 통계 지식 없이도 지문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수치와 논리적 흐름만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 **배경지식 의존도가 낮으므로**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8) <보기>

<보기>는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한 지문이다. 핵심 소재는 ‘세대 간 공리주의’이며, 주제는 미래 세대의 행복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총효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회복가능성 및 무편향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윤리적 접근 방식이다. 이는 정의의 기준과 현대 사회의 윤리적 쟁점을 다루고 있어 고등학교 국어과, 사회과, 도덕과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는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생윤01-02] 현대의 윤리 문제들을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10통사06-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가 있다.

<제시문 관련 고등학교 학습 내용 예시 자료>

	미래엔의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다양한 공리주의 사상이 소개된다. 세대 간 공리주의의 내용 또한 찾아볼 수 있다.
--	---

아울러, 고난도 문항과 관련한 기준으로 분석한 경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어’ 고난도 문항 판단 기준	관련있음	보통	관련없음	비고
1	낮선 전문 용어를 다수 사용하는 경우			○	
2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 예) 제한된 감상 정보 제공, 문단 내용이 분절적, 충분하지 않은 정보 제공			○	
3	국어 독해력이 아닌 타 분야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철학, 과학, 수학, 경제			○	

<보기>의 소재인 ‘공리주의’는 고등학교 윤리 및 사회 교과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핵심 이론으로 소재의 친숙도가 매우 높다. ‘회복가능성’이나 ‘무편향’과 같은 원칙들은 지문 내에서 그 정의와 구체적인 의미가 상세히 서술되어 있어 **낮선 전문 용어에 따른 독해 장벽이 없다**. 두 가지 세부 원칙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고교 수준의 독해력만으로도 **복잡한 추론 없이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 별도의 윤리학적 배경지식 없이 지문이 제공하는 정보만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 **배경지식 의존도가 낮으므로**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9) <그림 1>~<그림 3>

<그림 1> ~ <그림 3>은 시장 점유율 변화, 미래 수요 예측, 정부 정책 기조라는 다각적인 정보를 통합하여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며, 이는 고등학교 국어과, 사회과, 경제 교육과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관련 성취기준으로는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며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10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가 있다.

<그림 1> ~ <그림 3>은 점유율 하락, 수요 급증, 보조금 확대라는 직관적인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시하고 있어 소재와 형식의 친숙도가 높다. 각 그림 간의 논리적 연결이 명확하여 고교 수준의 통합적 사고력만으로도 'B형 배터리 중심의 장기 전략'을 선택한 근거를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 시장 점유율이나 보조금 등 기초적인 경제 용어만으로 구성되어 **낮선 전문 용어에 따른 독해 장벽이 없으며**, 그림에 제시된 정보만으로 논리적 완결성을 갖춘 답안 도출이 가능하다. **타 분야의 고도화된 배경지식이 문제 해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점 요소와 예시답안 분석

1) 채점 요소 분석

문항	채점 요소	배점
문제 1	- 여섯 개의 제시문 중 (가), (나), (라)를 장기적 관점으로, (다), (마), (바)를 단기적 관점으로 분류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80
문제 2	- <보기>를 통해 세대 간 공리주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측면에서 (바)의 어업인협회가 세대 간 공리주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기술해야 함 -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측면에서 (사)의 개혁 찬성론자가 세대 간 공리주의를 실천했음을 기술해야 함	320
문제 3	- <그림 1>에서 갑은 A형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음을 기술해야 함 - <그림 2>에서 B형 배터리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기술해야 함 - <그림 3>에서 R&D 보조금 증액이 B형 배터리로의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함	400

해당 채점 요소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에 부합한다.

[문제 1]은 여섯 개의 제시문에서 공통으로 추출할 수 있는 핵심 개념인 ‘장기’와 ‘단기’를 기준으로 제시문들을 분류하고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채점 요소에 따르면, 제시문 (가), (나), (라)는 미래를 대비하고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장기적 관점’으로, 제시문 (다), (마), (바)는 현재의 이익과 신속한 대응을 우선시하는 ‘단기적 관점’으로 정확히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명료하게 요약되었는지가 주요 평가 기준이다. 이러한 활동은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주제와 구조를 파악하는 능력을 요구하므로, 국어과 교육과정의 ‘[12독서 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성취기준에 부합한다.

[문제 2]는 <보기>에 제시된 ‘세대 간 공리주의’의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인 제시문 (바)와 (사)에 적용하여 비교·평가하는 역량을 측정한다. 채점 요소는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이라는 세부 원칙을 기준으로 제시문 (바)의 어업인협회가 현재 세대의 이익만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피해를 전가함으로써 윤리적 원칙을 위반했음을 지적하도록 요구한다. 반면 제시문 (사)의 개혁 찬성론자는 미래 세대의 신뢰와 행복을 고려하여 정의로운 사회 제도를 구현하려 한다는 점을 기술해야 한다. 이는 현대의 윤리 문제에 다양한 이론을 적용하여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12생윤01-02] 현대의 윤리 문제들을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성취기준에 근거한다.

[문제 3]은 세 가지 도표 자료를 통합적으로 해석하여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근거를 추론하는 통합적 사고력을 검토한다. 채점 요소는 <그림 1>을 통해 기업 ‘갑’이 기존 A형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음을, <그림 2>를 통해 B형 배터리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그림 3>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이 B형으로 전환될 것임을 각각 파악하여 설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과정으로,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며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및 ‘[10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성취기준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2) 예시답안 분석

[문제 1] (400자 내외)

제시문 중 (가), (나), (라)는 ‘장기’의 관점을, (다), (마), (바)는 ‘단기’의 관점을 기술한다. (가)의 세잔은 생트 빅투아르 산을 오랫동안 반복해 그리면서 장기적 관찰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차이에 집중한다. (나)의 공자는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통치자를 비판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라)의 기초과학자들은 연구를 수행할 때 단기적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천한다. 한편 (다)의 스타트업은 핵심 기능을 갖춘 제품을 단기에 출시하여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마)의 율로죽은 미래의 행복이 아닌,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인다. (바)의 어업인협회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더라도 당장의 소득을 지키려는 단기적 관점을 주장한다. (397자)

[문제 2] (450자 내외)

<보기>에 따르면 세대 간 공리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원칙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두 원칙을 제시문 (바)와 (사)에 적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바)의 어업인협회는 개체군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당장의 소득 감소를 우려해 금어기 도입에 반대하는데, 이는 회복가능성을 위반한 처사이다. 또한 수자원 고갈로 인한 피해를 미래 세대에게만 전가한다는 점에서 협회의 태도는 무편향에도 어긋난다. 한편, (사)의 개혁찬성론자는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재정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회복가능성을 충족한다. 또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연금 혜택과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무편향에 부합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어업인협회는 세대 간 공리주의를 위반한 집단으로, 개혁 찬성론자는 세대 간 공리주의를 실천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452자)

[문제 3] (500자 내외)

<그림 1>에 따르면 갑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반해, 경쟁사 을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늘어 2023년부터는 줄곧 갑을 앞섰다. 현시점에서 볼 때 갑은 기존의 A형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한편 <그림 2>를 보면 A형 배터리와 B형 배터리의 수요 곡선이 ‘T1’을 기점으로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망치를 해석하면, B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단기적으로 볼 때 A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보다 적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급격히 증가한다. 즉, B형 배터리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장기적으로 매우 크다. 한편 <그림 3>에 따르면 B형 배터리에 대한 R&D 보조금은 A형 배터리의 경우와는 달리 향후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다. 이러한 증액 계획은 B형 배터리 생산으로의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갑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형 배터리에 초점을 맞춘 장기 성장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501자)

예시 답안은 채점 요소에서 요구하는 핵심 개념과 논리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문제 1]의 예시 답안은 제시문 (가)~(바)에 나타난 주체들의 관점을 ‘장기’와 ‘단기’라는 두 범주로 정확히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채점 요소에서 요구하는 대로 제시문 (가), (나), (라)를 장기적 관점으로, 제시문 (다), (마), (바)를 단기적 관점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제시문의 핵심 논지를 빠짐없이 요약하였다. 특히 세간의 반복적 관찰, 공자의 미래 대비, 일본의 기초과학 지원 등 장기적 가치와 스타트업의 신속한 출시, ‘율로족’의 현재 만족, 어업인의 당장 소득 등 단기적 가치를 대조적으로 잘 드러냈다. 이는 복잡한 배경지식 없이 지문에 제시된 정보의 핵심을 파악하여 재구조화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독해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충분히 작성 가능한 수준이다.

[문제 2]의 예시 답안은 <보기>에서 제시된 ‘세대 간 공리주의’의 두 가지 세부 원칙인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을 분석의 틀로 정확히 활용하고 있다. 채점 요소의 지침에 따라, 제시문 (바)의 어업인협회가 당장의 이익을 위해 환경의 회복가능성을 저해하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점을 비판적으로 서술하였다. 동시에 제시문 (사)의 연금 개혁 찬성론자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여 모든 세대가 혜택을 공유하려는 무편향의 원칙을 실천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론적 준거를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여 비교·평가하는 과정이 명료하며, 사용된 논리 구조가 고등학교 사회과 및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윤리적 의사결정 수준에 부합한다.

[문제 3]의 예시 답안은 <그림 1> ~ <그림 3>에 나타난 개별 정보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기업의 전략적 선택 근거를 타당하게 추론하고 있다. <그림 1>을 통해 A형 배터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하락을, <그림 2>를 통해 B형 배터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성을, <그림 3>을 통해 정부 보조금의 지원 방향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여 기업 ‘갑’이 B형 배터리에 집중 투자하는 이유를 논증하였다. 문항이 요구하는 ‘B형 배터리 중심의 장기 전략 선택 근거’를 데이터에 기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 수준의 자료 해석 및 비판적 사고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난도를 유지하고 있다.

자연 T4 결과

2026학년도 자연계 논술전형 논술고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I>과 <수학 II>를 출제 범위로 하고 있다. 해당 과목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의 공통과목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기본 학업 성취를 바탕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본 고사는 총 7개의 논술형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수험생의 사고 흐름을 고려하여 난이도와 배점(10점~18점)에 따른 순차적 문항 배치를 통해 평가의 변별력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모든 문항의 용어와 기호는 검정 교과서의 표준 표현을 엄격히 준수하였으며 교과서 내 핵심 개념과 예제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여 출제하였다.

문항 분석의 객관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네 가지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1. 문항 분석 기준'에서는 평가의 근거가 된 네 가지 지표를 명시하였으며, '2. 종합적 분석(기준 1)' 및 '3. 문항별 분석(기준 2, 기준 3, 기준 4)'을 통해 각 문항이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교수·학습 유의 사항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기술하였다.

분석 결과 <수학 I>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및 <수학 II>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단원의 핵심 성취기준을 균형 있게 포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모든 문항이 학교 수업 현장에서 다루는 교과서 수준의 사고력을 바탕으로 논리적 전개 과정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선행 학습이나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임을 검증하였다.

1. 문항 분석 기준

본 2026학년도 자연계열 논술고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핵심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첫째, 교육과정의 균형적 평가 여부를 분석하였다. 논술고사가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전반의 학습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검토하였다. 둘째, 성취기준 및 출제 범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다. 각 문항의 해결에 요구되는 개념과 문제 해결 방식이 교육과정 내 성취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지, 또한 제시된 출제 범위를 이탈하지 않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였다. 셋째, 고난도 문항 해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였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고난도 문항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유형을 근거로, 해당 문항들이 공교육 정상화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였다. 넷째, 교수·학습 및 평가 유의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지침을 근거로 문항의 구성과 평가 방식이 공교육 내에서의 교수·학습 방향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이상의 네 가지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준 1 : 논술고사가 출제 범위인 <수학 I>과 <수학 II>의 학습 내용을 균형 있게 평가하였는지 확인한다.

기준 2 : 문항이 성취기준에 부합하고 문항을 이해하고 풀이하는데 활용되는 개념과 방법이 논술고사 출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대부분의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수준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확인한다.

기준 3 : 문항과 풀이가 고난도 문항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유형 1	너무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하여 문제 풀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공교육을 통한 학습만으로 찾아내기 어려운 접근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유형 2	지나치게 많은 경우로 나누어지는 등 과도하게 긴 풀이 과정으로 학생들의 실수를 유발하거나 심리적인 불안을 야기하는 경우
유형 3	출제 범위 밖의 과정의 수학 지식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경우

기준 4 :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출제하였는지 확인한다.

2. 종합적 분석(기준 1)

본 논술고사의 출제 범위인 <수학 I>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의 3개 대단원으로 구성되며 <수학 II>도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의 3개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의 표는 각 문항이 해당하는 대단원을 정리한 것으로 총 6개의 대단원 전체에서 고르게 문항이 배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대단원에서 최소 1문항 이상이 출제되었으며,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문항 배치를 통해 고등학교 수학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수험생의 이해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하였다. 특히 누락된 대단원 없이 모든 범위가 평가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은 본 고사가 교육과정의 대표성을 충실히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논술고사는 학습 내용의 편중 없이 핵심 성취기준을 두루 포괄하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균형적 평가'라는 기준 1을 충족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항 번 호	수학 I			수학 II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1						
2						
3						
4						
5						
6						
7						

3. 문항별 분석(기준 2, 기준 3, 기준 4)

앞서 명시한 분석 기준 2, 3, 4에 의거하여 개별 문항에 대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상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각 문항별로 핵심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도출하였으며 문제 해결에 활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이 고등학교 공교육 범위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교과서 수준에 부합하는지 엄밀히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문항 및 풀이 과정을 요약하고 해당 풀이가 출제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표준적 절차임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채점 기준이 문제 해결의 논리적 흐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수험생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추론 과정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판단하였다. 특히 교육부의 고난도 문항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사교육 유발 요인의 포함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였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유의 사항'을 기준으로 출제의 적절성을 교차 검증하였다.

종합적인 분석을 완료한 결과, 모든 문항이 설정된 분석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였음을 확인하였다. 각 문항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요구되는 수학적 개념과 사고력의 수준은 고교 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수학Ⅰ> 및 <수학Ⅱ> 교과서의 범위를 준수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본 논술고사가 공교육 정상화의 취지를 충실히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 문항 1

기준 2	성취 기준	[12수학 I 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항 요약	미지수가 포함된 로그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를 알 때, 로그함수가 한 직선과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구하는 문항이다.
	문항 해설 요약	(i) 로그함수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로그함수와 직선 $y=x$ 와의 교점과 같음을 파악한다. (ii) x 에 -1 과 1 을 대입하여 a, b 가 포함된 두 식을 구한다. 두 식을 연립하여 a, b 의 값을 구하여 로그함수를 완성한다. (iii) y 에 3 을 대입하여 직선 $y=3$ 과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구한다.
	채점 기준 분석	문항 해설 요약과 채점 기준의 도입, 전개, 결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단계별로 요구되는 수학적 개념의 비중과 계산의 복잡도를 고려할 때 배점 또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미지수 a, b 를 구하는 '전개' 과정에 가장 높은 배점(5점)을 부여한 것은 수험생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변별하기에 적합한 구성이다. 마지막 '결론' 단계에서는 최종적인 로그방정식 풀이와 정답 도출에 3점을 배정하여 앞선 과정이 맞더라도 최종 계산에서 실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단계별 채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기준 3	고난도 문항 유형에 해당 여부	로그함수의 성질과 역함수의 정의를 활용하여 미지수를 구하는 전형적인 문제로 출제 의도와 해결 방법이 매우 명확하다. 복잡한 추론 과정이나 여러 개념의 기형적인 결합이 없으며 교과서 수준의 계산만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므로 고난도 문항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 4	유의 사항 준수 여부	본 문항은 로그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 $y=x$ 위에 존재한다는 기하학적 성질을 활용하여 풀이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역함수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게 한다'는 교수·학습 유의 사항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다. 또한 미지수를 구하고 최종 결과값을 도출하는 과정이 로그의 정의와 연립방정식이라는 기본 성질에 충실하며 교육과정에서 지양하는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포함하지 않고 논리적인 단계에 따라 간결하게 해결되므로 평가 유의 사항을 충실히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로그의 성질은 지수의 성질과 관련지어 이해하게 한다. -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임을 그래프를 통해 확인하게 한다. (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 지수와 로그의 성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수와 로그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2) 문항 2

기준 2	성취 기준	[12수학Ⅱ02-03]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한다.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문항 요약	삼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 조건, 극점 조건, 절댓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함수식을 결정하고 가능한 함수값의 합을 구하는 문항이다.
	문항 해설 요약	(i) 삼차함수의 최고차항의 계수 조건, 극점 조건을 이용하여 상수항을 제외한 삼차함수 식을 유도한다. (ii) 절댓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조건을 이용하여 상수항의 범위를 구한다. (iii) $f(0)$ 의 값이 정수가 되기 위한 삼차함수의 상수항의 경우를 모두 구하고 각 경우의 $f(1)$ 의 값과 그 합을 구한다.
	채점 기준 분석	문항 해설의 논리 전개와 채점 기준의 도입, 전개, 결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배점 또한 적절하다. 특히 절댓값 함수의 미분 불능 조건을 기하학적 상황으로 정확히 해석했는지를 '전개' 단계에서 중점 평가한 점이 합리적이다. 채점 유의 사항에 '함수 $y=f(x)$ 의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도 된다.'를 통해 그래프 개형을 활용한 정성적 분석이 해설과 다르더라도 극댓값과 극솟값의 부호를 이용한 정량적 조건을 명확히 제시했다면 점수를 인정하여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기준 3	고난도 문항 유형에 해당 여부	삼차함수의 그래프 개형과 절댓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수학Ⅱ 교육과정의 핵심 성취기준 내에서 빈번히 다루어지는 표준적인 내용이다. 고교 수준을 벗어난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고 풀이 단계 또한 논리적이어서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 4	유의 사항 준수 여부	본 문항은 도함수를 활용하여 삼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고 절댓값 함수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를 기하학적 상황과 연결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이는 '미분법을 단순히 적용하기보다 미분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래프 개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한다'는 교수·학습 유의 사항에 부합한다. 또한 평가 유의 사항에서 강조하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 대신 기본적인 삼차함수를 다루고 있으며 미분가능성 판별 과정이 수학적 정의와 그래프의 직관적 이해를 통해 논리적으로 명쾌하게 풀이되므로 유의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이때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 미분법을 단순히 적용하기보다는 미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분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 (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에 대한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 도함수를 활용하여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거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를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3) 문항 3

기준 2	성취 기준	[12수학 I 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수학 I 03-05]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문항 요약	좌표평면 위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외접원 넓이 수열을 구하고 제 10항까지의 합을 수열의 합 공식을 통해 계산하는 문항이다.
	문항 해설 요약	(i) 점 $(n, n+1)$ 이 직선 $y=x+1$ 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한 각을 구하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활용하여 그 대변의 길이를 구한다. (ii) 사인법칙을 활용하여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와 외접원의 넓이 수열을 구한다. (iii) 수열의 합 공식을 이용하여 제 10항까지의 합을 구한다.
	채점 기준 분석	사인법칙을 통한 외접원 넓이 수열의 일반항 도출과 수열의 합 계산 과정에 따른 배점이 균형 있게 설정되었다. 좌표평면 위에서의 기하학적 성질을 통해 특수각을 찾아내는 과정을 '도입'으로 분리하여 부분 점수를 부여한 점이 적절하다. 설령 계산 실수로 최종 결과가 다르더라도 사인법칙의 구조와 수열의 합 공식을 정확히 적용했다면 단계별 점수를 인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갖추었다.
기준 3	고난도 문항 유형에 해당 여부	사인법칙과 수열의 합을 결합한 형태로 각 단원의 기본 공식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정직한 구조이다. 과도한 계산을 유도하거나 서로 다른 단원의 개념을 무리하게 통합하지 않아 고난도 문항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 4	유의 사항 준수 여부	본 문항은 좌표평면 위에 주어진 세 점의 위치 관계를 통해 특수각을 찾아내고 사인법칙을 적용하여 외접원의 반지름과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는 '사인법칙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한다'는 교수·학습 지침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또한 평가 유의 사항에서 금지하는 '복잡한 합성함수나 여러 개의 절댓값이 포함된 형태'를 배제하고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성질과 수열의 합 공식을 순차적으로 결합하여 해결하도록 출제되었으므로 유의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용하여 삼각형의 각의 크기와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삼각형의 넓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게 한다. -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봄으로써 삼각함수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 (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 삼각함수와 그 그래프의 성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기본적인 삼각함수의 그래프와 그 성질에 대한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복잡한 합성함수나 절댓값이 여러 개 포함된 함수와 같이 지나치게 복잡한 삼각함수를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4) 문항 4

기준 2	성취 기준	[12수학 I 01-01]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수학 I 03-04] Σ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항 요약	미지수가 포함된 로그식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이라 한다. 이때 $f(n)$ 이 포함된 수열의 합이 56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문항 해설 요약	(i) n 이 홀수인 경우 $f(n)=1$ 임을 언급한다. (ii) n 이 짝수인 경우 로그식의 값의 범위에 따라 $f(n)$ 의 값이 각각 0, 1, 2가 됨을 설명한다. (iii) $f(n)$ 이 포함된 수열의 합이 56이 되기 위한 미지수값을 구한다.
	채점 기준 분석	n 이 홀수 또는 짝수인 경우에 따라 실수인 n 제곱근의 개수가 달라짐을 설명하는 부분에 가장 높은 배점(7점)을 부여하여 개념적 이해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단순 합산이 아닌 각 항의 값을 논리적으로 분류하여 나열했는지를 단계별로 체크함으로써 채점의 변별력을 높였다. 해설과 다른 순서로 케이스를 분류하더라도 논리적 결함이 없다면 정답으로 인정하는 유연함을 보여준다.
기준 3	고난도 문항 유형에 해당 여부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판별하는 문제는 수학 I의 기초 개념을 묻는 것으로, 케이스 분류 과정이 명쾌하고 단순하다. 대학 수준의 지식이나 특수한 사고교육 스킬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공교육 내에서 충분히 대비 가능한 수준이므로 고난도 문항이 아니다.
기준 4	유의 사항 준수 여부	본 문항은 거듭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판별하는 지수의 기초 성질을 활용하여 수열의 각 항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지수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는 평가 방법 유의 사항에 부합하며 복잡한 증명 대신 홀수와 짝수 케이스의 직관적인 분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수열의 합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과 수열의 합이 간단한 것만 다룬다'는 교수·학습 지침을 준수하여 지나치게 복잡한 수치 계산이나 기교적인 합 계산 대신 논리적인 항의 분류와 기본적인 합산만으로 결과를 도출하도록 출제되어 유의 사항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지수가 유리수 및 실수인 경우는 밑이 양수인 조건이 필요함을 이해하게 한다. - 지수가 실수인 경우는 직관적으로 다룬다. - 여러 가지 수열의 합에서는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sum_{k=1}^n k$, $\sum_{k=1}^n k^2$, $\sum_{k=1}^n k^3$ 과 수열의 합이 간단한 것만 다룬다. (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 지수와 로그의 성질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수와 로그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5) 문항 5

기준 2	성취 기준	[12수학Ⅱ01-01] 함수의 극한의 뜻을 안다. [12수학Ⅱ01-02]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문항 요약	함수의 극한 조건 세 가지를 만족하는 다항함수 $f(x)$ 를 결정하고 방정식 $f(x)=0$ 의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는 문항이다. 주어진 조건 세 가지는 모두 유리식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값이 양수 또는 1이라는 조건이다.
	문항 해설 요약	(i) 분모가 일차식 형태인 유리식의 극한값이 존재함을 이용하여 방정식 $f(x)=0$ 의 두 근을 구하고 분모가 사차식 형태인 유리식의 극한값이 1임을 이용하여 $f(x)$ 는 최고차항의 계수의 절댓값이 1인 사차함수임을 설명한다. 즉 $f(x)=(x+1)(x-2)Q(x)$ 이고 $Q(x)$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 또는 -1인 이차함수임을 언급한다. (ii) 분모가 일차식 형태인 유리식의 극한값이 양수임을 이용하여 $Q(-1)<0$, $Q(2)>0$ 임을 추론한다. (iii) $f(x)=0$ 의 모든 실근의 합이 4임을 이용하여 방정식 $Q(x)=0$ 의 두 실근의 합이 3임을 구한다. (iv) $f(x)=0$ 의 모든 실근이 정수임을 이용하여 $Q(x)=0$ 의 두 실근을 정확히 구하고 이들의 곱을 구한다.
	채점 기준 분석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다항함수 추론 능력을 '도입(5점)'과 '결론(8점)'에 고루 배치하여 추론의 완결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호 조건을 통해 실근의 후보를 압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수치적 계산뿐만 아니라 논리적 배제 과정을 적절히 서술했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다. 실근의 합 조건을 이용하는 방식이 해설과 차이가 있더라도 결과의 타당성이 입증되면 점수를 부여하도록 설계되었다.
기준 3	고난도 문항 유형에 해당 여부	다항함수의 결정과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 실근 추론 문제로 조건들이 체계적으로 주어져 있어 해결 방향을 잡기 용이하다. 풀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기교적인 발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수학적 원리에 기반한 논리적 추론이 주를 이루므로 고난도 문항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 4	유의 사항 준수 여부	본 문항은 극한값이 존재할 조건과 부호 조건을 통해 다항함수를 결정하고 실근을 추론하는 과정을 담고 있다. 이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뜻과 성질에 대한 이해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평가 유의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또한 유의 사항에서 금지하는 '복잡한 합성함수나 여러 개의 절댓값이 포함된 형태'를 배제하고 기본적인 다항함수의 구조 내에서 극한의 성질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해결하도록 출제되었다. 특히 극한을 통해 함수의 그래프적 특성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그래프를 통한 직관적 이해'라는 교수·학습 지침을 준수하였으므로 유의 사항을 적절히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함수의 극한에 대한 뜻과 성질은 그래프를 통해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이때 공학적 도구를 이용할 수 있다. - 함수의 극한은 함수의 연속과 미분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로 간단히 다룬다. (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 대한 평가에서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의 뜻과 성질에 대한 이해 여부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복잡한 합성함수나 절댓값이 여러 개 포함된 함수와 같이 지나치게 복잡한 함수를 포함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6) 문항 6

기준 2	성취 기준	[12수학 I 03-02] 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문항 요약	등차수열의 합의 절댓값으로 정의된 수열 $\{T_n\}$ 의 성질을 이용하여 특정 조건 $T_{10} = T_{11}$ 을 만족하는 등차수열의 공차를 찾고 부등식 $T_n > T_{n+1}$ 을 만족하는 자연수 n 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문항 해설 요약	(i) 등차수열의 일반항과 등차수열의 합 수열을 구한 뒤 수열 $\{T_n\}$ 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표현한다. (ii) $T_{10} = T_{11}$, 즉 $ S_{10} = S_{11} $ 임과 공차가 정수라는 조건을 이용하여 등차수열의 공차를 구한다. (iii) 부등식 $T_n > T_{n+1}$ 을 만족하는 자연수 n 의 범위를 구하고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한다.
	채점 기준 분석	공차의 정수 조건과 절댓값 부등식의 성질이 핵심인 만큼 단계별 배점이 논리적인데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부등식 $T_n > T_{n+1}$ 을 푸는 과정에서 절댓값의 범위를 나누는 수학적 엄밀함을 갖추었는지를 '결론' 단계에서 심도 있게 평가한 점이 합리적이다.
기준 3	고난도 문항 유형에 해당 여부	등차수열의 성질과 절댓값이 포함된 부등식을 다루는 문항으로 이는 공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연산 능력 평가에 해당한다. 사교육에서 강조하는 기형적인 문제 풀이법 없이도 교과서적인 대수적 접근으로 충분히 해결되기에 고난도 문항으로 볼 수 없다.
기준 4	유의 사항 준수 여부	본 문항은 '수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귀납적으로 표현'하고 그 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하게 한다는 교수·학습 지침에 부합한다. 특히 복잡한 점화식을 통해 일반항을 유도하는 인위적인 유형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강조하는 기호의 의미와 등차수열의 합의 성질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출제되었다. 따라서 수열의 개념을 직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하려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충실히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수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귀납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고,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 기호 S_n은 교수·학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 없음

7) 문항 7

기준 2	성취 기준	[12수학Ⅱ03-03] 정적분의 뜻을 안다. [12수학Ⅱ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문항 요약	실수 t 의 값에 따라 식이 변하는 이차함수 $f(x)$ 의 $-1 \leq x \leq 1$ 에서의 최댓값을 $g(t)$ 라 한다. 이때 $\int_{-3}^2 g(t)dt$ 의 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문항 해설 요약	(i) 절댓값이 포함된 이차함수 $f(x)$ 의 식이 x 의 범위에 따라 식이 달라짐을 설명한다. (ii) $-1 \leq x \leq 1$ 에서 함수 $y=f(x)$ 의 식이 $t \leq -1$ 인 경우, $-1 < t < 1$ 인 경우, $t=1$ 인 경우, $t > 1$ 인 경우에 따라 달라짐을 추론한다. 그 결과에 의해 최댓값 $g(t)$ 가 $g(t) = \begin{cases} 4+2t & (t \leq -1) \\ t^2+1 & (-1 < t < 1) \\ 4-2t & (t \geq 1) \end{cases}$ 와 같이 정리됨을 설명한다. (iii) $\int_{-3}^2 g(t)dt$ 의 값을 t 의 범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다.
	채점 기준 분석	문항 해설 요약과 채점 기준의 도입, 전개, 결론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며 단계별로 필요한 수학적 추론과 계산 과정을 고려할 때 배점 또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t 의 범위에 따라 최댓값 $g(t)$ 를 정리하는 정밀하게 추론해내는 '전개' 단계에 높은 비중을 두어 변별력을 확보하였다.
기준 3	고난도 문항 유형에 해당 여부	본 문항은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최댓값, 그리고 정적분의 계산이라는 교과서적 개념을 논리적으로 연결한 문항으로 출제 의도가 명확하다. 케이스 분류 과정이 세밀함을 요구하지만 이는 고교 수학 II 성취기준에서 다루는 적절한 수준의 추론이다. 주어진 조건을 차근차근 분석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므로 기준 3의 어느 고난도 문항 유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준 4	유의 사항 준수 여부	본 문항은 복잡한 급수의 합이나 교육과정을 벗어난 적분 공식 없이 다항함수의 적분만으로 풀이가 가능하며 '정적분의 활용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평가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 출제되었다. (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적분에 필요한 공식은 미분법의 공식에서 유도할 수 있게 한다. - 급수의 합을 이용한 정적분 정의는 다루지 않는다. $f(x)$의 부정적분 $F(x)$에 대하여 $F(b)-F(a)$를 $f(x)$의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 정의하되, 그 도입 및 설명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 적분법을 단순히 적용하기보다는 적분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적분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 (다) 평가 방법 및 유의 사항 - 정적분의 활용에서 지나치게 복잡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V. 대학입학전형 반영 계획 및 개선 노력

1. 검토 결과 총평

한국의국어대학교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시행령의 취지에 따라, 대학별 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 자체 규정에 근거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체계를 운영하였다. 본교는 학칙(규정번호 4-1-97) 「대학입학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대한 규정」에 따라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대학별 고사 종료 이후부터 결과 공개 시점 이전까지 위원회 구성·회의 운영·소위원회 집필·위원회 심의·의결·공시 및 유관기관 제출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금년도 문항 분석 자료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본교는 문항별 출제 의도와 평가요소를 명시하고, 해당 평가요소를 교육과정 성취기준에 연계하여 점검하였다. 또한, 인문·사회 계열 제시문 기반 문항은 분류·요약, 비교·평가, 자료 해석, 적용·추론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되는 읽기·쓰기 및 사고 역량을 중심으로 설계하였고, 자연계 논술은 출제 범위 내에서 대단원 전 범위를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문항을 배치하고 성취기준과 풀이에 활용되는 개념·방법의 적정성을 점검하였다.

특히 본교는 성취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교과서 기반성을 교육과정 연계성 논증의 핵심 고리로 활용하였다. 성취기준이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환경에서는 제재(소재) 선택의 적정성이 해석의 여지를 낳을 수 있으므로, 본교는 제재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교과서에 제시된 소재·사례·학습 활동을 근거로 제시문을 구성하거나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적합성을 보강하였다. 이는 성취기준-핵심개념-교과서 학습 맥락의 연결을 통해 수험생의 배경지식 격차가 문제 해결에 과도하게 작동하지 않도록 관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교과별 ‘고난도 문항’ 점검 기준을 적용하였다. 인문·사회·영어 제시문 기반 문항은 낯선 전문 용어의 과다 사용 여부, 정보 제시 방식이 고난도 추론을 유발하는지 여부, 타 분야 배경지식이 정답 도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점검하였고, 자연계 문항은 과도한 개념 복합 사용과 지나치게 복잡한 풀이 요구 여부, 불필요한 경우 분류에 따른 실수 유발 가능성, 출제 범위 밖 지식의 우회적 활용 가능성 등을 유형화한 기준에 의해 점검하였다. 그 결과, 금년도 문항은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선행학습을 유발할 가능성이 낮으며,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항카드에 제시문 출처, 교육과정 연계 근거, 출제 의도 및 평가요소를 구조화하여 제시하고, 채점 요소와 예시답안의 연계성을 점검하였다. 채점 기준은 요구되는 사고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단계화하였고, 예시답안은 제한된 분량과 시간 조건에서 고등학생이 작성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되었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과도한 난도 상승을 통해 변별력이 확보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교육 기반 학습으로 해결 가능한 문항 설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종합하면, 금년도 대학별 고사는 규정, 위원회, 출제 과정에서의 교육과정 준수 절차, 출제 후 검증 분석, 결과 도출 등의 교육과정 준수 체계에 기반하여 운영되었으며, 이러한 체계적인 절차를 통하여 문항의 내용과 수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운영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지 않으며, 수험생이 공교육 기반 학습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가. 출제 과정에서의 교육과정 준수 노력

(1) 출제 전 교육과정 분석 및 출제위원 연수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논술 문항 출제에 앞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및 교과용 도서의 수준과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출제 및 검토위원들에게 사전 연수를 제공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유하여 교육과정 내에서 문항을 출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특히, 단순히 제시문을 발췌하는 차원을 넘어 문항 작성 단계에서도 핵심 개념과 평가 요소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였다. 이를 통해 논술 문항이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차별성을 유지하면서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학습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또한, 수험생들에게 논술전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논술가이드북을 제작하였다. 이 가이드북에는 논술전형의 주요 사항, 전형결과 및 특징, 전년도 실제 논술 기출문제 및 문항카드 등의 자료를 포함하였으며, 이를 전국 고등학교 및 수험생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논술전형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다.

(2) 고교 교원 참여 확대 및 출제 공정성 강화

출제 과정에서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한 반영을 위해 2015학년도부터 매년 고교 교원을 출제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2026학년도에도 이 원칙을 유지하였다. 고교 교원들은 출제 사전 회의, 출제 과정, 그리고 출제 후 문항카드 작성 단계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출제된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또한,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고교 교육과정 안내 및 교육을 고교 교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하여, 모든 출제위원이 교육과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항을 출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 교수진과 고교 교사 간의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졌으며, 대학 논술고사가 고교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출제 체계를 정비하였다.

한편, 입학부서에서는 출제본부 운영 시 관리직원을 별도로 배치하여 출제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출제위원들의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검토하였다. 단, 제공되는 자료는 반드시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로 한정하여, 출제 과정에서 교육과정 외 요소가 개입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특정 교과서 선택으로 인해 일부 학생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출제 문항이 복수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기반으로 구성되었는지 점검하였으며, 난이도 조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검토 및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3) 논술전형의 지속적 개선 및 지원 확대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논술고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출제 후 출제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출제 및 평가 과정을 개선하는 데 반영하고 있다.

또한, 논술전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외부 활동을 운영하였다.

- HUFS 교사 컨퍼런스
- HUFS 교사 자문위원회
- HUFS 고교방문설명회
- HUFS 대입상담박람회
- HUFS 지원전략 설명회
- HUFS 대입상담

또한, 논술고사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 논술가이드북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논술고사의 기출문제 및 해설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여 장소와 시간의 제약 없이 논술전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험생, 학부모, 교사들이 논술전형의 평가 방식과 대비 전략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논술전형이 특정 학생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강화하고,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4) 수험생 부담 완화를 위한 논술고사 개선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수험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연계 논술고사의 문항 수를 2024학년도부터 10문항에서 7문항으로 축소하였으며, 2026학년도에도 이를 유지하였다. 또한, 문항의 난이도를 고교 교육과정 내 학습 수준에 맞게 조정하여 지나친 학습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각 호수에 따라 전형 총점의 1%부터 전형 총점의 100%(과락, 사정 제외)까지 감점 처리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논술고사의 공정성 및 전형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 고자 하였다.

나.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검토 과정

본 위원회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출제된 문항이 교육과정 내 학습 내용과 적절히 연계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 위원회는 교육과정 전공 교수, 수학과 교수, 국어·사회·수학 교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직하고, 연구 절차에 준하는 철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위원회는 문항이 교육과정 내에서 적절하게 출제되었는지, 특정 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는지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 기준을 수립하였다.

(1) 분석 범위 및 기준 설정

먼저, 위원회는 문항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분석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과 해당 문항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였으며, 문항이 교육과정의 목표 및 평가 기준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이 다소 추상적으로 서술된 경우, 문항이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적 기준을 설정하였다. 성취기준만으로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개념과 문제 해결 방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각 교육청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문항 출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평가 기준을 수립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과정 내 학습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변별력을 갖춘 문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교화하였다.

(2) 문항 내용 및 소재와 관련된 교과서 등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이러한 분석 기준을 바탕으로, 연구진은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참고 자료를 수집하고 비교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각 교과별 교육과정 문서를 기반으로 문항과 성취기준 간의 연계성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출제된 문항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부합하는지,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 과도한 난이도가 설정되지 않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교과서 및 문항의 내용과 유사한 고등학교 교수·학습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문항이 선행학습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진은 제시문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된 것인지 확인하였으며, 교과서 내에서도 ‘심화’, ‘더 알아보기’ 등의 부가 학습 요소가 아닌 일반적인 학습 요소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교과서 외의 자료를 활용한 경우에도 해당 자료의 개념 및 내용이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문항이 공교육에서 학습 가능한 내용인지, 아니면 특정 사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3) 전문가 숙의 과정

연구진은 출제 문항이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숙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전공 교수, 수학과 교수, 국어·사회·수학 교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 조직되었으며, 문항이 설정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성취기준과의 연계성이 명확한지를 면밀히 논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출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 문항이 성취기준에서 요구하는 학습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특정 학생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출제 의도가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진은 문항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과정이 과도하게 복잡하지 않은지를 검토하였으며,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습 과정을 거쳐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할 경우 문항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4) 기타 고난도 문항 관련 검토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출제된 문항이 선행학습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더욱 보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고난도 문항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였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개념이나 내용이 포함된 문항, 정상적인 학습 과정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항, 다양한 개념을 복합적으로 요구하여 문제 풀이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한 문항, 고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배경지식이 필요한 문항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 수능의 고난도 문항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제된 논술 문항이 공교육 내 학습을 통해 해결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였다.

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검토 결과

검토 결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논술 문항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여 출제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입학전형에 운영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출제되었다. 문항을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의 평가 요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별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설정되었으며, 필수 학습 요소와 성취기준에 따라 출제되었다. 특히, 출제 과정에서 보통교과의 필수 학습 요소와 성취기준을 대부분 활용하였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학생별 유불리를 유발하는 문항의 특징을 고려하여, 특정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본고는 이러한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다음으로, 제시문과 문항 구성 시 교과서 중심 원칙을 준수하였으며, 교과서 외 자료 활용 시에도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였다. 제시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특정 교과서에만 수록된 내용을 활용하지 않고, 복수의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개념과 내용을 반영하여 문항을 출제하였다. 또한, 교과서에서 ‘심화’나 ‘더 알아보기’와 같은 부가 학습 자료는 활용하지 않았으며, 공통 학습 요소로 제시된 개념을 중심으로 문항을 구성하였다. 교과서 외 자료(신문 기사, 도서 등)를 활용한 경우에도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필수 학습 요소를 기반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논술 문항이 과도한 난이도를 포함하지 않도록 검토되었으며, 출제 문항이 이른바 ‘고난도 문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인문·사회 계열 문항의 경우, 생소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거나 고난도 추론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특정한 배경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수리 문항 또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으며, 문제 풀이 과정이 과도하게 복잡하지 않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넘어서는 개념을 활용하여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공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되었다.

또한, 문항 카드의 활용을 통해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문항카드에는 각 제시문의 출처, 문항과 교육과정 간의 연계성, 출제 근거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논술 문항이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채점 기준을 세분화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학생 개인의 논리적 사고력을 변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했을 때,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고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있으며, 출제 문항의 내용과 난이도가 교육과정 내에서 요구하는 필수 학습 요소와 성취기준을 반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문항의 난이도는 일반적인 고등학생이 공교육을 통해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출제된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한 개선 노력 및 차기 반영 계획

본 위원회는 금년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26학년도 대학별 고사 운영이 이후 차년도 대학별 고사 운영에 있어서도 동일한 수준의 타당성·공정성·설명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안전장치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설정한다. 특히 결과 제시에 있어 단순히 ‘적합했다’는 진술을 반복하기보다, 영향평가 결과가 차년도 대학별 고사 운영에서 어떠한 절차·기록·공개 체계로 재현되는지를 명료하게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가. ‘교과서 기반성’ 검증 절차의 내재화 및 문항카드 표준 항목 고정

첫째, 성취기준이 포괄적으로 제시되는 상황에서는 제재(소재)의 적정성이 교육과정 연계성 논증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2027학년도에는 성취기준 준수 여부 점검을 기본으로 하되 교과서 기반 제재 검증을 문항 개발의 필수 절차로 명문화한다. 구체적으로 문항카드에 (1) 성취기준, (2) 핵심개념·평가요소, (3) 교과서 학습 맥락(학습 활동·탐구·사례·읽기 자료 등)의 근거를 연계하여 기재하는 방식을 표준화하고, 제재가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교과서 근거에 기반한 ‘제재 정당화 근거’를 필수로 남기도록 운영한다.

아울러 교과서 외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과정의 필수 학습 요소와 교과서 학습 경험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내용을 재구성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는 제시문 내부에 충분히 제공한다는 원칙을 강화한다. 이는 외부 자료 자체를 전제 지식으로 요구함으로써 사교육 의존이 확대되는 경로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설정한다.

나. 출제 전 단계 환류 강화: 기출-교육과정-교과서 기반 사전 점검 체계 고도화

둘째, 영향평가가 사후 판정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으로 기능하도록 2027학년도에는 출제 전 단계의 환류 체계를 고도화한다. 전년도 영향평가 및 자문 과정에서 축적된 점검 포인트를 출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정리하고, 이를 출제·검토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공유한다. 또한, 기출 제재·평가요소 분석과 교육과정·교과서 기반 자료 분석을 통합한 출제 참고자료를 운영하여, 출제 단계에서 제재 선정과 평가요소 설정이 공교육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출제위원 연수 또한 교육과정 범위 안내에 한정하지 않고, 교과서 기반 제재 선정 원칙, 외부 자료 재구성 원칙, 정보 제공 수준 점검, 채점 요소-예시답안 간 정합성 점검 방법을 포함하도록 구성하여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을 출제 단계에서부터 최소화한다.

다. 고교 현장 교원 및 외부위원 참여의 질적 강화

셋째, 고교 현장 전문가 참여는 단순한 참여 여부를 넘어 검토 단계의 역할을 세분화하고 교육과정 적합성 점검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2027학년도에는 출제 사전 단계(제재 적정성·교과서 기반성 점검), 출제 과정(문항카드 기재의 적정성·정보 제공 수준 점검), 출제 후 단계(오해 가능성·난이도 편차·채점 기준 정합성 점검)로 역할을 구분하여 참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또한, 외부위원 구성에서는 교과 전문성과 관점 다양성(교과·지역·학교 유형 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선정·운영의 기록·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같은 접근은 참여를 수치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참여가 수행하는 안전장치의 내용과 기능을 보고서에서 명확히 보여주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라. 고난도 문항 점검의 ‘체크리스트-근거 기록’ 방식 표준화

넷째, 금년도에 적용한 고난도 문항 점검 기준을 2027학년도에는 체크리스트 기반의 기록·관리 체계로 표준화하여 동일 기준의 재현 가능성을 강화한다. 인문·사회·영어는 전문 용어·정보 단서의 충분성·배경지식 의존 가능성 중심의 점검 항목을, 자연계는 과도한 개념 복합·불필요한 경우 분류·범위 밖 지식 우회 가능성 중심의 점검 항목을 정리하여 문항카드에 점검 결과와 근거를 일관되게 남긴다.

아울러 경계 사례(판단이 애매한 제시문·문항)는 정보 제공 수준 보강, 어휘·구문 조정, 요구 사고 수준 조정 등 사전 조치 유형을 마련해 적용함으로써 사후 판단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 가능하도록 관리한다. 이는 다수 대학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방식의 장점을 본교 체계에 맞게 내재화하는 개선으로 볼 수 있다.

마. 채점기준-예시답안 정합성 및 설명가능성 강화

다섯째, 채점의 공정성과 수험생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점 요소의 단계화 원칙과 예시답안의 타당성 점검을 지속한다. 2027학년도에는 문항카드에 채점 요소(핵심 개념·사고 과정·필수 근거)의 구조를 표준화하여, 채점 기준이 문항 요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를 사전·사후에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풀이기술’ 중심 대비를 유발하는 요소를 줄이고, 공교육 기반의 읽기·쓰기·추론 역량으로 해결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을 유지한다.

바. 수요자 정보 제공의 지속 및 공교육 접근성 강화

여섯째, 수험생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해설·안내 자료 제공과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접근성 제고를 병행한다. 이때 정보 제공은 단순한 자료 나열이 아니라, 문항이 요구하는 사고 과정(분류·요약, 비교·평가, 적용·추론, 자료 해석 등)과 학교 수업 기반 학습 경험의 연결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제재 암기나 기술 학습이 아니라 공교육 기반 준비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계화한다.

사. 자연계 운영 방침: 문항 구성의 큰 틀 유지, 품질관리 기록 체계 강화

일곱째, 자연계 논술은 출제 범위 및 문항 구성의 큰 틀을 유지한다. 다만 운영 구조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만큼, 문항 분석 기준(균형성-성취기준/범위 적합-고난도 유형 점검-교수·학습/평가 유의사항 준수)에 대한 기록 체계를 표준화하여 교육과정 적합성의 설명 가능성을 강화한다. 즉 ‘변경 없음’이 운영의 정체로 해석되지 않도록, 분석과 점검의 근거가 문항카드와 보고서 산출물에 일관되게 남도록 관리한다.

아. 사후 피드백의 차기 반영 명료화

여덟째, 출제·평가 협의회 및 출제위원 설문 등 사후 피드백을 차년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환류 체계를 보다 명료화한다. 2027학년도에는 의견 수렴 항목을 표준화(교육과정 적합성, 자료 제공 수준, 난이도, 오해 가능성, 채점 기준의 구체성 등)하고, 반영 여부를 ‘반영/부분 반영/미반영 및 사유’로 기록하여 차기 보고서에서 추적 가능하도록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VI. 부록 - 고사별 문항 카드

문항카드 1. 논술전형 인문 T1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논술고사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토요일 T1 - 인문계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영어 I, 한국사, 동아시아사, 사회·문화, 경제,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 미술
	핵심개념 및 용어	모방, 디토 소비, 한단지보, 법고창신, 생체모방기술, 모방시, 양무운동, 케데헌, 지브리, AI 이미지, 오마주
예상 소요 시간	9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



리히텐슈타인의 <알제의 여인>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1963년작 <알제의 여인>은 파블로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정물과 인물을 여러 시점에서 변주하던 피카소의 특성을 리히텐슈타인이 현대적 기법으로 새롭게 풀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피카소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을 입체적으로 담아내는 이른바 큐비즘(cubism)을 창시하였고, 고전 미술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표현 방식을 탐구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 그의 <알제의 여인들> 역시 그러한 실험정신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이다. 한편, 이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리히텐슈타인의 <알제의 여인>은 피카소의 것보다 더 기하학적이고 추상적이다. 이런 특징은 피카소의 화법을 단순히 모방한 게 아니라 피카소의 조형 언어를 팝아트의 방식으로 새롭게

변형·확장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왔다. 그렇다고 해서 리히텐슈타인이 변화만을 추구한 것은 아니다. 그는 피카소가 추구했던 ‘전통적 재현 방식에 대한 도전 정신’도 계승했다.

— 『MY ART BROKER』 재구성

(나)

최근 유통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단연 ‘디토(ditto) 소비’이다. Ditto는 라틴어로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디토 소비는 유명인의 소비 패턴을 모방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현상을 칭한다. 이 점에서 단순히 대중적으로 유행하는 상품을 소비하는 것과는 다르다. 디토 소비는 SNS를 기반으로 Z세대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나타났다. 문제는 디토 소비로 인해 유통 채널 전반에 재고 운영, 상품 구성,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인플루언서의 언급만으로 수요가 급등락하는 현상이 반복되면 유통사는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고 과잉 또는 품절이라는 리스크에 반복적으로 노출된다. 이와 같은 소비 현상은 단기 노출 효과에 치우친 편향적 상품 구성, 과도한 마케팅 비용 지출, 자체 브랜드(PB)·전략 상품의 존재감 약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 『매일경제』 재구성

(다)

전국(戰國)시대 조(趙)나라의 한단(邯鄲)에 사는 사람들의 걸음걸이에는 멋이 있었다고 한다. 북쪽 연(燕)나라의 수릉(壽陵)이라는 곳에 살던 한 청년은 한단 사람의 걷는 모습이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고 매우 부러워했다. 그는 ‘만약에 내가 한단 사람의 걸음걸이를 배워온다면, 연나라에서 유명해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청년은 한단 사람들의 걷는 모습을 배우기 위해 먼 길에도 불구하고 한단까지 갔다. 그의 눈에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는 소문대로 품격이 있어 보였다. 그는 곧바로 걸음걸이를 모방하기 시작했다. 청년은 한단의 큰길에서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고 따라 했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똑같이 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원래의 걸음걸이를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로 결심했다. 걸음마를 시작하는 것처럼, 발을 뻗 때마다 발의 모양새를 어떻게 들고 또 어떻게 놓는지를 생각했다. 또한 다리와 팔의 조화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몇 달 동안 연습을 했으나 한단 사람들의 걷는 법을 배울 수 없었고, 오히려 원래 걷는 법마저도 잊게 되었다. 결국 청년은 팔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기어서 간신히 연나라로 돌아왔다.

—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재구성

(라)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기술에 적용한 사례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라이트 형제는 대머리수리의 비행을 관찰해 비행기를 설계했고, 이순신 장군은 거북이의 형태를 모방해 거북선을 만들었다. 최근에는 가오리의 움직임을 본뜬 생체형 드론(무인항공기)이 개발되어 저수지의 수질을 측정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생체모방기술(biomimetics)에 기반을 둔 것이다. 생체모방기술은 ‘생명’을 뜻하는 bio와 ‘모방’을 뜻하는 mimesis의 합성 조어로, 자연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기능을 모방해, 생산·설계 등에 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과학자들이 생물에 주목하는 이유는 생물이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특정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해 온, 말 그대로 ‘검증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또한 생물은 물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 산물 역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삶을 더욱 풍요롭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 『더 사이언스 타임즈』 재구성

(마)

모방시(模倣詩)는 기존 시를 본떠서 쓰는 시, 즉 다른 시의 형식·주제·어조 등을 모방하여 창작한 시를 말한다. 원작을 똑같이 베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넣어 변형하거나 응용하는 창작 방식이라는 점에서 표절과는 다르다. 가령 원작 시의 운율과 표현법은 그대로 따르되, 새로운 소재와 주제를 담아낼 수 있다. 원작이 ‘별’을 소재로 했다면, 모방시는 ‘달’을 소재로 새로운 주제를 표현할 수 있다. 장정일 시인의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은 모방시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시는 널리 알려진 김춘수 시인의 <꽃>의 형식과 표현을 그대로 빌어와 새로운 소재와 주제로 변주한 것이다. <꽃>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연으로 시작한다. 장정일은 이 연을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 그는 다만 /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로 변형하였다. 그 뒤로 이어지는 나머지 연들도 <꽃>의 운율이나 통사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장정일은 꽃을 라디오로 바꾸어,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현대인의 사랑을 비판한다. 이처럼 모방시는 원작의 의미·정서·구조 등을 창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한다.

- 고등학교 교과서 『문학』 재구성

(바)

양무운동은 중체서용(中體西用)을 기치로 내세워 중국의 전통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도입해 자강(自強)을 추구한 근대화 운동이었다. 서양식 무기를 중심으로 한 군사 개혁과 더불어, 해외 유학생 파견과 서양 과학기술 기관 설립 등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이 운동은 겉보기에는 일정한 성과를 거둔 듯했으나 여러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서양의 선진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자강을 실현하려 했지만, 개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채 서양식 무기를 비롯한 외형만을 모방하여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결국 청·일 전쟁을 계기로 양무운동 세력은 외형적 모방의 한계를 절감하게 되었다.

— 고등학교 교과서 『동아시아사』 재구성

(사)



영화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는 ‘헌트릭스’라는 K팝 아티스트이자 퇴마사 그룹의 이야기다. 이 영화에는 헌트릭스가 걸어온 길을 설명하며 선대 퇴마사를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때 다양한 3인조 여성 가수가 등장하는데, 제작진은 이 장면에서 한국의 실제 걸그룹을 의도적으로 등장시킨다. 예를 들면 영화 초반에서 ‘저고리 시스터즈’와 ‘김 시스터즈’가 나온다. 저고리 시스터즈는 조선악극단 여성 단원을 중심으로 1939년 결성된 한국 최초의 걸그룹이다. 김 시스터즈는 저고리 시스터즈의 리더였던 가수 이난영의 두 딸과 그의 조카로 구성된 그룹이다.

1953년에 데뷔한 김 시스터즈는 1959년 미국에 진출했고, 1973년까지 14년 동안 활동을 이어갔다. <케데헌> 제작진은 완벽한 고증을 통해 한국 걸그룹의 계보를 치밀하게 복원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걸그룹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현대적 감각과 판타지적 스토리를 더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케데헌>에서 이처럼 과거 걸그룹을 소환한 이유는 K팝과 그 뿌리에 대한 존경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케데헌> 감독은 한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이 영화는 K팝에 대한 헌사이자 러브레터다. 정말 한국적 뿌리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힌 바 있다.

— 『한경비즈니스』 재구성

[문제 1]

(가) ~ (바)를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80점)

[문제 2]

<보기 1>의 ‘법고창신’의 관점에서 (가)의 리히텐슈타인과 <보기 2>의 AI를 비교·평가하십시오.
(450자 내외, 320점)

<보기 1>

조선시대에 옛것을 본받는 것과 새것을 창조해 내는 일 중 무엇이 더 중한가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암 박지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옛것을 본받는 자들은 그 옛것에 구속되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병폐이고, 새것을 창조해 내는 사람들은 불경한 것이 병폐이다.”

이처럼 연암은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를 택할 것이 아니라 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통합적 관점을 ‘법고창신(法古創新)’이라고 칭했다. ‘법고창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건 1: 옛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 줄 알아야 한다.

조건 2: 새로운 것을 만들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

<보기 2>

“지브리 풍으로 바꿔줘”라는 말 한마디면, 사진 속 인물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손을 거친 듯한 그림으로 재탄생한다. 생성형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손쉽게 이미지를 만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창의적인 요소를 더하지 않고 원작자의 화풍은 물론, 작품의 구성, 색채, 모티브까지 그대로 모방한다. AI가 만든 지브리 이미지는 하나의 창작물처럼 보이지만, 그런 이미지를 예술로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AI의 그림에는 지브리스튜디오가 추구해 온 근본적 가치, 나아가 그런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거처온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연과 인간의 조화, 내면적 성장, 일상의 아름다움, 전쟁과 폭력에 대한 성찰과 같은 본질적 요소들이 빠져 있다. 이러한 세계관 없이 만들어진 지브리 풍 이미지는 지브리의 외형적 특징만을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미야자키 하야오는 AI가 만든 이미지를 두고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문제 3]

<보기 3>을 토대로 (사)의 사례가 오마주(hommage)로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보기 3>

Hommage, a French term for “respect” or “reverence,” refers to an artist’s conscious tribute* to another artist or work. It differs from mere copying or parody in several respects. First, *hommage* is always intentional: the artist deliberately evokes the earlier work and invites the audience to recognize the connection between the two. Second, *hommage* involves transformation. It does not simply reproduce the original; instead, it recreates elements of the earlier piece in a new context, allowing the artist’s own interpretation to emerge. Third, *hommage* is built on respect. Unlike parody, which may twist or make fun of its original, *hommage* carries a feeling of gratitude for the earlier ideas that helped shape the artist’s vision. Only when these three elements come together does *hommage* become a creative dialogue across time, one that honors tradition while creating new value.

* tribute: 헌사, 감사, 찬사

2026학년도 T1 인문계 문항 세트는 총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판·평가,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한 문항이다. 세 문항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가)에서 (사)까지, 총 일곱 개의 제시문과 세 개의 <보기>를 제시하였고, 제시문과 보기는 예술, 경제, 역사,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정하였다.

[문제 1]에서는 (가)~(바)의 제시문을 분류, 요약하게 하였고, [문제 2]에서는 (가)를 다시 활용하게 하되, <보기 1>, <보기 2>를 추가하여 비교·평가하게 하였다. [문제 3]에서는 <보기 3>의 영어 지문을 근거로, 제시문 (사)의 특성을 추론하게 하였다. 세 개의 문항은 각각 분류 능력, 비교 능력, 추론 능력을 집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전반적으로 핵심어와 요지 등을 짧은 시간 내에 이해하고,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도 함께 측정하고자 하였다.

시험시간(90분)에 맞게 [문제 1]의 답안 분량은 400자 내외, [문제 2]는 450자 내외, [문제 3]은 500자 내외로 설정하였다. 문항당 배점은 280점, 320점, 400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문항별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다. [문제 1]에서는 (가)부터 (바)까지 다양한 종류의 ‘모방’을 다룬 여섯 개의 제시문을 읽은 후, 그 내용을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이라는 두 핵심어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섯 개의 제시문을 요약하게 함으로써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요지 파악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2]에서는 [문제 1]에서 제시된 ‘모방’이라는 키워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옛것을 모방하는 것과 새것을 창조해 내는 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고려해야 할 문제임을 지적한 연암 박지원의 ‘법고창신’ 개념을 <보기 1>로 제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와 <보기 2>를 비교하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가)는 피카소의 작품 <알제의 여인들>을 테마로 하여, <알제의 여인>을 그린 리히텐슈타인의 사례를 제시하고, <보기 2>는 지브리 스튜디오의 이미지를 단순 모방한 AI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 문제에서는 두 사례 모두 ‘모방’이라는 넓은 범주에 속하면서도, 어떤 측면에서 서로 다른지를 비교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창의적 해석을 더한 리히텐슈타인과 단순한 외형적 모방에 그친 AI 간의 차이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했다.

[문제 3]에서는 적용 능력과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모방의 사례로 ‘오마주’ 개념을 추가로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제시문에 담긴 내용이 오마주로 간주될 수 있는 근거를 추론하도록 했다. 우선, 영어 지문 <보기 3>은 오마주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보여준다. 오마주는 원작과의 관계를 관객이 알아차리도록 의도된 것이어야 하며, 원작을 나름의 방식으로 변형시킨 것이어야 하고, 그 안에 원작에 대한 존경이 담겨 있어야 한다. <케이팝데몬헌터스>를 다룬 제시문 (사)에는 오마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제작자가 의도적으로 한국 걸그룹을 등장시킨 점, 그들을 현재에 맞게 변형시킨 점, K팝에 대한 제작자의 존경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을 (사)에서 끌어내고, 이를 토대로 <케데헌>이 오마주의 요건을 충족함을 추론하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했다.

<보기 3>

Hommage, a French term for “respect” or “reverence,” refers to an artist’s conscious tribute* to another artist or work. It differs from mere copying or parody in several respects. First, *hommage* is always intentional: the artist deliberately evokes the earlier work and invites the audience to recognize the connection between the two. Second, *hommage* involves transformation. It does not simply reproduce the original; instead, it recreates elements of the earlier piece in a new context, allowing the artist’s own interpretation to emerge. Third, *hommage* is built on respect. Unlike parody, which may twist or make fun of its original, *hommage* carries a feeling of gratitude for the earlier ideas that helped shape the artist’s vision. Only when these three elements come together does *hommage* become a creative dialogue across time, one that honors tradition while creating new value.

* tribute: 헌사, 감사, 찬사

<보기 3> 한국어 번역

오마주(hommage)는 “존경” 혹은 “경의”에 해당하는 프랑스어로, 예술가 혹은 예술 작품에 대한 의식적 찬사를 뜻한다. 오마주는 모방이나 패러디와 몇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첫째, 오마주는 언제나 의도적이다.** 예술가는 기존의 예술 작품을 의도적으로 환기하여 관객이 두 작품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차리도록 만든다. **둘째, 오마주는 변형을 수반한다.** 오마주는 원작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창조함으로써 예술가 자신의 고유한 해석이 드러나도록 한다. **셋째, 오마주는 존경을 기반으로 한다.** 원작을 비틀거나 희화화하는 패러디와 달리, 오마주는 예술가의 관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 과거 예술가들의 발상에 대한 감사를 표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할 때 오마주는 시대를 초월한 창조적 대화가 되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전통을 기리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20-255호 [별책 14] “영어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table> <tr> <td colspan="2">1. 국어과 교육과정</td></tr> <tr> <td colspan="2">과목명: 국어</td></tr> <tr> <td>성취기준1</td><td>[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td></tr> <tr> <td>성취기준2</td><td>[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td></tr> <tr> <td>성취기준3</td><td>[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td></tr> <tr> <td>성취기준4</td><td>[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td></tr> <tr> <td>성취기준5</td><td>[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td></tr> <tr> <td colspan="2">과목명: 화법과 작문</td></tr> <tr> <td>성취기준1</td><td>[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td></tr> <tr> <td>성취기준2</td><td>[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td></tr> <tr> <td>성취기준3</td><td>[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td></tr> <tr> <td colspan="2">과목명: 문학</td></tr> <tr> <td>성취기준1</td><td>[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td></tr> </table>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성취기준1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성취기준2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성취기준3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성취기준4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5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성취기준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2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3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과목명: 문학		성취기준1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성취기준1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성취기준2	[10국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성취기준3	[10국02-03] 삶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읽는다.																										
성취기준4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5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과목명: 화법과 작문																											
성취기준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2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성취기준3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과목명: 문학																											
성취기준1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성취기준2	[12문학02-02] 작품을 작가, 사회·문화적 배경, 상호 텍스트성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한다.	문제1
성취기준3	[12문학02-03] 문학과 인접 분야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4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5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6	[12문학02-06] 다양한 매체로 구현된 작품의 창의적 표현 방법과 심미적 가치를 문학적 관점에서 수용하고 소통한다.	문제1 문제2 문제3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제2 문제3
성취기준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문제2 문제3
성취기준5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6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7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8	[12독서03-06]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수용과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읽는다.	문제2 문제3

2. 영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영어 I		관련
성취기준1	[12영 I 03-01]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3
성취기준2	[12영 I 03-02]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3
성취기준3	[12영 I 03-03]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3
성취기준4	[12영 I 03-04]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3
성취기준5	[12영 I 03-06] 일반적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문제3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한국사		관련
성취기준1	[10한사05-01] 흥선 대원군의 통치 체제 재정비 노력과 통상 수교 거부 정책, 강화도 조약 체결의 대내외적 배경, 개항 이후 추진된 개화 정책의 내용을 파악한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2	[10한사05-02] 개화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근대 문물 수용에 따른 사회 변화를 탐구한다.	문제1 문제2

과목명: 동아시아사		관련
성취기준1	[12동사04-01] 개항 이후 나타난 국제 관계의 변동을 살펴보고,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근대화 운동을 비교한다.	문제1
성취기준2	[12동사04-02] 제국주의 침략의 실상과 일본 군국주의로 인한 전쟁의 확대 과정을 살펴보고, 그에 대항한 각국의 민족 운동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문제1
성취기준3	[12동사04-03] 동아시아 각국에서 서양 문물의 수용으로 나타난 사회·문화·사상적 변화 사례를 비교한다.	문제1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1	[12사문03-01]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설명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 및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문제1

성취기준2	[12사문03-02] 하위문화의 의미를 주류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다양한 하위문화의 특징과 기능을 분석한다.	문제1
성취기준3	[12사문03-03]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문제1
성취기준4	[12사문03-04] 문화 변동의 요인과 양상을 탐구하고 문화 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1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기준1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문제1
성취기준2	[12경제02-02] 경쟁 시장에서 결정된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총잉여의 극대화)이 이루어짐을 이해한다.	문제1
성취기준3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	문제1
성취기준4	[12경제02-04] 시장 실패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 개입과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1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1	[10통사07-02] 문화 변동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전통문화가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문제1
성취기준2	[10통사07-03]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대주의적 태도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보편 윤리의 차원에서 자문화와 타문화를 성찰한다.	문제1
성취기준3	[10통사07-04]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문제1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1	[12생윤05-01]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예술과 윤리의 관계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대중문화의 문제점을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1
성취기준2	[12생윤05-02] 의식주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이를 윤리적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으며 윤리적 소비 실천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문제1
성취기준3	[12생윤05-03]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를 다문화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오늘날 종교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문제1

4. 미술과 교육과정		
과목명: 미술		관련
성취기준1	[12미02-01] 다양한 발상 방법을 활용하여 새로운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문제1
성취기준2	[12미02-02] 조형 요소와 원리를 다양하게 응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문제1
성취기준3	[12미02-03] 여러 가지 표현 매체의 조합이나 응용·확장을 통해 새로운 표현 효과를 탐색할 수 있다.	문제1
성취기준4	[12미02-04] 주제와 표현 의도, 재료와 표현 방법, 매체, 표현 과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문제1
성취기준5	[12미02-05] 작품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작품을 수정하거나 다음 작품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문제1

2. 자료 출처

교과서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미술	조우호	미래엔	2018	30~39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150~154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164~169	제시문 (나)	○
고등학교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20	52~95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사회·문화	손영찬 외	미래엔	2020	101	제시문 (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79	제시문 (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탁준 외	지학사	2020	114~121	제시문 (라)	○
고등학교 문학	한철우 외	비상	2020	86~87	제시문 (마)	○
고등학교 한국사	노대환 외	동아출판	2020	86	제시문 (바)	○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김태웅 외	미래엔	2020	130	제시문 (바)	○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Roy Lichtenstein: Pop Art's Intellectual https://bianca-ariel.blogspot.com/2016/06/roy-lichtenstein-3-picasso.html	Isabella de Souza	Myartbroker	2024	-	제시문 (가)	○
셀럽 따라 나도...디토 소비에 눈뜨셨네요 https://www.mk.co.kr/news/business/11071086	반진옥	매일경제	2024	-	제시문 (나)	○
자연모방의 시대, 생체모방기술 https://www.sciencetimes.co.kr/nscvrg/sch/menu/270?thisPage=1&searchField=title&searchText=%EC%83%9D%EC%B2%B4%EB%AA%A8%EB%B0%A9%EA%B8%B0%EC%88%A0	정교민	더 사이언스 타임즈	2009	-	제시문 (라)	○
고중 미쳤다"...케데헌 속 완벽한 K-이스터에그 모아보니[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⑤]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7162983b	최수진	한경비즈니스	2025	-	제시문 (사)	○

5 문항 해설

[문제 1]에서는 (가)~(바)를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으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 (라), (마)는 ‘긍정적 모방’으로, (나), (다), (바)는 ‘부정적 모방’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두 키워드를 바탕으로 6개의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요약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고자 했다.

[문제 2]에서는 ‘법고창신’에 관한 지문(보기 1)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와 AI 이미지에 관한 지문(보기 2)을 비교하도록 했다. (가)의 리히텐슈타인은 <알제의 여인들>을 토대로 피카소의 도전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해석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법고창신에 부합하지만, AI가 만든 지브리풍 이미지는 외형적 모방에만 머무르고 지브리스튜디오가 추구한 가치를 계승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고창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제 2]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고 조직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문제 3]에서는 오마주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케이팝데몬헌터스>를 다룬 제시문 (사)를 오마주라는 키워드로 해석하도록 했다. <보기 3>에서 제시된 오마주의 요건, 즉 의도성, 변형, 존경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사)에서 찾아낸 후 케데헌이 오마주로 평가받을 수 있음을 추론하도록 했다.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 여섯 개의 제시문을 읽고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여섯 개의 제시문이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 중 어떤 것에 해당하는냐에 따라 (가), (라), (마)는 긍정적 모방으로, (나), (다), (바)는 부정적 모방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함 - 각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함	280
문제2	- <보기 1>에 드러난 연암 박지원의 ‘법고창신’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토대로 (가)의 리히텐슈타인과 <보기 2>의 AI가 만든 지브리 풍 이미지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가)의 리히텐슈타인이 피카소의 작품을 재현하면서도 도전 정신을 계승하고 창의적 해석을 덧붙인 것에 반해, AI가 만든 지브리 풍 이미지는 지브리스튜디오가 추구해 온 가치 구현 없이 외형적 모방에 그쳤음을 이해해야 함 - 따라서 (가)의 리히텐슈타인은 법고창신의 정신에 부합하는 반면, <보기 2>의 AI 이미지는 법고창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교, 기술할 수 있어야 함	320
문제3	- <보기 3>의 영어 제시문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제시문 (사)의 <케이팝데몬헌터스(케데헌)>가 어떤 측면에서 ‘오마주’에 해당하는지를 추론할 수 있어야 함 - <보기 3>에서 제시한 ‘오마주’의 세 가지 요건(의도성, 변형, 존중)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 <보기 3>을 제시문 (사)에 적용하여, 케데헌이 오마주에 해당하는 세 가지 근거를 모두 찾아내야 함 - 이를 토대로 제시문 (사)가 오마주의 사례임을 추론해야 함	400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제시문 (가), (라), (마)를 ‘긍정적 모방’으로, 제시문 (나), (다), (바)를 ‘부정적 모방’으로 분류하여 기술한 경우 • (가)~(바)를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게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법 오류가 한두 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가)~(바)를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하지 못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pm 10\%$를 벗어나고, $\pm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긍정적 모방’과 ‘부정적 모방’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과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pm 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 <보기 1>의 법고창신이 옛것을 통해 새것을 만들면서도 근본정신은 잃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임을 정확히 기술한 경우 - 요건2 : (가)의 리히텐슈타인은 피카소의 작품 <알체의 여인들>의 테마를 모방하였으나 피카소의 도전 정신을 계승하면서도 자신만의 창조적 해석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법고창신의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함을 기술한 경우 - 요건3 : <보기 2>에서 AI가 만든 지브리 풍 이미지는 원작의 외형적 모방에 그치고 지브리스튜디오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계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고창신의 두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 않음을 기술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2,3 중 1개 항목 누락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B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항목 포함되거나 2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중 2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4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중 3개 항목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3]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 <보기 3>의 영어 지문에서 제시한 오마주의 세 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기술한 경우 - 요건2 : <보기 3>의 세 가지 조건을 제시문 (사)에서 모두 기술한 경우 - 요건3 : 제시문 (사)가 오마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확히 추론하여 기술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게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2,3 중 1개 항목 누락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B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항목 포함되거나 2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중 2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4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중 3개 항목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1] (400자 내외)

제시문 중 (가), (라), (마)는 긍정적 모방으로, (나), (다), (바)는 부정적 모방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가)는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을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리히텐슈타인의 창작 사례를 제시한다. (라)는 다양한 영역에서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만든 생체모방기술을 설명하고, (마)는 원작의 의미·정서·구조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모방시를 소개한다. 한편, (나)는 유통 채널 전반에 다양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디토 소비를 다루고 있으며, (다)는 한단 사람들의 걸음걸이를 맹목적으로 따라 해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전한다. (바)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채 서구의 외형만을 모방하여 실질적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양무운동의 역사를 소개한다. (395자)

[문제 2] (450자 내외)

<보기 1>에서 언급된 연암의 ‘범고창신’은 옛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만들 줄 알아야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두 제시문에 적용해 보면, (가)의 리히텐슈타인은 피카소의 <알제의 여인들>이라는 기존 작품에 팝아트적인 해석을 새롭게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조건 1을 충족한다. 또한 피카소가 지녔던 도전 정신을 계승했다는 점에서 조건 2도 만족한다. 한편 <보기 2>의 AI는 창의적인 요소를 더하지 않고 지브리의 화풍 등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점에서 조건 1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지브리의 외형적 특징만을 재현할 뿐, 지브리가 추구해 온 자연과 인간의 조화, 내면적 성장과 같은 근본적 가치들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조건 2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히텐슈타인은 범고창신을 실천한 데 반해, AI는 범고창신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443자)

[문제 3] (500자 내외)

<보기 3>의 오마주란 예술가 혹은 예술 작품에 대한 의식적 찬사를 의미한다. 어떤 대상이 진정한 오마주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오마주는 작가가 의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오마주는 대상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창조적 변형을 수반한다. 셋째, 오마주는 기존 작품에 대한 존경을 토대로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케데헌>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제시문 (사)에 따르면 <케데헌>의 제작진은 저고리 시스터즈와 김 시스터즈와 같은 실제 걸그룹을 치밀한 고증을 통해 의도적으로 등장시켰다. 그러면서도 과거 걸그룹을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현대적 감각과 판타지적 스토리를 더해 창의적으로 재해석했다. 또한 감독이 밝혔듯이 <케데헌>에는 K팝의 뿌리였던 과거 걸그룹과 오늘날의 케이팝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해 볼 때 <케데헌>은 <보기 3>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오마주의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495자)

문항카드 2. 논술전형 사회 T2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논술고사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토요일 T2 - 사회계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문학, 통합사회, 미술
	핵심개념 및 용어	능동과 수동, 인공지능, 핵심 학습 역량,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타인과의 협업, 매출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질문하는 학교, 학습된 무기력, 윤리적 소비, 사회 인식과 대응, 지리의 영향력, 소재의 상징적 의미
예상 소요 시간	9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교육부에서는 2024년부터 전국의 학교 중 120개교를 선정하여 ‘질문하는 학교’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질문하는 학교란 학생의 자발적 질문과 상호 토론이 일상화되는 교실 수업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질문을 통해 사고력·문제해결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수업·평가 방식을 실천하는 학교이다. 질문하는 학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여 디지털 기반 질문 중심 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학생 참여형 탐구 수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질문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게 된다. 또한 학생들은 AI가 제공하는 답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호 토론과 다른 자료와의 교차 검토를 통해 그 정확성을 검증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게 된다. 이와 더불어 질문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간 활발한 상호작용과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숙고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역량을 자연스럽게 함양시킨다.

— 교육부, 「2024년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 운영 계획(안)」 재구성

(나)

1960년대 미국의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개를 그룹별로 나눠 전기충격을 가하고 대응 행동을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코로 버튼을 누르면 전기충격을 멈출 수 있게 한 그룹은 이후에도 고통을 피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한 반면, 버튼을 눌러도 전기충격이 계속 가해진 개들은 종국엔 고통을 감내할 뿐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셀리그만은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학습된 무기력은 반복적인 실패나 통제 불능의 경험으로 인해 새로운 시도나 변화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면서, 이후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려는 시도 없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학습된 무기력은 사회나 조직에서도 쉽게 확인되는 현상이다. 예를 들어, 기업에서 직원은 노력한 결과물에 대해 반복적으로 거절당하거나 지적받을 때 무력감에 빠지기 쉽다. 업무 자체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개선을 시도할 의욕조차 잃는 것이다.

— 〈중앙일보〉 기사 재구성

(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 주체성을 회복하는 운동이라는 관점에서 소비자의 권리인 동시에 소비자의 의무 또는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통해 환경과 노동, 인권, 동물 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초하고 있다. ‘똑똑한’ 소비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따져 묻고 개선을 요구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능동적으로 행동한다. 윤리적 소비를 선호하는 현상은 실제 시장 분위기도 변화시킨다. 최근 소비자들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친환경 제품의 품목이 다양해지고,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고등학교 교과서, 『통합사회』 및 『독서』 재구성

(라)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
개하고
웅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
인 년한테 욕을 하고
웅졸하게 욕을 하고

한 번 정정당당하게
붙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파병에 반대
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중략)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하략)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야경꾼 : 밤사이에 화재나 범죄가 없도록 살피고 지키는 사람

(마)

‘지리적 특성’은 지도자들에게 훨씬 적은 선택지만 주고 이를 조정하고 관리할 여지 또
한 생각보다 훨씬 적게 남겨둔다. 아테네 제국이나 페르시아 제국, 바빌로니아, 혹은 그
전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중략)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에 의해 형성돼 왔다. 전쟁, 권력, 정치는
물론이고 오늘날 거의 모든 지역에 사는 인간이 거둔 사회적 발전은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이뤄졌다. 물론 현대의 기술이 정신적, 물리적 거리를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 있다. 그런
데 여기서 간과하기 쉬운 게 있다. 지구라는 행성의 70억 인구에게 주어진 선택들은 늘
우리를 제약하는 강과 산, 사막과 호수, 그리고 바다에 의해 어느 정도는 결정된다는 것
이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일하고, 자녀를 길러내는 땅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다른 것보다 유독 중요한 지리적 요소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사막이라고
산악지대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며 강도 정글만큼이나 중요하다. 지구상의 서로
다른 지역의 서로 다른 지리적 특성들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는 지배적인 요소들에 포함된다.

— 팀 마샬, 『지리의 힘』

(바)



‘소’는 이중섭이 즐겨 그렸던 작품 소재 중 하나이다. 소는 인내와 끈기를 상징하는 민족적 표상이자, 작가 자신의 내면을 투영한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이중섭의 작품 〈황소〉에 등장하는 소는 역동적이며 강인한 모습이 특징이다. 이중섭은 기존의 통념과는 다르게 유순하고 순응적인 모습이 아닌 강인하고 근성 있는 모습의 소를 표현한 것이다. (중략) 이중섭의 굴곡진 삶을 지탱해 준 활동은 그림이었다.

그가 그린 수많은 그림들 중 강인한 소는 가장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대변하는 형상이었으며, 나아가 고난과 역경을 견뎌낸 민중들의 초상이기도 했다. 극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의지, 이것이 이중섭의 그림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랑을 받는 이유일 것이다.

— 서울미술관 작품 설명 및 김태현, 「이중섭의 소...왜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감동하는가」 재구성

[문제 1]

(가) ~ (바)를 ‘능동’과 ‘수동’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80점)

[문제 2]

<보기 1>을 바탕으로 (가)와 <보기 2>의 학습자를 비교·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320점)

<보기 1>

기술 발전으로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맞춘 학습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은 핵심 학습 역량으로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타인과의 협업을 제시한다. 첫째, 자기주도성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역량이다. 둘째, 비판적 사고는 주어진 정보나 주장을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사실적 증거에 기반하여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사고 역량이다. 셋째, 타인과의 협업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능력으로 의사 소통, 갈등 해결, 상호 존중 등이 중요하다.

<보기 2>

AI 사용이 일상화·보편화되면서, 두뇌 사용이 줄어든 인간의 지능이 퇴화할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스위스의 한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AI 도구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들일수록 사고 능력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 결과, AI 의존도가 높을수록 외부 도구에 사고를 맡기려는 경향인 ‘인지적 오프로딩(cognitive offloading)’이 발생하고, 이는 비판적 사고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럴 경우, AI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사실처럼 만들어내더라도, AI 의존도가 높은 학습자는 이것이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 한편 관련 연구에 따르면 학습자가 AI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과제에만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AI 과의존 학습자는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없이 AI에게만 묻고 즉각적으로 제공된 답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 〈조선일보〉 기사 재구성

[문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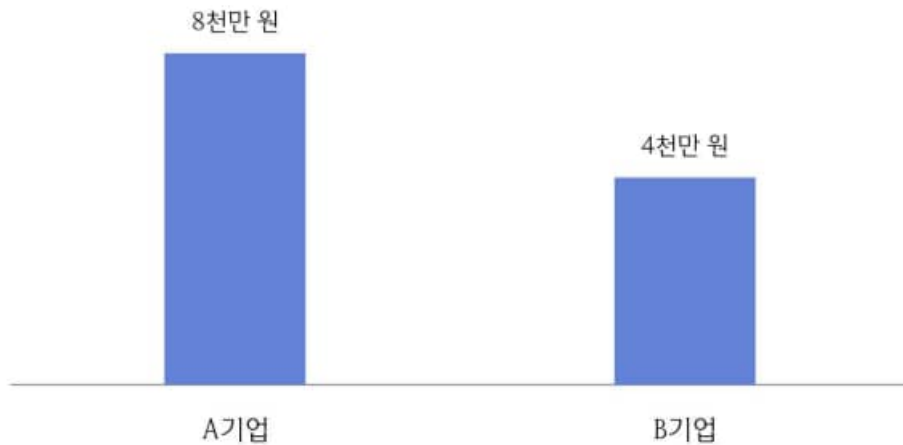
<표>와 <그림 1>은 최근 5년간 A기업과 B기업의 경영 방식을, <그림 2>는 두 기업의 사업 성과를 보여준다. (나)와 아래 표·그림을 바탕으로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과 연봉 중 어떤 요인이 매출액 증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 이유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 문제에 언급된 요인들 외에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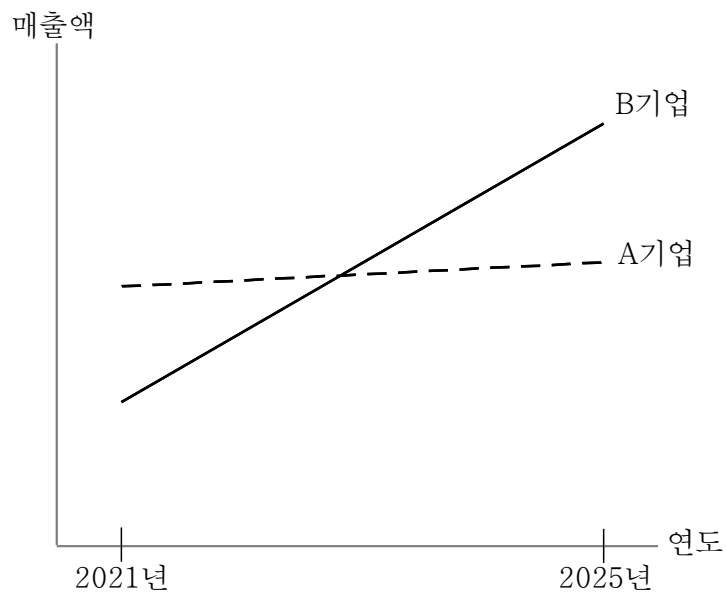
<표>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

	직원이 제안한 사업 아이디어 건수	제안된 아이디어 중 채택된 건수	채택률
A기업	120	6	5%
B기업	100	35	35%

<그림 1> 직원 평균 연봉



<그림 2> 매출액 변화 추이



3 출제 의도

본 문제는 ‘능동’과 ‘수동’, 두 제시어를 중심으로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은 제시어에 기초해 제시문들을 분류·요약하는 능력을, [문제 2]는 <보기>에서 ‘핵심 학습 역량’의 구성요소를 파악한 후, 이를 (가)와 <보기 2>의 학습자에 적용하여 차이점을 파악하고 두 학습자의 학습 역량을 비교·평가하는 능력을, [문제 3]은 제시문 (나)와 <표>·<그림>을 기초로 제시된 두 요인인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과 ‘직원 연봉’ 중 어떤 것이 더 ‘매출액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추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1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2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3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4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문제1
	성취기준5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문제1
	성취기준6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제1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1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2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제3
	성취기준3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문제2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1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1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제1
성취기준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문제1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1	[10통사05-02]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과 발전을 위해 요청되는 정부, 기업가, 노동자, 소비자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문제1
3. 미술과 교육과정		
과목명: 미술		관련
성취기준1	[12미03-01] 역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미술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다.	문제1

2. 자료 출처

교과서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독서	서혁 외	신사고	2019	28~29	제시문 (다)	○
고등학교 통합사회	구정화 외	천재교육	2018	155	제시문 (다)	○
고등학교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19	222~223	제시문 (라)	-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질문하는 학교 운영 계획	학교교수 학습 혁신과	대한민국 교육부	2023	1, 6~9	제시문 (가)	○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를 읽는 능력을 키워라 https://if-blog.tistory.com/13288	홍유정	대한민국 교육부	2022	—	제시문 (가)	○
“일에 회의감 들어 무력감” 입사 6~9년 과장급 63%가 경험 https://www.joongang.co.kr/article/19788900	김선미	중앙일보	2016	—	제시문 (나)	○
지리의 힘	팀 마샬	사이	2016	8~9	제시문 (마)	—
「이중섭의 소...왜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감동하는가」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3976	김태현	중기 이코노미	2019	—	제시문 (바)	○
황소	이중섭	서울미술관	1953	—	제시문 (바)	—
AI가 똑똑해질수록 길들여지는 인간... 지능 퇴화될 수도	김성모	조선일보	2025	—	문제2 보기	○

[문제 1]

‘능동’과 ‘수동’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을 분류하면, 제시문 (가), (다), (바)는 ‘능동’으로, (나), (라), (마)는 ‘수동’으로 분류된다. ‘능동’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제시문들을 요약하면, (가)에서 질문하는 학교는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학교라는 점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고, (다)에서 윤리적 소비는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며 건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소비라는 점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바)에서 그림의 소는 역경과 고난, 극한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능동적 소재라고 요약할 수 있다. 반면 ‘수동’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나머지 제시문들을 요약하면, 제시문 (나)에서 학습된 무기력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수동적 태도라는 점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고, (라)에서 ‘나’는 소설가가 붙잡혀 가는 등의 문제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옆으로 비켜서 있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고, (마)에서는 인간의 삶은 땅에 의해 형성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한 점을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다.

[문제 2]

<보기 1>에서는 핵심 학습 역량으로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타인과의 협업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먼저 제시문 (가)에 적용해 보면, 질문하는 학교의 학습자는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키운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성과 부합하고, AI가 제공하는 답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확성을 상호 토론과 다른 자료와의 교차 검토를 통해 검증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와 부합하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협력한다는 점에서 핵심 학습 역량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보기 2>의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학습자는,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며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성과 부합하지 않고,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사고와 부합하지 않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없이 AI에게만 묻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타인과의 협업과 부합하지 않는 학습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 3]

<표>를 보면, B기업의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이 A기업보다 월등히 높다. 이를 (나)에 적용해 보면, A기업은 직원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업무 의욕을 잃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매출액 증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어서 <그림 1>을 보면, A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이 B기업보다 상당히 높다. 정리하면,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 측면에서는 B기업이, 직원 연봉 측면에서는 A기업이 더 우월하다. 한편 <그림 2>를 보면, A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거의 증가하지 못했지만, B기업의 경우 매출액에 큰 증가가 있었다. 이는 A기업의 경우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기업 성과가 안 좋았던 반면, B기업의 경우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높은 업무 의욕으로 인해 기업 성과가 더 좋았음을 시사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이 연봉보다 매출액 증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 제시문 (가), (다), (바)는 ‘능동’으로, (나), (라), (마)는 ‘수동’으로 분리해야 함 - 각 제시문의 핵심내용이 ‘능동’ 또는 ‘수동’을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80
문제2	- <보기 1>의 핵심 학습 역량이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타인과의 협업임을 도출해야 함 - 위 세 조건을 제시문 (가)와 <보기 2>에 적용하여 (가)의 경우 학습자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능동적이며, 자료를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협력한다는 점에서 핵심 학습 역량에 부합한다는 점을 기술해야 함 - 그리고 <보기 2>의 경우 학습자가 스스로 질문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대응하며, 자료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타인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핵심 학습 역량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술해야 함	320
문제3	- <표>와 (나)에 기초해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과 제시문 (나)를 연결하여 ‘학습된 무기력’의 발생 과정을 파악하고 이것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기술해야 함 - <표>, (나), <그림 1>에 기초해,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 측면에서는 B기업이, 직원 연봉 측면에서는 A기업이 더 우월함을 파악해야 함 - 상기 영향 요인들과 <그림 2>의 매출액 결과를 연결하여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이 연봉보다 매출액 증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침을 추론해야 함	400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제시문 (가), (다), (바)를 ‘능동’으로, 제시문 (나), (라), (마)를 ‘수동’으로 분류하여 기술한 경우 • (가)~(바)를 ‘능동’과 ‘수동’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한 경우 • 내용 측면에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제시문 (가)의 요약에서 질문하는 학교는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능동적으로 탐구한다는 점을 기술함 - 제시문 (다)의 요약에서 윤리적 소비는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며, 건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을 기술함 - 제시문 (바)의 요약에서 그림의 소는 극한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상징한다는 점을 기술함 - 제시문 (나)의 요약에서 학습된 무기력은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수동적 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기술함 - 제시문 (라)의 요약에서 ‘나’는 문제 상황을 인식하지만, 절정 위에서 있지 않고 옆으로 비켜서 있는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기술함 - 제시문 (마)의 요약에서 지리적 특성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기술함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법 오류가 한두 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가)~(바)를 ‘능동’과 ‘수동’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하지 못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 $\pm 10\%$를 벗어나고, $\pm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능동’과 ‘수동’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과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 $\pm 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 <보기1>의 핵심 학습 역량으로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타인과의 협업을 도출하여 기술한 경우 - 요건2 : 자기주도성의 측면에서 (가)와 <보기 2>의 사례를 정확히 비교하여 기술한 경우 - 요건3 : 비판적 사고의 측면에서 (가)와 <보기 2>의 사례를 정확히 비교하여 기술한 경우 - 요건4 : 타인과의 협업의 측면에서 (가)와 <보기 2>의 사례를 정확히 비교하여 기술한 경우 - 요건5 : (가)를 핵심 학습 역량에 부합한 학습자로, <보기 2>를 핵심 학습 역량에 부합하지 않는 학습자로 평가하여 기술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2,3,4,5 중 1개 항목 누락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B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항목 포함되거나 2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중 2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4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중 3개 이상 항목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3]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 <표>에 기초해, A기업의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이 B기업보다 낮음을 기술하고, A기업은 직원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파악하여 기술한 경우 - 요건2 : 위 내용을 (나)에 적용해, A기업은 ‘학습된 무기력’이 발생하고 직원의 업무 의욕이 낮아져, 이것이 궁극적으로 매출액 증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추론하여 기술한 경우 - 요건3 : <그림 1>에 기초해, A기업의 직원 연봉이 B기업보다 높음을 기술하고, 결과적으로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 측면에서는 B기업이, 직원 연봉 측면에서는 A기업이 더 우월함을 파악하여 기술한 경우 - 요건4 : <그림 2>에 기초해, B기업의 매출액 증가가 A기업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상기 영향요인들과 연결하여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이 연봉보다 매출액 증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침을 추론하여 기술함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중 1개 항목 누락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B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항목 포함되거나 2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중 2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4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중 3개 이상 항목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1] (400자 내외)

제시문 (가), (다), (바)는 ‘능동’으로, (나), (라), (마)는 ‘수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능동’을 살펴보면, (가)의 질문하는 학교는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학교이고, (다)의 윤리적 소비는 기업에 개선을 요구하며 건전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능동적 소비이며, (바)에서 그림의 소는 극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한편 ‘수동’을 살펴보면 (나)의 학습된 무기력은 상황 개선을 시도하지 않는 수동적 태도이고, (라)의 ‘나’는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비켜서 있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마)는 지리적 특성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정하는 지배적 요소이고, 인간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402자)

[문제 2] (450자 내외)

<보기 1>에서 제시한 핵심 학습 역량은 자기주도성, 비판적 사고, 타인과의 협업이다. 이를 제시문 (가)에 적용해 보면, 질문하는 학교의 학습자는 학생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며, AI가 제공하는 답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확성을 검증함으로써 비판적 사고를 높이고,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협력한다는 점에서 핵심 학습 역량에 부합하는 학습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보기 2>의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학습자는, 스스로 질문을 제기하고 문제에 대한 해답을 탐구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며,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과 상호작용 없이 AI에게만 묻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에서 핵심 학습 역량에 부합하는 학습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449자)

[문제 3] (500자 내외)

<표>에 따르면, B기업의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이 A기업보다 월등히 높다. 이를 (나)에 적용해 볼 때, A기업은 직원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업무 의욕을 잃게 되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매출액 증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그림 1>을 보면, A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이 B기업보다 상당히 높다. 정리하면,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 측면에서는 B기업이, 직원 연봉 측면에서는 A기업이 더 우월하다. 한편 <그림 2>를 보면, A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거의 증가하지 못했지만, B기업의 경우 매출액에 큰 증가가 있었다. 이는 A기업의 경우 높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기업 성과가 안 좋았던 반면, B기업의 경우 낮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직원의 높은 업무 의욕으로 인해 기업 성과가 좋았음을 시사한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직원 아이디어 채택률이 연봉보다 매출액 증가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504자)

문항카드 3. 논술전형 인문 T3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논술고사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일요일 T3 - 인문계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독서, 화법과 작문, 문학, 영어 II, 영어 독해와 작문, 경제, 사회·문화, 미술
	핵심개념 및 용어	단일, 다중, 다시점,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 독점 시장, 레오나르도 다빈치, 오스미 요시노리, 인공지능, 일인칭 시점, 입체파, 통섭, SF 소설
예상 소요 시간	9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하나의 거대한 모델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제는 여러 개의 인공지능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동으로 작동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Multi-Agent System)’의 시대다.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에서는 시스템 환경 내 복수의 인공지능 모델이 특화된 기능별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자율적으로 협력해 빠르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한다. 각각의 단일 모델이 동일한 학습을 반복하는 대신, 다수의 모델이 각각 학습한 경험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문제 해결에 있어 효율성뿐 아니라 기억과 추론 능력을 비약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은 문제를 세분화하고 병렬로 해결하기 때문에 개별 모델이 서로를 교차·검증하며 오류를 감시할 수도 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업무 상황이나 전문성을 공유함으로써 결론을 도출하는 인간의 협업 구조와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 IBM,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재구성

(나)

시장의 진입 장벽이 높아 공급자가 오직 하나만 있는 시장을 독점 시장이라고 한다.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독점 시장에서 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통해 공급량을 줄여 가격을 올리거나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필요한 만큼의 재화나 서비스를 충분히 소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제품의 생산 기술이나 특허권을 한 기업이 가지고 있거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의 공급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철도, 가스, 전기 등 막대한 규모의 기반 투자가 필요한 경우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 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여 폐해를 줄이고자 한다.

- 고등학교 교과서, 『경제』 재구성

(다)

눈이 함빡 쌓인 흰 독길이다. 오! 이 독길..... 몇 사람이나 이 독길을 걸었을 거냐...... 흰칠히 트인 벌판 너머로 마주선 언덕, 흰 눈이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다. 똑바로 걸어가시오. 남쪽으로 내닫는 길시오. 것처럼 가고 싶어하던 길이니 유감은 없을 거요. 걸음마다 흰 눈 위에 발자국이 따른다. 한 걸음, 두 걸음 정확히 걸어야 한다. 사수(射手) 준비! 총탄 재는 소리가 바람처럼 차갑다. 눈앞엔 흰 눈 뿐, 아무 것도 없다. 인제 모든 것은 끝난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정확히 끝을 맺어야 한다. 끝나는 일초 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위에 제시된 글은 6·25 전쟁을 배경으로 사형 집행 전 삶의 마지막 한 시간 동안 주인공이 느끼는 실존주의적 고뇌를 다룬 소설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인칭 시점은 주어인 ‘나’가 작품에 직접 명시되지 않은 채 내포되어 있거나, 소설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나’가 서술자가 되어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다. 일인칭 시점은 ‘나’의 시점에서만 이야기를 서술하므로, 자연스럽게 독자로 하여금 서술자에게 쉽게 몰입하게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서술의 시점이 모두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 데 그치거나 ‘나’를 제외한 나머지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정확하게 묘사하기 힘들다는 서술상의 제약이 있다.

- 오상원, 「유예」 및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재구성

(라)

현대 사회와 같은 매우 복잡한 시대를 헤쳐 나가려면 특정한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인지 과학은 인간의 두뇌를 연구하는 분야이지만 인간의 두뇌는 한 가지 잣대로만 잴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심리학, 철학, 컴퓨터 공학, 기계 공학 같은 여러 학문들이 통섭하여 새로운 연구를 하고 있다. 최근 통섭이 바람직한 미래 학문 형태로 거론되면서 과학과 인문 과학, 사회 과학의 다양한 지식을 두루 섭렵하여 활용하는 통섭형 인재가 주목받고 있다. 물론 통섭의 시대라고 해서 각자의 정체성이 흐려지도록 마구 섞이라는 것은 아니다. 통섭의 핵심은 합병이 아니라 경계 완화이다. 인문학은 인문학대로 있고, 자연 과학은 자연 과학대로 있되, 서로 무엇을 하는지 들여다보며 뭔가 가능한 것을 찾아가자는 것이다.

-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재구성

(마)

일본 도쿄공업대학의 오스미 요시노리 명예교수는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였다. 1970년대 중반 세포 내 노폐물을 청소하는 ‘자가 포식(autophagy)’ 연구에 입문해 오랫동안 단일 연구에 매달린 결과다. 자가 포식은 세포 내에 쌓인 불필요한 단백질 찌꺼기 등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비상시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기능으로, 퇴행성 신경질환, 감염병 치료나 노화 방지 등 질병 치료에도 활용될 수 있다. 오스미 교수는 1974년 생물학 박사 학위 취득 후 자가 포식을 연구하기 시작하여 1980년대 현미경으로 자가 포식 현상을 관찰하는 데 성공했고, 1992년에는 효모를 이용해 자가 포식을 촉발하는 유전자를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 50년간 꾸준히 한 분야에 매진한 결과, 오스미 교수는 세포의 자가 포식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이끌어냈다.

- <조선일보> 기사 재구성

(바)

입체파는 20세기 초반에 시작된 서양미술 사조이다. 입체파 화가 후안 그리스의 <피카소 초상>에는 그림 속 인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해체되어 있어, 마치 기하학적 형태들로 만든 사람 모형처럼 보인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형태들을 뒤죽박죽으로 섞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입체파의 그림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화면의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모습이 달라진다. 입체파 화가들은 위치를 바꾸어가며 여러 각도에서 관찰한 모습을 종합해서 한 화폭에 담는다. 입체파의 표현 방식은 고정된 위치에서 대상을 관찰하는 전통 원근법을 탈피하여 전후좌우 등의 여러 각도에서 본 형태와 색채들을 확장된 시선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망하게 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사물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인식을 작품에 투영함으로써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 고등학교 교과서, 『독서』 재구성

[문제 1]

지문 (가) ~ (바)를 ‘단일’과 ‘다중’이라는 핵심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80점)

[문제 2]

아래 <보기>에 기초하여 제시문 (다)와 (바)의 시점을 구분하고 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320점)

<보기>

시점이란 작품 속에서 관찰자의 위치를 조정하여 이야기나 대상의 전달 방식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예술 작품은 그 시점에 따라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예술가는 단일 시점으로 대상이나 현상을 표현하거나, 고정된 위치에서 벗어나 다시점으로도 현실 세계를 재현할 수 있다. 단일 시점의 경우 부분적인 면에 시선을 집중하여 대상을 포착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상에 몰입하게 한다. 다시점의 경우에는 여러 각도에서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시선의 확장을 통해 감상자로 하여금 대상을 새롭게 보게 한다.

[문제 3]

<보기 1>에 제시된 SF(Science Fiction) 소설의 특징을 요약하고, <보기 1>의 관점에서 <보기 2>의 다빈치와 (마)의 오스미 중 누가 더 SF 소설 작가에 적합한지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보기 1>

Science fiction is a genre of literature that explores imagined or future scientific developments and their potential impact on humanity. It extrapolates* from today's technology to a future world that is completely different, then reflects on how human lives play out in such a world. Science fiction differs from other genres in two key ways. First, science fiction combines science and the humanities to provide a unique perspective that encourages a critical view of the world we live in. Second, science fiction imagines and creates entirely new concepts—ones that do not exist in our current society—through the lens of scientific imagination. Kim Cho-yeop, a leading voice in South Korean science fiction, is known to base her works on diligent scientific research and critical contemplation** on humanity. Her works such as *If We Cannot Go at the Speed of Light* have been praised for rewriting scientific facts through literary metaphors and skillfully depicting the deficiencies of human existence.

*extrapolate from A to B: A를 기반으로 B를 추정하다

**contemplation: 고찰

<보기 2>

14~16세기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에는 문학과 사상, 미술, 건축, 과학 등의 다방면에 걸친 문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활약한 인물 중에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독 두드러진다. 미술가로서는 물론이고 과학자, 기술자, 사상가로서 상당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다빈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화라고 평가받는 〈모나리자〉나 〈최후의 만찬〉과 같은 작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해부학·원근법 등의 다양한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인체와 우주의 질서를 연결하는 르네상스 유럽의 종교 및 사상사의 큰 흐름인 ‘인간 소우주설’에 대한 탐구이기도 했다. 또한 다빈치는 인간 삶에 존재하는 것들을 인문학적이면서도 동시에 과학적인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혁신가였다. 실제로 다빈치는 15세기에 핸들 각도를 미리 정해서 원하는 길로 이동할 수 있는 자동 이동 카트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최근에는 최초의 자율주행 기술 설계자로 평가받기도 한다.

—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재구성

3 출제 의도

2026 인문계열 논술고사 T3은 ‘단일’과 ‘다중’이라는 핵심 주제로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 1]은 ‘단일’과 ‘다중’을 분류하고 요약하는 문제이다. [문제 2]는 <보기>를 바탕으로 제시문에 나타난 시점의 유형을 구분하여 그 차이점을 찾아 서술하는 문제이다. [문제 3]은 SF 소설의 내용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시문, <보기 1>, <보기 2>를 사용하여 추론하도록 하는 문제이다. 세 문항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가)~(바)를 제시한 후, [문제 2]에만 사용되는 <보기>와 [문제 3]에만 사용되는 <보기 1>, <보기 2>를 배치하였는데, [문제 3]의 <보기 1>은 외국어 지문 이해 측정을 위해 영어 지문을 사용했다. 문항마다 독립적인 능력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지만, 두 개 이상의 지문을 기반으로 핵심어와 요지를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해석하고, 연계하며, 비교 및 적용하여 추론하는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4 출제 근거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20-255호 [별책 14] “영어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3] “미술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1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2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3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4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 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을 한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5	[10국05-02] 갈래의 특성에 따른 형상화 방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6	[10국05-05]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며 문학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제1 문제2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제3
성취기준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문제2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1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1	[12문학02-01]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밀하게 연관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2	[12문학02-04] 작품을 공감적, 비판적, 창의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호 소통한다.	문제1 문제2

2. 영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영어Ⅱ		관련
성취기준1	[12영Ⅱ03-01]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 3
성취기준2	[12영Ⅱ03-02]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 3

과목명: 영어 독해와 작문		관련
성취기준1	[12영독03-01]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 3
성취기준2	[12영독03-02] 비교적 다양한 주제에 관한 글을 읽고 주제 및 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 3

3.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기준1	[12경제02-03] 경쟁의 제한, 외부 효과, 공공재와 공유 자원, 정보의 비대칭성 등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요인을 파악한다.	문제 1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1	[12사문01-01] 사회·문화 현상이 갖는 특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한다.	문제 3
4. 미술과 교육과정		
과목명: 미술		관련
성취기준1	[12미03-03] 미술 작품 비평의 다양한 관점을 알고 이를 활용하여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문제 1 문제 2

2. 자료 출처

교과서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경제	유종열	비상	2019	79	제시문 (나)	○
고등학교 문학	정재찬	지학사	2019	254	제시문 (다)	
고등학교 국어	김동환	교학사	2019	37	제시문 (라)	○
고등학교 독서	서혁	좋은책 신사고	2020	130	제시문 (바)	○
고등학교 사회·문화	손영찬	미래엔	2018	14	문제 3 〈보기 2〉	○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이란 무엇인가요? https://www.ibm.com/kr-ko/think/topics/multiagent-system	Anna Gutowska	IBM	—	—	제시문 (가)	○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학	최재진	한국교육 과정 평가원	2015	14	제시문 (다)	○
癌·난치병 치료할 ‘세포 청소’만 50년 매달렸다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0/04/2016100400097.html	김철중	조선일보	2016	—	제시문 (마)	○
By 후안 그리스 - 구글 아트 프로젝트 — RgGPipJ4FxSBiw, 퍼블릭 도메인,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21909200	후안 그리스 - 구글 아트 프로젝트	Wikimedia Commons	—	—	제시문 (바)	○
한국문학디지털도서관 작가 ABC 목록: 김초엽 https://library.ltikorea.or.kr/writer/202072?locale=en	—	한국문학 번역원	—	—	문제 3 〈보기 1〉	○

[문제 1]에서는 (가)~(바)를 핵심어인 ‘단일’과 ‘다중’으로 분류하고 각각을 요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나), (다), (마)는 ‘단일’로 분류하고 (가), (라), (바)는 ‘다중’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핵심어를 바탕으로 제시문을 요약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문제 2]에서는 (다)의 단일 시점과 (바)의 다시점을 구분하여 비교·평가하도록 했다. 두 가지 측면의 비교·평가 기준은 <보기> 내용에 기초하여 찾도록 했으며, 시점 유형별로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에 따라 대상을 파악하는 방식에 차이가 나타남을 파악하도록 했다. (다)와 (바)의 차이점은 제시문의 내용에 기초하여 서술하도록 했다. 이 둘을 시점 유형별로 두 가지 측면에서 분류하여, 첫째, 표현 방식에 따라 (다)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분적으로 드러내고 (바)는 전체적으로 조망함을 구별하도록 했다. 둘째, 미적 효과에 따라 (다)는 보는 사람의 시선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몰입감을 제공하고 (바)는 보는 사람의 시선을 확장하게 함으로써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됨을 구별하도록 했다.

[문제 3]에서는 SF소설의 특징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추론하도록 했다. <보기 1>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마)와 <보기 2>에서 제시된 인재상 중 누가 더 SF 장르에 적합한지를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기 1>에서는 SF 소설의 두 가지 특징을 제시했으며, 이를 (마)와 <보기 2>의 인물에 각각 적용하여 <보기 2>의 다빈치가 SF 소설 작가에 더 적합한 인재임을 도출하도록 했다. SF 소설의 첫 번째 특징은 인문학과 과학을 결합함으로써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마)의 오스미는 오랫동안 한 분야의 연구에만 몰두해 그 분야에서 탁월하고 심화된 전문성을 보인 반면, <보기 2>의 다빈치는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성찰이 동시에 어우러진 독특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업적을 남겼다. 두 번째 특징은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는 것으로, 오스미는 세포의 자가 포식 현상을 통해 인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했으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는 못한 반면, 다빈치는 과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SF 작가에 더 적합한 인재상을 보여준다는 점을 기술하도록 했다.

<보기 1>의 한국어 번역

SF는 상상에 기초하거나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과학 기술의 발달과 그와 같은 발달이 인류에 끼칠 영향을 탐색하는 문학의 한 장르이다. SF는 현재의 과학 기술을 근거로 하여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의 세계를 추정한 뒤, 인간들이 어떻게 그 미래 세계에서 살아가는지를 고찰한다. SF는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른 문학 장르와 차별화된다. 첫째, SF는 과학과 인문학을 결합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특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둘째, SF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과학적 상상력이라는 렌즈를 통해 만들어낸다. 한국 SF의 대표 김초엽 작가는 성실한 과학 리서치와 인간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기반으로 작품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과 같은 김초엽 작가의 작품들은 과학적 사실을 문학적 비유를 통해 다시 쓰기하고 인간 존재의 결핍을 능숙하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6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 두 가지 상반된 핵심어인 ‘단일’과 ‘다중’이 언급되어야 함 - 여섯 개의 제시문이 ‘단일’과 ‘다중’이라는 기준에 맞춰 분류되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80
문제2	- 시점의 구분과 관련해 두 가지 유형이 언급되어야 함. (다)에서는 ‘단일 시점’이, (바)에서는 ‘다시점’이 언급되어야 함 - 시점 유형에 따라 차이점이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으로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가 언급되어야 함 - 표현 방식의 측면과 관련해, (다)에서는 ‘부분’이, (바)에서는 ‘전체’가 언급되어야 함 - 미적 효과의 측면과 관련해, (다)에서는 ‘시선의 집중’과 ‘몰입’이, (바)에서는 ‘시선의 확장’과 ‘새롭게 보기’가 언급되어야 함	320
문제3	- SF 소설의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언급해야 함. 하나는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이며, 다른 하나는 새로운 것의 “창조”임 - 두 인물 중 SF 소설을 쓰기에 더 적합한 인물로 다빈치를 언급해야 함 - <보기 1>에서 제시한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의 기준이 (마)의 오스미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오랜 기간 ‘단일한 분야의 연구에만 몰두’하고 ‘심화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보기 2>의 다빈치의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성찰이 어우러진 사고’를 했고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야 함 - <보기 1>에서 제시한 ‘새로운 것의 창조’의 기준이 (마)의 오스미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인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가능하게 했으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 <보기 2>의 다빈치의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한 혁신가’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야 함	400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제시문 (나), (다), (마)를 ‘단일’로, 제시문 (가), (라), (바)를 ‘다중’으로 분류한 경우 • (가)~(바)를 ‘단일’과 ‘다중’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법 오류가 한두 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가)~(바)를 ‘단일’과 ‘다중’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하지 못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단일’과 ‘다중’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과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 (다)와 (바)의 두 가지 시점 유형(단일 시점, 다시점)을 구분하여 기술 - 요건2 : <보기>를 바탕으로 차이점이 나타나는 두 가지 측면(표현 방식, 미적 효과)을 기술 - 요건3 : 시점 유형별 표현 방식의 측면에서 ‘부분’(제시문 (다))을 기술 - 요건4 : 시점 유형별 표현 방식의 측면에서 ‘전체’(제시문 (바))를 기술 - 요건5 : 시점 유형별 미적 효과의 측면에서 ‘시선의 집중’과 ‘몰입’(제시문 (다))을 기술 - 요건6 : 시점 유형별 미적 효과의 측면에서 ‘시선의 확장’과 ‘새롭게 보기’(제시문 (바))를 기술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 2개 항목 누락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 3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 4개 항목 이상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3]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1 : <보기 1> SF 소설의 특징으로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을 기술 - 요건2 : <보기 1> SF 소설의 특징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의 창조’를 기술 - 요건3 :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과 연계하여, (마)의 오스미는 적합하지 않고 <보기 2>의 다빈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술 - 요건4 :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과 연계하여, ‘단일한 분야의 연구에만 몰두,’ ‘심화된 전문성’ (제시문 (마)의 오스미)을 기술 - 요건5 :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과 연계하여,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성찰이 어우러진 사고,’ ‘독특한 관점’ (<보기 2>의 다빈치)을 기술 - 요건6 : 새로운 것의 창조와 연계하여, (마)의 오스미는 적합하지 않고 <보기 2>의 다빈치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여 기술 - 요건7 : 새로운 것의 창조와 연계하여, ‘인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새로운 것은 창조하지 않음’(제시문 (마)의 오스미)을 기술 - 요건8 : 새로운 것의 창조와 연계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한 혁신가’(<보기 2>의 다빈치)을 기술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7, 8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7, 8 중 2개 항목 누락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7, 8 중 3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25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7, 8 중 4개 항목 이상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25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1] (400자 내외)

제시문을 ‘단일’과 ‘다중’이라는 두 핵심어로 분류하면, ‘단일’은 (나), (다), (마)이며, 다중은 (가), (라), (바)이다. ‘단일’을 나타내는 (나)는 공급자가 하나만 있는 시장인 독점 시장에 관한 내용이며, (다)는 오상원의 소설 「유예」에 나타난 일인칭 시점이다. (마)는 자가 포식 현상에 대한 단일 연구에 꾸준히 매진해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 오스미 요시노리의 사례이다. 한편, ‘다중’을 나타내는 (가)는 복수의 인공지능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작동하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소개하며, (라)는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는 통섭형 연구와 통섭형 인재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바)는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표현 방식을 적용한 입체과 화가 후안 그리스의 작품 <피카소 초상>에 관한 내용이다. (402자)

[문제 2] (450자 내외)

<보기>를 토대로 (다)와 (바)의 시점을 구분하면, (다)는 오상원의 소설 <유예>에 등장하는 단일 시점이고, (바)는 입체과 화가 후안 그리스의 작품 <피카소의 초상>에 제시된 다시점 표현 기법이다. 이를 기준으로 (다)와 (바)를 <보기>에 제시된 표현 방식과 미적 효과 두 가지 측면에서 비교·평가하면, 첫째, 표현 방식의 측면에 있어서는 (다)의 경우 ‘나’가 고정된 위치의 단일 시점에서 서술한 이야기가 펼쳐지므로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사건을 부분적으로 드러내는데 반해, (바)의 경우에는 위치를 바꾸어가며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둘째, 미적 효과의 측면에 있어서는 (다)의 경우 부분적인 면에 시선을 집중하여 대상을 포착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몰입감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바)는 여러 각도에서 전체를 조망함으로써 시선의 확장을 통해 감상자로 하여금 대상을 새롭게 보게 한다. (457자)

[문제 3] (500자 내외)

SF 소설은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인문학과 과학을 결합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독특한 시각을 제공한다. 둘째, 과학적 상상력을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을 두 인물에 적용하면 <보기 2>의 다빈치가 SF 소설 작가에 더 적합한 인재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라)의 오스미는 오랫동안 한 분야의 연구에만 몰두해 그 분야에서 탁월하고 심화된 전문성을 보인 반면, 다빈치는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성찰이 동시에 어우러진 독특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다. 또한 오스미는 세포의 자가 포식 현상을 통해 인체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했으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한 것은 아닌 반면, 다빈치는 과학적 상상력을 기반으로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SF 작가에 더 적합한 인재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494자)

문항카드 4. 논술전형 사회 T4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논술고사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일요일 T4 - 사회계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통합사회, 경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장기, 단기, 세대 간 공리주의
예상 소요 시간	90분	

2 문항 및 제시문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폴 세잔은 근대 회화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프랑스의 후기 인상파 화가이다. 세잔은 고향인 엑상프로방스(Aix-en-Provence)에서 수많은 풍경화를 그렸다. 그의 생트 빅투아르 산(Mont Sainte-Victoire) 연작은 그가 가장 오랫동안 매달렸던 작품 중 하나이다.



세잔은 1870년대 초부터 이 산을 그리기 시작하여 1906년 사망할 때까지 반복해서 그렸다. 작품 속 생트 빅투아르 산은 시간별, 계절별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화가가 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것은 장기적 비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세잔은 같은 산을 반복해서 그림으로써, 산의 본질적인 형태, 구조, 색, 공간의 질서를 깊이 이해하고자 했다. 때로는 가까이에서 거친 표면을, 때로는 멀리서 장엄한 실루엣을 포착했다. 세잔이 발견한 ‘산의 논리’는 각 작품에 축적되어 연작 전체를 통해 그 깊이를 드러낸다. 같은 산을 장기간에 걸쳐 그리면서 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기는 미세한 편차들을 포착하려고 애썼다. 그러한 차이는 오랫동안 같은 대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만 발견할 수 있다.

— 『한국일보』 재구성

(나)

“인무원려, 필유근우(人無遠慮, 必有近憂)”는 공자의 저서 『논어(論語)』 「위령공(衛靈公)」 편에 수록된 명언이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장래에 근심거리가 생길 것이다’라는 의미로, 공자가 제자들에게 올바른 정치와 인생에서의 지혜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언급한 말이다. 공자는 단기적인 이익만을 좇던 당시 통치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현명한 사람은 장기적 관점에서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한다고 말했다. 멀리 내다보는 지혜 없이 당장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치는 국가와 백성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는 뜻이다.

— 고등학교 교과서 『윤리와 사상』 재구성

(다)

기업이 제품을 만들어 팔 때에는 시장 조사와 분석, 제품 기획과 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한 뒤 완성된 신제품을 출시해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스타트업에게 이런 방식은 너무도 느리다. 게다가 어렵게 완성품을 출시하더라도 시장 반응이 좋지 않으면 스타트업에게 큰 손해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등장한 방식이 바로 ‘최소기능제품(MVP, Minimum Viable Product)’이다. MVP는 필수 기능만을 담아 짧은 시간 내에 완성한 제품이다. 따라서 제품 아이디어가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지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스타트업은 MVP를 통해 사용자의 피드백을 얻고, 향후 제품 개발의 방향과 고도화 전략까지도 세울 수 있다.

— 『지티티 코리아』 재구성

(라)

2025년 일본 연구자 두 명이 노벨 과학상을 수상하면서 일본은 축제 분위기다. 인간면역체계의 원리를 규명한 사카구치 시몬 오사카대 교수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금속유기골격체를 개발한 기타가와 스스무 교토대 교수가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올해까지 일본의 과학 부문 노벨상 수상자는 총 27명이 되었다. 일본의 수상 비결 중 하나는 탄탄한 기초과학계에 있다. 1917년 일본 정부가 설립한 이화학연구소(RIKEN)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정부 산하 연구개발 기관으로 오랫동안 기초연구를 활성화하는데 앞장서 왔다. 1970년대 들어서는 본격적으로 장기적 성격의 기초과학 프로젝트를 꾸준히 지원했다. 덕분에 기초과학자들은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연구에 몰입하는 것을 중시해 왔다. 하나의 연구 분야가 세대를 넘어 전승되는 ‘연구 대물림’ 구조와 일본 특유의 장인정신도 지식과 경험이 장기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스승의 연구를 제자가 이어받아 수십 년간 연구하여 스승과 제자가 모두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례도 있다.

— 『주간조선』 재구성

(마)

최근 몇 년 사이 **올로족**의 삶이 미디어의 주목을 받으면서, 2300년 전 고대 그리스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다시 소환되고 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쾌락을 중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강조한 것은 현재의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이 적고 평온이 지속되는 ‘아타락시아(ataraxia)’ 상태이다. 즉, 단기적 쾌락보다 장기적 평온을 삶의 핵심 가치로 본 것이다. 반면 올로는 ‘You Only Live Once’라는 말처럼 현재의 만족을 최우선에 둔다.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즐거움에 집중한다. 에피쿠로스가 과도한 소비나 방탕을 경계하며 지혜로운 판단을 통한 쾌락을 강조한 데 반해, 올로족은 단기적 관점에서 소비나 즉흥적 선택에 보다 관대하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올로족이 추구하는 삶은 순간의 즐거움은 크지만 때로는 후회나 부담을 남기기도 한다. 결국 에피쿠로스의 장기적 관점이 지속적인 행복을 위한 절제와 성찰을 요구한다면, 올로족의 단기적 관점은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현재를 놓치지 않는 데 가치를 둔다. 두 입장은 모두 만족을 추구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확연히 다르다.

— 고등학교 교과서 『생활과 윤리』 재구성

(바)

수산업이 발달한 A국에서 금어기 도입을 놓고 격렬한 논쟁이 일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A국의 근해 어종은 성체 비율이 30%대로 떨어졌고 치어 생존율도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자칫하면 번식률을 되살리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대다수의 국민은 금어기 도입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A국의 **어업인협회**는 단기적 관점에서 소득 감소를 우려해 정부의 금어기 도입 계획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금어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특정 어종이 무분별하게 포획되어 개체군이 임계점(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비가역적 수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어업인협회는 당장의 가계소득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이기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금어기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에 해오던 것처럼 어획을 계속하면 현재 세대는 풍부한 수산자원으로 수익을 얻고 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미래 세대는 어족자원 고갈 및 수산업 침체라는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미 A국의 일부 지역 청년 어업인들은 어자원 감소로 인해 신규 조업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금어기를 지금 당장 도입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주요 어종이 멸종되어 미래 세대의 생계 기반이 크게 훼손될 것이다.

— 『한국 농어민 신문』 재구성

(사)

B국의 연금 개혁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나, 구체적 방안을 두고는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개혁 찬성론자는 기금이 한 번 고갈되면 상황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말한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기금이 소진되는 2060년대가 되면 연간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어서고, 보험료 조정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찬성론자는 또한 현 제도를 그대로 두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연금 혜택이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도 공정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청년층이 ‘지금 내는 만큼 나중에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연금 가입을 기피할 것이며, 그러면 기금 상황이 더욱더 나빠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찬성론자는 신속한 개혁을 통해서만이 연금에 대한 미래 세대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고등학교 교과서 『사회·문화』 재구성

[문제 1]

(가)~(바)에서 밑줄 친 주체의 관점을 ‘장기’ 혹은 ‘단기’로 분류하고 요약하시오. (400자 내외, 280점)

[문제 2]

<보기>의 ‘세대 간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바)의 어업인협회와 (사)의 개혁 찬성론자를 비교·평가하시오. (450자 내외, 32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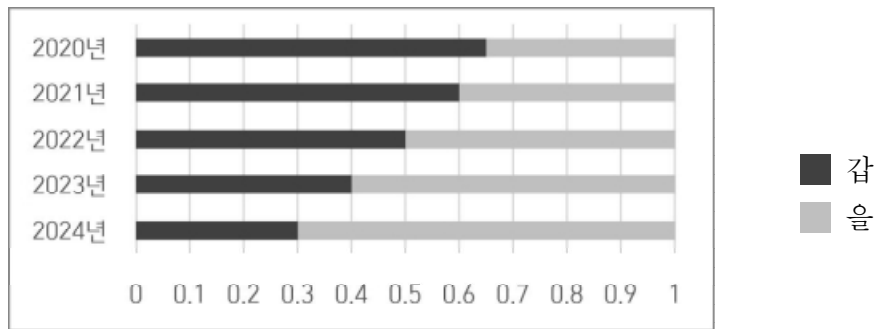
<보기>

행복이나 이익에 초점을 맞추는 고전적 공리주의와 달리, 세대 간 공리주의(intergenerational utilitarianism)는 미래 세대의 행복과 기회도 강조하는 윤리적 접근을 핵심으로 한다. 즉, 어떤 현상이나 행동을 평가할 때 단기적 이익만을 보지 않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총효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세대 간 공리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세부 원칙이 필요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회복가능성(recoverability) 원칙과 무편향(impartiality) 원칙이다. 회복가능성 원칙이란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의 결정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현재 세대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편, 무편향 원칙은 어느 한 세대의 행복과 이익만을 위해 다른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거나 부담을 전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두 가지 세부 원칙이 함께 고려되어야만,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행복을 누리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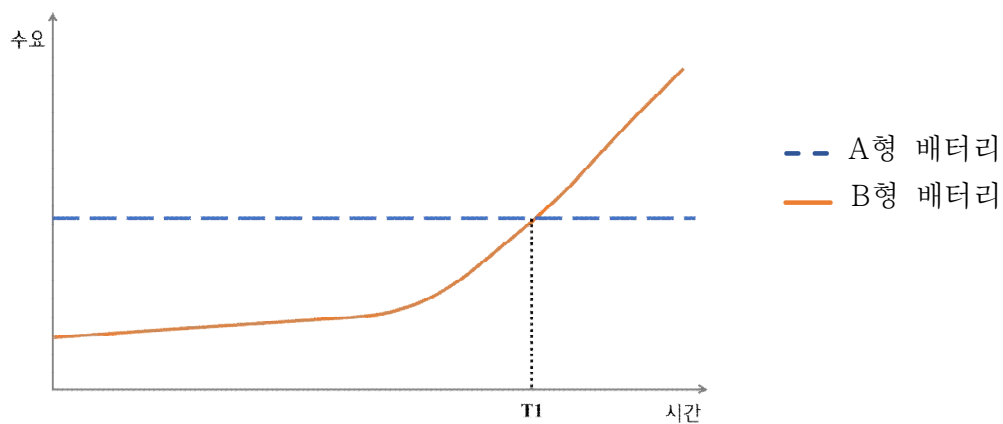
[문제 3]

‘갑’과 ‘을’은 A형 배터리만 생산해 온 기업이다. 2025년 현재, 갑은 단기적 이익 중심의 전략과 장기적 투자 중심의 전략 중 장기적 전략을 선택하기로 했다. <그림 1>, <그림 2>, <그림 3>을 토대로 갑이 B형 배터리 중심의 장기 전략을 선택한 근거를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400점)

(단, 제시되지 않은 조건들은 고려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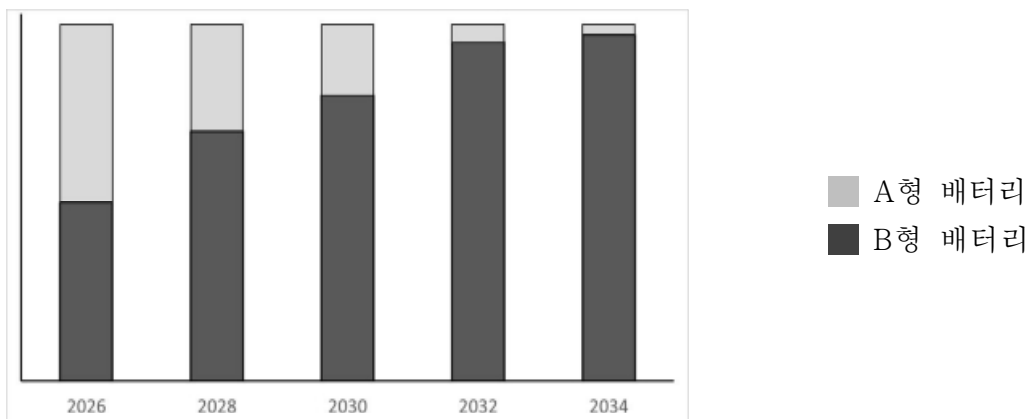


<그림 1> 갑과 을의 A형 배터리 시장점유율



<그림 2> 배터리 유형별 미래 수요 예측

지급액



<그림 3> 배터리 유형별 정부의 R&D 보조금 지급 계획

3 출제 의도

2026학년도 T4 사회계 문항 세트는 총 세 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제 1]은 분류·요약, [문제 2]는 비판·평가, [문제 3]은 적용·추론의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세 문항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가)에서 (사)까지 총 일곱 개의 제시문과 한 개의 <보기> 그리고 세 개의 <그림>을 제시하였고, 제시문과 보기는 경영, 예술, 경제, 역사,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정하였다.

[문제 1]에서는 (가)에서 (바)의 제시문을 분류, 요약하게 하였고, [문제 2]에서는 (바)와 (사)를 활용하게 하되, <보기>의 지문을 추가하여 비교·평가하게 하였다. 한편, [문제 3]에서는 <그림 1>, <그림 2>, <그림 3>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기업 ‘갑’이 장기적 전략을 선택한 이유를 추론하게 하였다. 세 개의 문항은 각각 분류 능력, 비교 능력, 추론 능력을 집중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다양한 제시문 속에서 핵심어와 요지 등을 짧은 시간 내에 이해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능력도 측정하고자 하였다.

시험시간(90분)에 맞게, [문제 1]의 답안 분량은 400자 내외, [문제 2]의 답안 분량은 450자 내외, [문제 3]의 답안 분량은 500자 내외로 정해졌다. 문항 당 배점은 280점, 320점, 400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문항별 출제 의도는 다음과 같다. [문제 1]에서는 장기 혹은 단기와 관련된 여섯 개의 제시문을 읽은 후, 그 내용을 ‘장기’와 ‘단기’라는 두 핵심어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섯 개의 제시문을 요약하게 함으로써, 키워드를 중심으로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문제 2]에서는 [문제 1]에서 제시된 ‘장기’, ‘단기’라는 키워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간을 초월한 세대 간 공리주의의 개념을 <보기>로 제시하였다. 즉, 세대 간 공리주의의 개념을 이해한 후, (바)와 (사)를 비교 평가하도록 하였다. (바)는 금어기 도입을 반대하는 어업인협회의 입장을 사례로 제시하며, (사)는 연금 개혁 찬성론자의 사례를 제시한다. 여기서는 세대 간 공리주의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원칙 중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을 바탕으로 두 집단을 비교, 평가하도록 했다. 어업인협회는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을 위반한 집단으로, 연금 개혁 찬성론자들은 두 원칙을 준수한 집단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했다.

[문제 3]에서는 적용 능력과 추론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갑이 장기적 전략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원인을 추론하게 하였다. <그림 1>에서 갑과 을을 비교할 때 갑은 시장점유율을 잃어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 미래의 배터리 수요나 국가의 정책 방향이 갑이 현재 생산하고 있는 A형 배터리가 아닌, B형 배터리 중심으로 변화할 것임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갑이 왜 장기적 전략을 선택했는지를 추론하는 능력을 파악하고자 했다.

1.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관련
	성취기준1	[10국02-01] 읽기는 읽기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 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읽는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2	[10국03-01] 쓰기는 의미를 구성하여 소통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임을 이해하고 글을 쓴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3	[10국03-02] 주제, 독자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2 문제3
	성취기준4	[10국03-04] 쓰기 맥락을 고려하여 쓰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며 글을 고쳐 쓴다.	문제1 문제2 문제3
	과목명: 화법과 작문		관련
	성취기준1	[12화작03-01] 가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조직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쓴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2	[12화작03-04]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적절한 설득 전략을 활용하여 설득하는 글을 쓴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3	[12화작03-05] 시사적인 현안이나 쟁점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여 비평하는 글을 쓴다.	문제2 문제3
	과목명: 독서		관련
	성취기준1	[12독서01-02] 동일한 화제의 글이라도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으로 표현됨을 이해하고 다양한 글을 주제 통합적으로 읽는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2	[12독서02-01] 글에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중심 내용, 주제, 글의 구조와 전개 방식 등 사실적 내용을 파악하며 읽는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3	[12독서02-02] 글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예측하여 필자의 의도나 글의 목적, 숨겨진 주제, 생략된 내용을 추론하며 읽는다.	문제2 문제3
성취기준4	[12독서02-03] 글에 드러난 관점이나 내용, 글에 쓰인 표현 방법,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며 읽는다.	문제2 문제3
성취기준5	[12독서02-05] 글에서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찾으며 창의적으로 읽는다.	문제3
성취기준6	[12독서03-01]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1
성취기준7	[12독서03-02]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요구와 신념, 사회적 현상의 특성, 역사적 인물과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8	[12독서03-06]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하여 글의 수용과 생산과정을 이해하고 다양한 매체 자료를 주체적이고 비판적으로 읽는다.	문제1 문제3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통합사회		관련
성취기준1	[10통사01-01]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한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2	[10통사02-0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개인적 차원의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3	[10통사06-01] 정의가 요청되는 이유를 파악하고, 정의의 의미와 실질적 기준을 탐구한다.	문제2 문제3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기준1	[12경제01-03]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문제1 문제2 문제3
성취기준2	[12경제01-04]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 주체가 국가 경제 속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이해한다.	문제3
성취기준3	[12경제02-01] 시장 가격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노동 시장과 금융 시장 등에 적용한다.	문제1 문제2 문제3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1	[12생윤01-01]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윤리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학문으로서 다루는 윤리학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2	[12생윤01-02] 현대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접근법 및 동서양의 다양한 윤리 이론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윤리 문제에 적용하여 윤리적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3	[12생윤01-03] 윤리적 삶을 살기 위한 다양한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덕적 탐구와 윤리적 성찰을 일상의 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문제2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1	[12윤사01-01] 인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우리의 삶에서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 필요한 이유를 탐구할 수 있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2	[12윤사01-02] 우리의 도덕적 삶에서 한국 및 동·서양의 윤리 사상과 사회사상이 하는 역할에 대해 실제적인 사례들을 탐구하고,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의 관계를 토론할 수 있다.	문제1 문제2
성취기준3	[12윤사03-06] 의무론과 칸트의 정언 명령, 결과론과 공리주의의 특징을 비교하여 각각의 윤리사상이 갖는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문제1

2. 자료 출처

교과서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문학	정재찬 외	지학사	2020	66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39~40	제시문 (나)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119	제시문 (라)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황인표 외	교학사	2020	115~118	제시문 (마)	○
고등학교 사회·문화	서범석 외	지학사	2020	164~165	제시문 (사)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정창우 외	미래엔	2020	147~150	문제2 <보기>	○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기하학으로 그린 자연'... 현대 풍경화 뿌리에 폴 세잔이 있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22014310004707	양정무	한국일보	2025.1.2	－	제시문 가	○
「가장 효과 높은 제품 출시 전략 ‘최소 기능 제품(MVP)」 https://www.gtt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9	배성철	GTT 코리아	2024.11.10	－	제시문 다	○
「일본 기초과학의 힘, 노벨상을 휩쓸다」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38	김형자	주간조선	2025.10.19	－	제시문 라	○
「금어기·금지체장’ 기준 강화 논란」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0822	이진우	한국 농어민신문	2019.8.2	－	제시문 바	○

[문제 1]에서는 제시문 (가)~(바)를 밑줄 친 주체의 관점에서 장기 혹은 단기로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가), (나), (라)는 장기적 관점, (다), (마), (바)는 단기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며, 이 관점을 바탕으로 6개의 제시문을 요약할 수 있는지도 평가하고자 했다.

[문제 2]에서는 별도로 제시된 <보기>를 바탕으로 (바)와 (사)를 비교·평가하도록 했다. <보기>에서 파악해야 할 핵심 내용은, 세대 간 공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원칙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의 어업인협회는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보다 당장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어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사)의 연금 개혁 찬성론자들은 미래 세대를 위한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원칙을 지켰음을 파악해야 한다.

[문제 3]에서는 별도로 제시된 <그림 1>, <그림 2>, <그림 3>을 통해, 문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관련 내용을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다. <그림 1>을 통해 ‘갑’ 기업은 현시점에서 A형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음을 유추하고, <그림 2>와 <그림 3>을 통해서는 미래 수요와 R&D 보조금의 변화가 장기 성장 전략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읽어내야 한다.

6 채점 기준

문항	채점요소	배점
문제1	- 여섯 개의 제시문 중 (가), (나), (라)를 장기적 관점으로, (다), (마), (바)를 단기적 관점으로 분류해야 함 - 각 제시문의 요지가 핵심어를 중심으로 요약되어야 함	280
문제2	- <보기>를 통해 세대 간 공리주의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함 -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측면에서 (바)의 어업인협회가 세대 간 공리주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기술해야 함 -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측면에서 (사)의 개혁 찬성론자가 세대 간 공리주의를 실천했음을 기술해야 함	320
문제3	- <그림 1>에서 값은 A형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음을 기술해야 함 - <그림 2>에서 B형 배터리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기술해야 함 - <그림 3>에서 R&D 보조금 증액이 B형 배터리로의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함	400

[문제 1]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가), (나), (라)를 장기적 관점으로, (다), (마), (바)를 단기적 관점으로 분류하여 기술한 경우 - (가)~(바)를 ‘장기’와 ‘단기’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한 경우 • 내용 측면에서 아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제시문 (가)의 요약에서 세잔은 산을 반복해 그리면서 장기적인 관찰을 모색한다는 점을 기술함 - 제시문 (나) 공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라는 점을 기술함 - 제시문 (다) 스타트업은 핵심 기능만을 갖춘 MVP를 단기에 출시하여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기술함 - 제시문 (라) 기초과학자들은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는 점을 기술함 - 제시문 (마) 율로죽은 지속적인 행복이 아닌,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한다고 기술함 - 제시문 (바) 어업인협회는 미래 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당장의 소득을 지키려 한다는 점을 기술함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나, 핵심어 대신 근접어를 사용한 경우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어휘 활용이 다소 부족하거나 문장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다소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드물게 나타남 – 문법 오류가 한두 가지 정도로 드물게 나타남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했지만, (가)~(바)를 ‘장기’와 ‘단기’의 개념이 대비되도록 요약하지 못한 경우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 $\pm 10\%$를 벗어나고, $\pm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이상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요약했으나 ‘장기’와 ‘단기’의 구분이 적절하지 못하고, 제시문들과의 입장 분류 및 요약 또한 부실한 경우 (예: 제시문들간의 분류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경우)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 $\pm 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문제 2]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 1 : <보기>를 통해 세대 간 공리주의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술한 경우 - 요건 2 : 회복가능성 측면에서 (바)의 어업인협회의 문제점을 기술한 경우 - 요건 3 : 무편향 측면에서 (바)의 어업인협회의 문제점을 기술한 경우 - 요건 4 : 회복가능성 측면에서 (사)의 개혁 찬성론자의 의견이 부합함을 설명한 경우 - 요건 5 : 무편향 측면에서 (사)의 개혁 찬성론자의 의견이 부합함을 설명한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2,3,4,5 중 1개 항목 누락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B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항목 포함되거나 2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중 2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4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중 3개 이상 항목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3]

등급		채점기준
A	A+	■ 다음과 같은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 요건 1 : A형 배터리 시장에서 갑은 시장점유율을 잃었고, 을은 시장점유율을 얻었음을 기술한 경우(그림 1) - 요건 2 : 갑은 A형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었음을 기술한 경우(그림 1) - 요건 3 : A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으나, B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T1을 기점으로 B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짐을 설명한 경우(그림 2) - 요건 4: B형 배터리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장기적으로 크다는 점을 설명한 경우(그림 2) - 요건 5: B형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은 늘어나지만, A형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은 줄어들 수 있음을 설명한 경우(그림 3) - 요건 6: 보조금 증액은 B형 배터리로의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한 경우(그림 3)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일관적인 형식, 적절한 어휘의 사용 등을 통하여 문장의 표현이 유려하고 매끄러움 - 문장 연결이 자연스럽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 주어진 자수±10% 이내로 작성됨
	A0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논리성과 단락 구분에 다소 문제가 있음
	A-	• A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어휘 사용, 표현 등이 다소 부자연스러움
B	B+	• A-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중 1개 항목 누락 - 논리적인 구성과 가독성이 부족함 - 어휘 활용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장 연결이 부자연스럽거나 논리적인 구성이 부족한 부분이 여러 번 나타남 - 문법 오류가 서너 가지 이상 나타남 - 주어진 자수±10%를 벗어나고, ±20% 이내로 작성됨
	B0	• B+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2항목 포함되거나 1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B-	• B0 기준이 대체로 충족되나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3항목 포함되거나 2항목이 심한 정도로 나타남
C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 2개 항목 누락 - B+에 제시된 감점 요인이 4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주어진 자수±20%를 벗어나고, 200자 이상이 작성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A+에서 제시한 요건 1, 2, 3, 4, 5, 6 중 3개 이상 항목 누락 • 답안 작성을 중간에서 멈춘 경우 • 글자 수가 200자 미만인 경우
F		• 글자 수와 상관없이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답안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등

[문제 1] (400자 내외)

제시문 중 (가), (나), (라)는 ‘장기’의 관점을, (다), (마), (바)는 ‘단기’의 관점을 기술한다. (가)의 세잔은 생트 빅투아르 산을 오랫동안 반복해 그리면서 장기적 관찰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차이에 집중한다. (나)의 공자는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통치자를 비판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라)의 기초과학자들은 연구를 수행할 때 단기적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실천한다. 한편 (다)의 스타트업은 핵심 기능만을 갖춘 제품을 단기에 출시하여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마)의 율로족은 미래의 행복이 아닌, 현재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인다. (바)의 어업인협회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더라도 당장의 소득을 지키려는 단기적 관점을 주장한다. (397자)

[문제 2] (450자 내외)

<보기>에 따르면 세대 간 공리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회복가능성’과 ‘무편향’의 원칙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이 두 원칙을 제시문 (바)와 (사)에 적용하여 판단하면 다음과 같다. (바)의 어업인협회는 개체군이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당장의 소득 감소를 우려해 금어기 도입에 반대하는데, 이는 회복가능성을 위반한 처사이다. 또한 수자원 고갈로 인한 피해를 미래 세대에게만 전가한다는 점에서 협회의 태도는 무편향에도 어긋난다. 한편, (사)의 개혁 찬성론자는 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재정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회복가능성을 충족한다. 또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연금 혜택과 부담을 공유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무편향에 부합하는 주장이다. 따라서 어업인협회는 세대 간 공리주의를 위반한 집단으로, 개혁 찬성론자는 세대 간 공리주의를 실천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452자)

[문제 3] (500자 내외)

<그림 1>에 따르면 갑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데 반해, 경쟁사 을의 시장점유율은 꾸준히 늘어 2023년부터는 줄곧 갑을 앞섰다. 현시점에서 볼 때 갑은 기존의 A형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한편 <그림 2>를 보면 A형 배터리와 B형 배터리의 수요 곡선이 ‘T1’을 기점으로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전망치를 해석하면, B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단기적으로 볼 때 A형 배터리에 대한 수요보다 적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는 급격히 증가한다. 즉, B형 배터리 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장기적으로 매우 크다. 한편 <그림 3>에 따르면 B형 배터리에 대한 R&D 보조금은 A형 배터리의 경우와는 달리 향후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다. 이러한 증액 계획은 B형 배터리 생산으로의 전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갑은 위와 같은 세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형 배터리에 초점을 맞춘 장기 성장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501자)

문항카드 5. 논술전형 자연 T4

1 일반 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 선다형고사
전형명	논술전형 논술고사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및 문항번호	일요일 T4 - 자연계
출제 범위	수학 I, 수학 II
예상 소요 시간	90분

2 문항 및 문항해설

[문제 1]

문항번호	논술고사 자연계 1번	과목명	수학 I
내용영역	로그함수의 그래프	행동영역	이해능력, 계산능력
정답	9	배점	10점
관련 성취기준	[12수학 I 01-07]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항	함수 $y = \log_2(x+a)+b$ 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다. 이 두 점의 x 좌표가 각각 $-1, 1$ 일 때, 함수 $y = \log_2(x+a)+b$ 의 그래프가 직선 $y=3$ 과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구하시오. (단, a, b 는 상수) (10점)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수학 I	류희찬 외	천재교과서	2021	49	제시문	O
수학 I	김원경 외	비상교육	2021	51	제시문	O

문항 해설

(i) 함수 $y = \log_2(x+a)+b$ 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함수 $y = \log_2(x+a)+b$ 의 그래프와 직선 $y=x$ 의 교점과 같다. (2점)

(ii) 따라서 방정식 $\log_2(x+a)+b=x$ 의 두 근이 $x=-1, 1$ 이므로 대입하면

$$\log_2(a-1)+b=-1 \text{ ----- (1)}$$

$$\log_2(a+1)+b=1 \text{ ----- (2)}$$

이다. (1)과 (2)를 연립하면

$$\log_2(a+1)-\log_2(a-1)=2 \text{ 즉, } \log_2 \frac{a+1}{a-1}=2$$

이므로, $\frac{a+1}{a-1}=4$ 이다. 따라서 $a=\frac{5}{3}$ 이다. (3점)

이때 $a=\frac{5}{3}$ 를 (2)에 대입하면 $\log_2 \frac{8}{3}+b=1$ 이므로, $b=1-\log_2 \frac{8}{3}=\log_2 2-\log_2 \frac{8}{3}=\log_2 \frac{3}{4}$ 이다.

따라서 주어진 함수는 $y=\log_2\left(x+\frac{5}{3}\right)+\log_2 \frac{3}{4}=\log_2\left(\frac{3x+5}{4}\right)$ 이다. (2점)

(iii) 함수 $y=\log_2\left(\frac{3x+5}{4}\right)$ 의 그래프와 직선 $y=3$ 이 만나는 점의 x 좌표는 방정식 $\log_2\left(\frac{3x+5}{4}\right)=3$ 의 근이다.

이 방정식을 풀면, $\frac{3x+5}{4}=8$ 이므로 $x=9$ 이다. (3점)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함수 $y = \log_2(x+a)+b$ 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함수 $y = \log_2(x+a)+b$ 의 그래프와 직선 $y=x$ 의 교점과 같다는 것을 파악한다.	2
전개	함수 $y = \log_2(x+a)+b$ 의 그래프에서 상수 a, b 의 값을 찾는다.	5
결론	함수 $y = \log_2\left(\frac{3x+5}{4}\right)$ 의 그래프와 직선 $y=3$ 이 만나는 점의 x 좌표를 찾는다.	3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2]

문항번호	논술고사 자연계 2번	과목명	수학Ⅱ
내용영역	도함수의 활용	행동영역	이해능력, 추론능력
정답	6	배점	12점
관련 성취기준	[12수학Ⅱ02-03] 미분가능성과 연속성의 관계를 이해한다. [12수학Ⅱ02-08]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문항	삼차함수 $f(x)$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f(x)$의 최고차항의 계수는 1이다. (나) $f'(1) = f'(3) = 0$ (다) 함수 $f(x)$가 $x = 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a의 개수는 3이다. 이때 $f(0)$ 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f(1)$ 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12점)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수학Ⅱ	권오남 외	교학사	2021	61	제시문	○
수학Ⅱ	고성은 외	신사고	2021	85	제시문	○

문항 해설

(i) 조건 (나)에 의해 상수 k 에 대하여

$$f'(x) = k(x-1)(x-3) = k(x^2 - 4x + 3) \text{ ----- (1)}$$

이다. (단, $k \neq 0$)

(1)에 의해 $f(x) = k(\frac{1}{3}x^3 - 2x^2 + 3x) + C$ (C 는 상수) 이고, 조건 (가)에 의해 $\frac{1}{3}k = 1$ 이므로 $k = 3$ 이다. 따라서

$$f(x) = x^3 - 6x^2 + 9x + C \text{ ----- (2)}$$

이다. (5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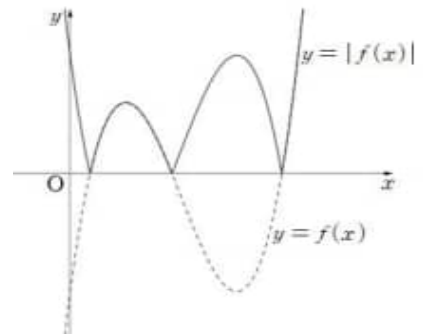
(ii) (2)와 조건 (나)에 의해 삼차함수 $f(x)$ 는

$x=1$ 에서 극댓값 $f(1) = 4 + C$, $x=3$ 에서 극솟값 $f(3) = C$ 를 가진다.

조건 (다)에 의해 극댓값 $f(1) = 4 + C > 0$, 극솟값 $f(3) = C < 0$ 이어야 한다. 즉,

$$-4 < C < 0 \text{ ----- (3)}$$

이다. (4점)



(iii) $f(0) = C$ 가 정수이므로, (3)을 만족시키는 상수 C 의 값은 $-1, -2, -3$ 이 된다. 따라서 $f(1) = 4 + C$ 의 값은 $1, 2, 3$ 이고, 이들의 합은 6이다. (3점)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조건 (나)에 의해 $f'(x)$ 를 $f'(x) = k(x-1)(x-3)$ 으로 나타내고, 조건 (가)에 의해 $f(x)$ 가 $f(x) = x^3 - 6x^2 + 9x + C$ (C 는 상수)임을 유도한다.	5
전개	조건 (나)와 (다)에 의해 $-4 < C < 0$ 임을 설명한다.	4
결론	$f(0)$ 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C 의 값을 찾고 모든 $f(1)$ 의 값의 합을 구한다.	3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함수 $y = f(x)$ 의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도 된다.
	3.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4.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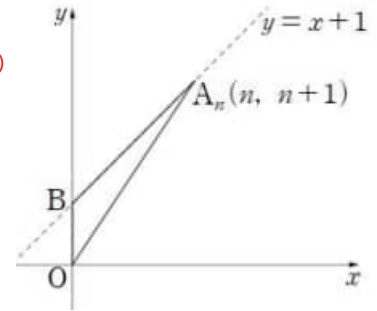
[문제 3]

문항번호	논술고사 자연계 3번	과목명	수학 I
내용영역	삼각함수, 수열의 합	행동영역	이해능력, 계산능력
정답	445π	배점	13점
관련 성취기준	[12수학 I 02-03] 사인법칙과 코사인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12수학 I 03-05] 여러 가지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문항	자연수 n 에 대하여 세 점 $A_n(n, n+1)$, $B(0, 1)$, $O(0, 0)$ 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OA_nB 의 외접원의 넓이를 a_n 이라 할 때, $\sum_{n=1}^{10} a_n$ 의 값을 구하시오. (13점)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수학 I	홍성복 외	지학사	2021	97	제시문	O
수학 I	권오남 외	교학사	2021	142	제시문	O

문항 해설

(i)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점 A_n 과 점 B 는 직선 $y = x + 1$ 위에 있으므로, $\angle OBA_n = \frac{3}{4}\pi$ 이다. 또한 $\overline{OA_n} = \sqrt{n^2 + (n+1)^2}$ 이다. (4점)



(ii) 사인법칙에 의해 삼각형 OA_nB 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R 은

$$R = \frac{\overline{OA_n}}{2\sin B} = \frac{\sqrt{n^2 + (n+1)^2}}{2\sin\left(\frac{3}{4}\pi\right)} = \sqrt{n^2 + n + \frac{1}{2}} \quad \text{----- (1)}$$

이다. 따라서 (1)에 의해 삼각형 OA_nB 의 외접원의 넓이는 $a_n = \pi R^2 = \left(n^2 + n + \frac{1}{2}\right)\pi$ 이다. (5점)

(iii) 그러므로 $\sum_{n=1}^{10} a_n = \sum_{n=1}^{10} \left(n^2 + n + \frac{1}{2}\right)\pi = \pi \left(\sum_{n=1}^{10} n^2 + \sum_{n=1}^{10} n + \sum_{n=1}^{10} \frac{1}{2} \right)$

$$= \left\{ \frac{10(10+1)(2 \times 10 + 1)}{6} + \frac{10(10+1)}{2} + 5 \right\} \pi = (385 + 55 + 5)\pi = 445\pi$$

이다. (4점)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모든 자연수 n 에 대하여 삼각형 OA_nB 에서 $\angle OBA_n = \frac{3}{4}\pi$ 임을 설명한다.	4
전개	사인법칙에 의해 삼각형 OA_nB 의 외접원의 반지름과 넓이 a_n 을 구한다.	5
결론	$\sum_{n=1}^{10} a_n$ 의 값을 구한다.	4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삼각형 OA_nB 의 그림은 그리지 않아도 된다.
	3.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4.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4]

문항번호	논술고사 자연계 4번	과목명	수학 I
내용영역	지수	행동영역	이해능력, 추론능력
정답	4	배점	14점
관련 성취기준	[12수학 I 01-01]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한다. [12수학 I 01-08]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2수학 I 03-04] Σ 의 뜻을 알고, 그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문항	n 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log_a n - 1)$ 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 이라 하자. 이때 $\sum_{n=2}^9 n f(n) = 56$ 을 만족시키는 실수 a 의 값을 구하시오. (단, $a > 1$) (14점)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수학 I	고성은 외	신사고	2021	13	제시문	O
수학 I	배종숙 외	금성출판사	2020	57, 144	제시문	O

문항 해설

n 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실수 $(\log_a n - 1)$ 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f(n)$ 을 구해보자.

(i) n 이 홀수인 경우, $f(n) = 1$ 이다. (3점)

(ii) n 이 짝수인 경우,

$$\log_a n - 1 < 0 \quad \text{즉, } n < a \quad \text{일 때, } f(n) = 0$$

$$\log_a n - 1 = 0 \quad \text{즉, } n = a \quad \text{일 때, } f(n) = 1$$

$$\log_a n - 1 > 0 \quad \text{즉, } n > a \quad \text{일 때, } f(n) = 2$$

이다. (4점)

(iii) (i)에 의해 $\sum_{n=2}^9 nf(n)$ 에서 n 이 홀수일 때 합은

$$3f(3) + 5f(5) + 7f(7) + 9f(9) = 3 + 5 + 7 + 9 = 24$$

이고, $\sum_{n=2}^9 nf(n) = 56$ 이어야 하므로 n 이 짝수일 때 합은

$$2f(2) + 4f(4) + 6f(6) + 8f(8) = 32 \quad \text{-----} \quad (1)$$

가 된다. 따라서 (ii)에 의해 (1)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f(2) = 0, f(4) = 1, f(6) = f(8) = 2$ 이다. (5점)

(iv) 그러므로 (ii)에 의해 $a = 4$ 이다. (2점)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n 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f(n)$ 을 구한다.	7
전개	$\sum_{n=2}^9 nf(n) = 56$ 으로부터 n 이 짝수일 때 합과 $f(n)$ 의 값을 구한다.	5
결론	$f(4) = 1$ 로부터 a 의 값을 찾는다.	2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5]

문항번호	논술고사 자연계 5번	과목명	수학Ⅱ
내용영역	함수의 극한	행동영역	이해능력, 추론능력
정답	0	배점	16점
관련 성취기준	[12수학Ⅱ01-01] 함수의 극한의 뜻을 안다. [12수학Ⅱ01-02]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해하고,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문항	다항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극한값 $\lim_{x \rightarrow -1} \frac{f(x)}{x+1}$가 존재하고, 그 값은 양수이다. (나) 극한값 $\lim_{x \rightarrow 2} \frac{f(x)}{x-2}$가 존재하고, 그 값은 양수이다. (다) $\lim_{x \rightarrow \infty} \frac{ f(x) }{x^4} = 1$ 방정식 $f(x) = 0$의 모든 실근이 정수이고 모든 실근의 합이 4일 때, 모든 실근의 곱을 구하시오. (16점)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수학Ⅱ	배종숙 외	금성출판사	2022	24, 25	제시문	○

문항 해설

(i) 조건 (가)에 의해 $f(-1)=0$ 이고, 조건 (나)에 의해 $f(2)=0$ 이다. 또한 조건 (다)에 의해 $f(x)$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 또는 -1 인 사차함수이다.

따라서 $f(x)$ 를

$$f(x) = (x+1)(x-2)Q(x) \text{ ----- (1)}$$

라 두면 $Q(x)$ 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 또는 -1 인 이차함수이다. (5점)

(ii) 조건 (가)에 의해 $\lim_{x \rightarrow -1} \frac{f(x)}{x+1} = \lim_{x \rightarrow -1} (x-2)Q(x) = -3Q(-1) > 0$ 이고, 조건 (나)에 의해

$$\lim_{x \rightarrow 2} \frac{f(x)}{x-2} = \lim_{x \rightarrow 2} (x+1)Q(x) = 3Q(2) > 0 \text{ 이므로,}$$

$$Q(-1) < 0, Q(2) > 0 \text{ ----- (2)}$$

이다. (3점)

(iii) 방정식 $Q(x)=0$ 은 (2)에 의해 서로 다른 두 실근 α, β ($\alpha < \beta$)를 가진다. (1)에 의해 방정식 $f(x)=0$ 의 실근은 $-1, 2, \alpha, \beta$ 이고, 모든 실근의 합이 4이므로

$$\alpha + \beta = 3 \text{ (단, } \alpha, \beta \text{는 정수) ----- (3)}$$

이어야 한다. (3점)

(iv) 이차함수 $Q(x)$ 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 또는 -1 인지에 따라 (2)와 (3)을 만족하는 α, β 를 구해보자.

$Q(x)$ 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경우, (2)에 의해 $\alpha < -1 < \beta < 2$ 이고, 이때 (3)을 만족하는 정수 α, β 는 존재하지 않는다.

$Q(x)$ 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1 인 경우, (2)에 의해 $-1 < \alpha < 2 < \beta$ 이고, 이때 (3)을 만족하는 정수 α, β 는 $\alpha = 0, \beta = 3$ 이다.

따라서 방정식 $f(x)=0$ 의 모든 실근은 $-1, 0, 2, 3$ 이고, 이들의 곱은 0이다. (5점)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조건 (가), (나), (다)에 의해 $f(x)$ 를 $f(x) = (x+1)(x-2)Q(x)$ 로 나타낸다.	5
전개	조건 (가), (나)에 의해 $Q(-1) < 0, Q(2) > 0$ 임을 설명한다.	3
결론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α, β 의 값을 찾는다.	8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6]

문항번호	논술고사 자연계 6번	과목명	수학 I
내용영역	등차수열	행동영역	문제해결력, 추론능력
정답	31	배점	17점
관련 성취기준	[12수학 I 03-02] 등차수열의 뜻을 알고, 일반항,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다.		
문항	등차수열 $\{a_n\}$에 대하여 $T_n = a_1 + a_2 + \cdots + a_n$이라 할 때, 수열 $\{a_n\}$과 $\{T_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수열 $\{a_n\}$의 첫째항은 30이고 공차는 정수이다. (나) $T_{10} = T_{11}$ 이때 $T_n > T_{n+1}$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솟값과 최댓값의 합을 구하시오. (17점)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수학 I	김원경 외	비상교육	2021	120, 123	제시문	O

문항 해설

(i) 등차수열 $\{a_n\}$ 의 공차를 d 라 할 때, 조건 (가)에 의해

$$a_n = 30 + (n-1)d \text{ ----- (1)}$$

이다. 첫째항부터 제 n 항까지의 합을 $S_n = a_1 + a_2 + \dots + a_n$ 이라 할 때,

$$S_n = \frac{n\{60 + (n-1)d\}}{2} \text{ ----- (2)}$$

이고, $T_n = |S_n|$ 이다. (3점)

(ii) 조건 (나)에서 $|S_{10}| = |S_{11}| = |S_{10} + a_{11}|$ 이므로,

$$|S_{10} + a_{11}| = |S_{10}| \text{ ----- (3)}$$

이다. (3)에서

$S_{10} + a_{11} = S_{10}$ 인 경우, $a_{11} = 0$ 이다. 따라서 (1)에 의해

$$a_{11} = 30 + 10d = 0 \text{ 즉, } d = -3 \text{이다.}$$

$S_{10} + a_{11} = -S_{10}$ 인 경우, $a_{11} = -2S_{10}$ 이다. 따라서 (1)과 (2)에 의해

$$-2S_{10} = -2 \times \frac{10(60 + 9d)}{2} = 30 + 10d = a_{11} \text{ 즉, } d = -\frac{63}{10} \text{이다.}$$

조건 (가)에 의해 공차 d 는 정수이므로 $d = -3$ 이다. (6점)

(iii) $T_n = \left| \frac{n\{60 + (n-1)(-3)\}}{2} \right|$ 이고, $T_{n+1} = \left| \frac{(n+1)\{60 + n(-3)\}}{2} \right|$ 이므로,

부등식 $T_n > T_{n+1}$ 은

$$|n(21-n)| > |(n+1)(20-n)| \text{ ----- (4)}$$

이다. (4)에서

$1 \leq n \leq 20$ 인 경우, $n(21-n) > (n+1)(20-n)$ 이다. 즉, $-n^2 + 21n > -n^2 + 19n + 20$ 이므로 $n > 10$ 이다. 따라서 (4)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 = 11, 12, \dots, 20$ 이다.

$n \geq 21$ 인 경우, $n(21-n) < (n+1)(20-n)$ 이다. 따라서 $n < 10$ 이므로 (4)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이 존재하지 않는다. (6점)

그러므로, $T_n > T_{n+1}$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의 최솟값은 11, 최댓값은 20이고, 이들의 합은 31이다. (2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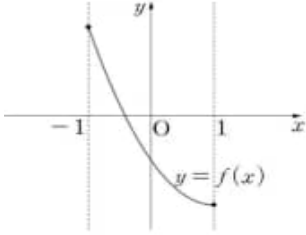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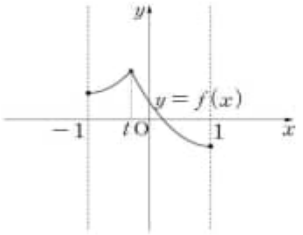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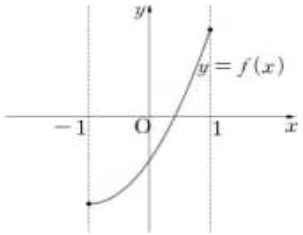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조건 (가)에 의해 a_n 과 T_n 을 구한다.	3
전개	등차수열 $\{a_n\}$ 의 공차 d 의 값을 찾는다.	6
결론	$T_n > T_{n+1}$ 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 의 값을 찾는다.	8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3.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

[문제 7]

문항번호	논술고사 자연계 7번	과목명	수학Ⅱ
내용영역	정적분	행동영역	문제해결력, 추론능력
정답	$\frac{11}{3}$	배점	18점
관련 성취기준	[12수학Ⅱ03-03] 정적분의 뜻을 안다. [12수학Ⅱ03-04] 다항함수의 정적분을 구할 수 있다.		
문항	실수 t 에 대하여, $-1 \leq x \leq 1$ 에서 함수 $f(x) = x^2 - 2 x-t + 1$ 의 최댓값을 $g(t)$ 라 하자. 이때 $\int_{-3}^2 g(t)dt$ 의 값을 구하시오. (18점)		

자료명(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수학Ⅱ	박교식 외	동아출판	2021	127	제시문	○

문항 해설
(i) $f(x) = x^2 - 2 x-t + 1$에서 $f(x) = \begin{cases} x^2 + 2x - 2t + 1 = (x+1)^2 - 2t & (x < t) \\ x^2 - 2x + 2t + 1 = (x-1)^2 + 2t & (x \geq t) \end{cases} \text{----- (1)}$ 이다. (4점) (ii) (1)에 의해 $-1 \leq x \leq 1$에서 함수 $y = f(x)$의 그래프는 t의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다. $t \leq -1$인 경우  $-1 < t < 1$인 경우  $t \geq 1$인 경우  $t \leq -1$인 경우, $-1 \leq x \leq 1$에서 $f(x) = (x-1)^2 + 2t$이므로 $f(x)$는 $x = -1$에서 최댓값을 가진다. 즉, $g(t) = f(-1) = 4 + 2t$이다. $-1 < t < 1$인 경우, $-1 \leq x \leq 1$에서 $f(x) = \begin{cases} (x+1)^2 - 2t & (-1 \leq x < t) \\ (x-1)^2 + 2t & (t \leq x \leq 1) \end{cases}$이므로 $f(x)$는 $x = t$에서 최댓값을 가진다. 즉, $g(t) = f(t) = t^2 + 1$이다. $t = 1$인 경우, $-1 \leq x \leq 1$에서 $f(x) = \begin{cases} (x+1)^2 - 2 & (-1 \leq x < 1) \\ 2 & (x = 1) \end{cases}$이므로 $f(x)$는 $x = 1$에서 최댓값을 가진다. 즉, $g(1) = f(1) = 2$이다. $t > 1$인 경우, $-1 \leq x \leq 1$에서 $f(x) = (x+1)^2 - 2t$이므로 $f(x)$는 $x = 1$에서 최댓값을 가진다. 즉, $g(t) = f(1) = 4 - 2t$이다.

문항 해설

따라서 $-1 \leq x \leq 1$ 에서 함수 $f(x)$ 의 최댓값 $g(t)$ 는

$$g(t) = \begin{cases} 4+2t & (t \leq -1) \\ t^2+1 & (-1 < t < 1) \\ 4-2t & (t \geq 1) \end{cases}$$

이다. (9점)

(iii) 그러므로, $\int_{-3}^2 g(t)dt = \int_{-3}^{-1} (4+2t)dt + \int_{-1}^1 (t^2+1)dt + \int_1^2 (4-2t)dt = \frac{11}{3}$ 이다. (5점)

단계	채점 기준	배점
도입	$f(x)$ 를 $x < t$ 와 $x \geq t$ 에 따라 나타낸다.	4
전개	t 의 범위에 따라 $-1 \leq x \leq 1$ 에서 함수 $y = f(x)$ 를 파악하고, $g(t)$ 를 구한다.	9
결론	$\int_{-3}^2 g(t)dt$ 의 값을 구한다.	5

채점 유의 사항	1. 타당한 설명을 통해 온전히 답을 얻었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2. 함수 $y = f(x)$ 의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도 된다.
	3. 단순한 계산 실수와 같은 사소한 실수는 건당 1점씩 감점한다.
	4. 타당한 설명이 없이 답만 기술하는 경우 0점 처리한다.